

SBM

Self Bible Meditation for Maturity

레위기

LEV · 오경 · 히브리어

관찰 핵심 정리 · 완성 27장 · 네다바웨이 Observatory

레위기 1장

LEV-001 · 오경 · 히브리어

번제의 규례. "회막에서 부르시고" 한 호명으로 제물의 길이 셋으로 갈린다.

관찰된 사실

레위기 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 회막(ohel mo'ed)과 그 앞 제단(mizbeach). 1절 "회막에서" 부르심, 3절 "회막 문에서" 드림.
- 동선이 둘로 나뉜다 — 드리는 자(회막 문 앞, 안수·도살·각 뜸)와 제사장(제단, 피 뿌림·불에 올림).
- 소품: 제물 세 종류(소 baqar · 양/염소 tson · 새 of), 피, 칼, 제단의 불, 물(내장·정강이 씻음), 재 버리는 곳.
- 제물 조건: 소·양은 "흠 없는 수컷"(tamim zakhar), 새는 산비둘기·집비둘기 새끼(흠·성별 조건 없음).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이야기에서 절차서로 전환되는 인상. 사람 사이의 대화가 없다.
- 감각이 앞선다 — 가죽·피·타는 냄새(P05). 도살 다음에 "향기로운 냄새"가 와서 정서가 묘하게 누그러진다(P07).
- 같은 틀의 세 번 반복이 청각적 리듬을 만든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wayyiqra)···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 부름 + 열린 조건.
- 17절: 새 번제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 셋째 제물의 마무리.
- 9·13·17절이 모두 "향기로운 냄새"(reach nichoach)로 닫힌다. 세 제물의 결말이 같은 정형구로 정렬.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여호와 / 모세 / "너희 중 누구든지"(드리는 자) / 아론의 자손 제사장. 이름은 모세뿐.
- 드리는 자의 동작: 안수(semikhah, 4절) → 잡음(shachat, 5절) → 가죽 벗김·각 뜸 → 씻음.
- 제사장의 동작: 피 뿌림(zaraq) → 불 위에 벌여 놓음 → 전부 태움.
- 화법: 조건문 표제 im(만일)이 단락마다 — 소(3절)·양(10절)·새(14절).
- 4절 "안수하라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리라" — kapper 어근. 본문은 더 풀지 않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절): 회막의 부름, "드리려거든" 표제
- 컷 2 (3-9절): 소의 번제 — 전 절차, 향기로운 냄새

- 컷 3 (10-13절): 양·염소의 번제 — 같은 절차, 향기로운 냄새
- 컷 4 (14-17절): 새의 번제 — 목 비틀고 끊지 않음, 향기로운 냄새
- 컷 2→3→4는 큰 짐승에서 새로 '내려가는 계단'. 절차의 양도 감소.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olah(אָלַח) — 번제. '올라가는 것'. 70인역 ὀλοκαύτωμα(전부 태움).
- qorban(קָרְבָּן) — 예물/제물. '가까이 가져오는 것' 어근(qarav).
- wayyiqra(וַיִּקְרָא) — "부르시고". 레위기의 히브리어 책 이름.
- semikhah(어근 samakh, 4절) — 안수, 손을 기대어 누름.
- shachat(שָׁחַט) — 잡다/도살하다. 주어가 드리는 자.
- zaraq(זָרַק) — (피를) 뿌리다. 주어가 제사장.
- ishshah(שָׂחַ) — 화제(火祭), '불로 드리는 것'.
- reach nichoach(רָיַח נִחוּחַ) — 향기로운 냄새. 창 8:21 첫 등장.
- tamim zakhar(זָכָר תָּמִים) — 흠 없는 수컷(소·양).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조건법(casuistic) 율법 형식 — "만일 ~이면(im) ... 할지니라"의 반복 틀.
- 세 제물의 **평행 삼중 구조**: 소(3-9) // 양(10-13) // 새(14-17). 같은 절차 골격의 변주.
- 각 단락이 "향기로운 냄새"의 후렴으로 닫힘(9·13·17).
- 제물 크기의 하강 — 소 → 양/염소 → 새. 절차 서술량도 따라 감소.

6 의문·발견·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전소 제물(holocaust) 형태가 우가릿·페니키아 제의에 보고됨. 번제는 가축 외 전체를 태우는 점에서 근동 전소 제의와 형태가 겹친다.
- 제물 연기를 신이 맡는 모티프 — 길가메시·아트라하시스 홍수 서사. 창 8:21 노아 번제의 "향기로운 냄새"와 정형구가 병행 관찰됨.
- 안수(semikhah) 동작의 근동 제의 배경. 본문은 동작만 명시하고 의미는 풀지 않음.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레 1 ↔ 창 8:20-21 ("향기로운 냄새" 정형구의 첫 등장)
- 레 1 ↔ 창 22:13 (이삭 대신 숫양 번제)
- 레 1 ↔ 출 29:38-46 (상번제 규정)
- 레 1 ↔ 레 6:8-13 (번제 처리·불 꺼지지 않게 / 가축은 제사장 몫 7:8)
- 레 1 ↔ 시 51:16-17 (번제보다 상한 심령)
- 레 1 ↔ 히 10:5-10 · 롬 12:1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회막 안에서 한 음성이 모세를 부른다. 명령이 아니라 부름이다. 백성에게 전할 규례가 시작된다. 한 사람이 소를 끌고 문 앞에 와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손으로 잡는다. 제사장이 피를 받아 제단 사방에 뿌리고, 가축을

벗기고 각을 떠 씻은 뒤 제단 불 위에 전부 올린다. 연기가 위로 올라간다. 다음 사람은 양이나 염소로 같은 길을 걷고, 마지막 사람은 새 한 마리로 같은 길을 더 작게 걷는다. 큰 짐승에서 새까지 같은 절차가 세 번 반복되고, 마지막마다 같은 구절이 달는다 — "향기로운 냄새".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별 제목: "한 길, 세 제물 — 소·양·새"
- 초별 부제: "안수·잡음·뿌림·태움 — 세 번 반복되는 향기로운 냄새"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9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전소 제의 + 조건법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별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전부 태움"이 헌신·희생 교리로 번질 위험 → 어휘·절차 분포까지만 기록, 의문으로 이월.
- "속죄가 되리라"(kapper)를 신학 프레임으로 풀지 않음. 어휘 등장만 표시.
- 새 번제의 흠·성별 조건 생략을 "가난한 자 배려"로 단정하지 않음 → 미해결 질문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레위기 1장은 한 부름에서 시작해 같은 절차가 세 제물로 변주되며 같은 후렴으로 닫힌다.

한 문단: 본문은 "부르시고"(wayyiqra)라는 한 단어로 열려, 곧장 "누구든지 드리려거든"이라는 열린 조건으로 내려간다. 그다음은 이야기가 아니라 절차다. 소·양·새 세 제물이 같은 골격(안수→잡음→피 뿌림→태움)을 거치되, 크기가 내려갈수록 동작이 줄고, 세 단락은 모두 "향기로운 냄새"라는 같은 구절로 봉인된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회막과 제단. 드리는 자(문 앞)와 제사장(제단)의 두 동선. 소품 — 소·양·새, 피, 칼, 불, 물.
2 첫 느낌·분위기	이야기에서 절차서로 전환. 가죽·피·타는 냄새 다음에 "향기로운 냄새"가 와 정서가 누그러진다.
3 시작과 끝	시작 — 부름(wayyiqra) + "드리러거든"(1-2). 끝 — 새 번제의 향기로운 냄새(17). 9·13·17절 동일 후렴.
4 등장인물·사물·상황·사상	여호와·모세·드리는 자·제사장. 손이 나뉜다 — 잡음(드리는 자)과 피 뿌림(제사장). 조건문 im이 단락 표제.
5 장면 컷 분절	컷 1 부름(1-2). 컷 2 소(3-9). 컷 3 양·염소(10-13). 컷 4 새(14-17). 크기가 내려가는 계단.
6 의문·발견·정보	왜 전부 태우는가. 손이 나뉜 까닭. 새의 흠·성별 조건 생략. 정보 — olah는 '올라가는 것', 가죽 외 전부 태움.
7 동영상	부름 → 소 → 양 → 새. 같은 길을 세 번, 점점 작게 걷고, 마지막마다 연기가 올라가며 같은 구절이 달는다.
8 초벌 제목·부제	초벌 제목 — "한 길, 세 제물 — 소·양·새". 부제 — "세 번 반복되는 향기로운 냄새".
9 기도·내면 떠오름	회막 문 앞을 걸으며 "전부 올려 드리는 일"의 자리에서 멈춘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걸

1. **걸 1 — 한 부름이 먼저다:** 책이 "부르시고"로 열린다. 규례 이전에 부름이 온다. 본문의 첫 단어가 걸을 정한다.
2. **걸 2 — 세 번주의 같은 후렴:** 소·양·새가 같은 골격을 거치되, 끝은 셋 다 "향기로운 냄새"로 정렬된다. 크기가 달라도 마무리는 같다.
3. **걸 3 — 나뉜 손:** 잡는 손(드리는 자)과 뿌리는 손(제사장)이 한 제물 위에서 갈린다. 본문은 동작만 나누고 이유는 비워 둔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레 6:8-13 (번제 처리·불 꺼지지 않게). 레 7:8 (가죽은 제사장 몫).
- 다른 권 — 창 8:21 ("향기로운 냄새"의 첫 등장). 창 22:13 (대속의 숫양 번제). 출 40:34-35 (회막을 채운 영광 — 부름의 전사).
- 정경 흐름 — 레위기의 첫 장은 출애굽기 끝(장막 완성)을 이어받아, 그 장막 안에서 어떻게 가까이 갈지 (qorban)를 연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부르시고"라는 첫 단어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자기 손으로 제물을 잡는 장면(5절)에서 멈춘다.
- **멈춤 2:** 같은 후렴이 세 번째로 달히는 17절에서 멈춘다.
- **끝:** 크기가 달라도 길이 같다는 걸을 손에 준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회막 문 앞에 세운다. 가르침 없이 자리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책이 부름(wayyiqra)으로 열린다
- [x] 같은 절차가 세 제물로 변주된다
- [x] 세 단락이 같은 후렴으로 닫힌다
- [x] 손이 둘로 나뉜다
- [x] 제물 크기가 내려가는 계단이다
- [x] 번제는 (가죽 외) 전부 태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가까이(qorban).

미해결 질문

레위기 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번제만 제물 전체를 태우는가?

- 다른 제사는 일부를 제사장·드린 자가 먹는데, 번제는 가죽 외 전부 태움(7:8 가죽은 제사장 몫).
- 본문은 '왜 전부 태우는가'를 말하지 않음. 묵상으로 이월.

Q2. 도살은 드리는 자, 피·불은 제사장 — 손이 나뉜 이유는?

- 5절: 드리는 자가 잡고(shachat), 제사장이 피를 뿌림(zaraq).
- 두 손의 분담을 본문은 설명하지 않음.

Q3. 새 번제에만 "수컷·흠 없음" 조건이 빠진 이유는?

- 소·양은 "흠 없는 수컷", 새는 그 조건 없음.
- 형편(가난) 배려로 단정하지 않고 어휘 분포만 관찰.

Q4. 안수(semikhah)는 무엇을 하는 동작인가?

- 4절 "안수하라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리라"(kapper).
- 전가·동일시·지명 등 해석은 묵상으로 이월. 관찰은 동작 명시까지만.

Q5. "향기로운 냄새"(reach nichoach)의 세 번 반복은?

- 9·13·17절, 세 제물 각각의 끝에 동일 정형구.
- 창 8:21과의 연결이 본문 안에서 설명되지 않음. 보존.

Q6. 첫 단어가 "부르시고"(wayyiqra)인 이유는?

- 명령·말함이 아니라 부름으로 책이 열림.
- 출애굽기 끝의 영광 충만(출 40:34-35)과의 연결은 다음 절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레위기 2장

LEV-002 · 오경 · 히브리어

곡식의 예물. 한 줌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 누룩·꿀은 막고, 소금은 빼지 말라.

관찰된 사실

레위기 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 회막·제단. 1장의 도살 무대에서 '부엌' 쪽으로 옮겨간 인상 — 조리해 가져온다.
- 소품: 고운 가루(solet), 기름(shemen), 유향(levonah), 화덕(tannur)·번철(machavat)·냄비(marchesheth), 소금, 첫 이삭.
- 곡식의 세 형태: 날가루(1-3) / 구운 것(4-10) / 첫 이삭 볶은 것(14-16).
- 13절 "소금 언약"(melach berit) — 근동의 소금 봉인 관습이 배경으로 깔림.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피가 없다. 부엌 냄새(가루·기름·빵)로 1장과 결이 또렷이 갈린다.
- "지극히 거룩한 것"이 묵직하게 반복된다.
- 끝의 금지·명령(누룩/꿀/소금) 대비가 또렷하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 1장과 같은 조건 표제.
- 16절: 첫 이삭 소제를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니라"로 닫음.
- 2·9절이 "향기로운 냄새"(reach nichoach)로 닫힘 — 1장 후렴의 연속.
- 11-13절 금지·명령 단락이 절차 사이에 박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여호와 / 모세 / 드리는 자 / 아론과 그 자손. 1장과 동일 구성.
- 분배가 또렷 — "한 줌"(qomets)만 태움(azkarah, 기념물), 나머지는 제사장 몫(3·10절).
- 화법: 조건문(im) — 화덕(4) / 번철(5) / 냄비(7).
- 11-13절 금지·명령 짝: 누룩(chametz) 금지 · 꿀(devash) 금지 · 소금(melach) 명령.
- "지극히 거룩한 것"(qodesh qodashim)이 제사장 몫에 붙음(3·10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날 고운 가루 — 한 줌 태움, 나머지 지성물
- 컷 2 (4-10절): 구운 것 — 화덕·번철·냄비 세 조리법
- 컷 3 (11-13절): 금지·명령 — 누룩·꿀 금지, 소금 언약
- 컷 4 (14-16절): 첫 이삭 — 볶아 찜, 기념물 사름

- 컷 1:2·4 = '드리는 법', 컷 3 = '드리는 조건'. 컷 3이 가운데 박힘.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minchah(מִנְחָה) — 소제. '선물·조공' 어감. 70인역 θυσία.
- solet(סֹלֶת) — 고운 가루.
- levonah(לֶבֶנָה) — 유향.
- qomets(קֹמֵט) — 한 줌.
- azkarah(אֶזְכָּרָה) — 기념물('기억하게 하는 것'). 70인역 μνημόσυον.
- chametz(חֻמֵץ) — 누룩.
- devash(דְּבַשׁ) — 꿀.
- melach berit(מֶלַח בְּרִית, מֶלַח בְּרִית) — 소금 언약.
- qodesh qodashim(קֹדֶשׁ קֹדָשִׁים) — 지극히 거룩한 것(지성물).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조건법(casuistic) 형식 — 곡식 가공 형태별 im 표제.
- '드리는 법(1-10, 14-16)'을 '드리는 조건(11-13)'이 가운데서 가르는 **삼입 구조**.
- "향기로운 냄새" 후렴(2:9)이 1장과 이어짐 — 제사 간 연결 장치.
- 금지(누룩·꿀)와 명령(소금)이 대구를 이룸.

6 의문·발견·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곡물·빵·기름 예물이 메소포타미아·우가릿 신전 제의에 보고됨. 소제는 그 형태와 겹친다.
- 소금을 함께 먹어 언약을 봉인하는 근동 관습 → "소금 언약" 표현의 배경.
- 누룩·꿀의 발효·부패 연상이 제단 화제에서 배제된 정결 관념의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레 2 ↔ 레 6:14-23 (소제 처리·제사장 위임 소제)
- 레 2 ↔ 민 18:9 (지성물이 제사장 몫)
- 레 2 ↔ 출 23:18 / 출 29:2 (유교병 금지·위임식 무교병)
- 레 2 ↔ 민 18:19 / 대하 13:5 (소금 언약)
- 레 2 ↔ 막 9:49-50 / 골 4:6 (소금)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한 사람이 고운 가루를 들고 와 기름을 붓고 유향을 얹는다. 제사장이 한 줌과 기름·유향을 제단에 태우고 향기가 올라가며, 나머지는 거룩한 몫으로 제사장들에게 남는다. 다른 이는 이미 구워 온 과자·전·지짐을 조각 내 기름을 붓고 같은 처리를 받는다. 그 사이에 규정이 끼어든다 — 누룩과 꿀은 사르지 말고, 모든 소제에 소금을 치라. 마지막으로 갓 거둔 첫 이삭을 볶아 찢어 와, 기념물 한 줌을 태운다. 곡식이 가루·빵·첫 이삭으로 모습을 바꿔도 처리는 같다 — 한 줌은 올라가고 나머지는 거룩한 몫으로 남는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한 줌은 올라가고 나머지는 거룩한 몫"

- 초벌 부제: "기념물·소금 언약 — 한 장 가운데 박힌 금지와 명령"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9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곡물 예물·소금 언약 + 삼입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한 줌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 뭉"을 헌신의 비율 교훈으로 풀지 않음 → 절차 분포까지만.
- 누룩·꿀·소금을 죄·은혜 알레고리로 단정하지 않음 → 어휘·금지/명령 대구만 기록.
- "소금 언약"을 언약신학으로 확장하지 않음 → 표현 등장과 근동 배경만 표시.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레위기 2장은 곡식이 가루·빵·첫 이삭으로 모습을 바꿔 와도 처리가 하나로 모이는 걸이다.

한 문단: 피 흘리는 번제 다음에 피 없는 곡식 예물이 온다. 본문은 곡식의 세 형태(날가루·구운 것·첫 이삭)를 조건문으로 나열하되, 처리는 같다 — 한 줌(qomets)을 기념물로 태우고 나머지는 지극히 거룩한 제사장 뭉으로 남긴다. 그 절차 한가운데에 금지(누룩·꿀)와 명령(소금 언약)이 박혀, 한 장을 한 번 쥘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희막·제단, '부엌'으로 옮겨간 무대. 소품 — 고운 가루·기름·유향·화덕·번철·냄비·소금·첫 이삭.
2 첫 느낌·분위기	피가 없다. 부엌 냄새로 1장과 같린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 묵직하게 반복.

단계	핵심 발견
3 시작과 끝	시작 — 고운 가루(1). 끝 — 첫 이삭 화제(16). 2·9절 "향기로운 냄새" 후렴. 11-13절 금지·명령 삽입.
4 등장인물·사물·상황·사상	여호와·모세·드리는 자·제사장. 한 줌(qomets)만 태움(azkarah), 나머지 제사장 몫(3·10).
5 장면 컷 분절	컷 1 날가루(1-3). 컷 2 구운 것(4-10). 컷 3 금지·명령(11-13). 컷 4 첫 이삭(14-16). 컷 3이 가운데 박힘.
6 의문·발견·정보	전부 태움 대 한 줌. 누룩·꿀 금지와 소금 명령의 갈림. 정보 — minchah는 '선물·조공', azkarah는 '기억하게 함'.
7 동영상	가루 → 빵 → 첫 이삭. 모습은 달라도 한 줌은 올라가고 나머지는 거룩한 몫. 가운데 금지·명령이 한 번 켜진다.
8 초벌 제목·부제	초벌 제목 — "한 줌은 올라가고 나머지는 거룩한 몫". 부제 — "기념물·소금 언약".
9 기도·내면 떠오름	곡식을 빚는 손길 곁을 곁으며 "한 줌만 올려도 향기로 받으심"의 자리에서 멈춘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한 줌과 나머지:** 번제는 전부 태웠으나 소제는 한 줌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거룩한 몫으로 남는다. 같은 제단의 정반대 처리.
- 결 2 — 가운데 박힌 금지·명령:** '드리는 법' 사이에 누룩·꿀 금지와 소금 명령이 끼어 한 장을 켜는다.
- 결 3 — 같은 후렴:** 피 없는 곡식에도 "향기로운 냄새"가 똑같이 붙는다(2·9). 후렴이 제사들을 잇는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레 1장** (번제, 전부 태움 ↔ 한 줌). **레 6:14-23** (소제 처리·제사장 위임 소제).
- 다른 권 — **출 23:18** (유교병 금지). **민 18:9,19** (지성물·소금 언약). **막 9:49-50** (소금).
- 정경 흐름 — 번제(피) 다음에 소제(곡식)가 놓여, 제사의 종류가 피의 유무로 갈리며 배열되기 시작한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피 없는 예물이 처음 나오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멈춘다.
- **멈춤 1:** 한 줌만 태우고 나머지를 사람이 먹는 처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절차 한가운데 박힌 "소금 언약"에서 멈춘다.
- **끝:** 곡식이 어떤 모습으로 와도 처리는 하나라는 곁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곡식 빚는 손길 곁에 세운다. 가르침 없이 자리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피 없는 곡식 예물이다
- [x] 곡식이 가루·빵·첫 이삭 세 형태로 온다
- [x] 한 줌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지성물)
- [x] 가운데 금지(누룩·꿀)와 명령(소금)이 박혔다
- [x] "향기로운 냄새" 후렴이 1장과 이어진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뭉.

미해결 질문

레위기 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번제는 전부 태우고 소제는 한 줌만 태우는가?

- 1장은 (가죽 외) 전부, 2장은 한 줌(qomets)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 뭉.
- 본문은 처리 차이의 까닭을 말하지 않음. 묵상으로 이월.

Q2. 누룩·꿀은 막고 소금은 꼭 치라는 갈림의 이유는?

- 셋 다 맛·성질에 관여하나 둘은 금지, 하나는 명령.
- 발효/부패 대 보존이라는 배경 관찰은 했으나 본문은 '왜'를 비워 둠.

Q3. "소금 언약"(melach berit)이 곡식 규정에 박힌 이유는?

- 제사 절차 한가운데 '언약'이라는 큰 단어가 등장.
- 민 18:19·대하 13:5와의 연결은 다음 결로. 관찰은 등장 위치까지만.

Q4. "한 줌"(qomets)과 "기념물"(azkarah)의 관계는?

- 태우는 분량이 한 줌, 그 행위가 '기억하게 하는 것'.
- 누구의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가는 본문이 풀지 않음. 보존.

Q5. "지극히 거룩한 것"이 제사장 뭉에 붙은 이유는?

- 3·10절, 사람이 먹는 부분에 최고 등급의 거룩이 매겨짐.
- 먹음과 거룩의 관계는 묵상으로 이월.

Q6. 첫 이삭(bikkurim) 소제가 따로 붙은 이유는?

- 14-16절, 갓 거둔 곡식을 볶아 찢어 드리는 형태가 별도로 명시됨.
- 수확·첫 것의 결이 본문 안에서 더 풀리지 않음.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레위기 3장

LEV-003 · 오경 · 히브리어

화목의 제물. 기름은 다 여호와와 의 것,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가 영원한 규례로 닫힌다.

관찰된 사실

레위기 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 회막·제단. 5절 "번제 위에" 사름 — 번제 무대가 겹쳐 있음.
- 소품: 콩팥(kelayot), 간 꺼풀(yotereth kaved), 내장 기름(chelev), 양의 기름진 꼬리(alyah).
- 제물 셋: 소(baqar) · 양(kevasim) · 염소(ez). 흠 조건은 있되 암수 모두 허용.
- 근동 비육 양의 기름진 꼬리·내장 기름을 신에게 돌리는 부위 구분 관습이 배경.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기름"이 집중적으로 반복된다. 부위가 해부도처럼 세밀하다.
- 1장과 닮았으나 태움 대상이 전체가 아니라 기름·내장이다.
- 마지막 한 줄(17절)의 금지가 강하게 닫는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 1·2장과 같은 조건 표제.
- 17절: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chuqqat olam) — 금지로 닫음.
- 1·2장은 제물 마무리로 닫혔으나, 3장은 금지 명령으로 닫히는 차이.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여호와 / 모세 / 드리는 자 / 아론의 자손. 1장과 동일 구성·동선.
- 태움 대상이 기름(chelev)과 내장 부위뿐. 고기 처리는 이 장에 없음.
- 화법: 조건문(im) — 소(1) / 양(6) / 염소(12).
- 제단 사름을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lechem, 11·16절)이라 부름.
- 16절 "모든 기름은 여호와와 의 것이니라" — 기름의 귀속 선언.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절): 소의 화목제 — 기름·콩팥·간 꺼풀을 번제 위에 사름
- 컷 2 (6-11절): 양의 화목제 — 기름진 꼬리 추가, "음식"
- 컷 3 (12-16절): 염소의 화목제 — 같은 기름 처리, 향기로운 냄새
- 컷 4 (17절): 닫는 금지 —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영원한 규례"
- 컷 1·2·3 = 종류별 반복, 컷 4 = 따로 떨어진 짧은 금지.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zevach shelamim(זֶבַח שְׁלָמִים) — 화목제. shalom(평화·온전함) 어근. 70인역 θυσία σωτηρίου.
- chelev(כֶּלֶב) — (내장·콩팥의) 기름. 식용 지방과 구별되는 부위.
- dam(דָּם) — 피.
- kelayot(כֵּלָיִת) — 콩팥.
- yotereth kaved(יֹתֵרֶת קָבֵד) — 간에 덮인 꺼풀.
- alyah(אֲלִיָּה) — 기름진 꼬리(양).
- lechem(16·11, לֶחֶם) — '음식'으로 부른 제단 화제.
- chuqqat olam(17, חֻקֵּי עוֹלָם) — 영원한 규례.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조건법(casuistic) 형식 — 소·양·염소의 im 표제 삼중 반복.
- 1장(전부 태움) ↔ 3장(기름·내장만 태움)의 **처리 대조**.
- "향기로운 냄새" 후렴(5·16)이 1·2장과 이어짐.
- 17절 금지(chuqqat olam)가 절차 밖에서 전체를 봉인하는 **클라이맥스 금지**.

6 의문·발견·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제물을 신·제사장·드린 자가 나눠 먹는 친교 제사 형태가 우가릿 문헌에 보고됨. 화목제는 그 공동 식사 제의와 형태가 겹친다.
- 내장 기름·콩팥을 신에게 돌리는 부위 구분이 근동 제의 배경.
- 기름진 꼬리(alyah)는 근동 비육 양 품종의 특징 부위.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레 3 ↔ 레 7:11-36 (화목제 처리·먹는 규례·요제 가슴/거제 넓적다리)
- 레 3 ↔ 레 17:10-14 / 신 12:23 (피를 먹지 말라·피는 생명)
- 레 3 ↔ 출 29:13 (위임식의 기름·콩팥)
- 레 3 ↔ 삼상 9:24 / 고전 10:18 (제물을 먹는 자)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한 사람이 소를 끌고 와 안수하고 잡으면, 제사장이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다. 이어 손이 안으로 들어가 내장 기름과 두 콩팥, 간 꺼풀을 떼어 이미 타고 있는 번제 위에 얹는다. 양일 때는 기름진 꼬리가 통째로 더해지고,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으로 사른다. 염소도 같은 부위가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간다. 세 제물에서 같은 기름이 떼어져 올라간 뒤, 마지막에 짧은 한 줄이 모두를 덮는다 —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대대로 영원한 규례." 기름은 여호와의 것으로 돌려지고, 피도 사람의 입에서 거둬진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세 제물, 한 금지"
- 초벌 부제: "기름은 여호와의 것 — 영원한 규례로 닫히는 한 줄"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친교 제사 + 처리 대조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화목제=화평·교제"의 신학적 의미로 확장하지 않음 → shelamim 어근과 처리 절차까지만.
- "기름과 피 금지"를 생명·속죄 교리로 단정하지 않음 → 16-17절 어휘와 귀속 선언만 기록.
- "음식"(lechem) 표현을 신인동형론 논의로 끌지 않음 → 표현 등장만 표시.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레위기 3장은 세 제물에서 기름만 떼어 올리고, 마지막 한 줄의 금지가 전체를 덮는 걸이다.

한 문단: 번제(전부 태움)·소제(한 줌 태움) 다음에 화목제가 온다. 여기서는 소·양·염소 모두에서 내장 기름·콩팥·간 꺼풀(양은 기름진 꼬리까지)만 떼어 번제 위에 사른다. 절차의 삼중 반복이 끝난 자리에, 절차 아닌 짧은 금지 한 줄이 떨어진다 —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영원한 규례"(chuqqat olam). 기름은 여호와와 의 것으로 돌려지고, 피도 사람의 입에서 거둬진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희막·제단, "번제 위에" 사름(무대 겹침). 소품 — 콩팥·간 꺼풀·내장 기름·기름진 꼬리.
2 첫 느낌·분위기	"기름"의 집중 반복, 해부도처럼 세밀한 부위. 마지막 금지 한 줄이 강하게 닫는다.

단계	핵심 발견
3 시작과 끝	시작 — 조건 표제(1). 끝 — 금지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17, chuqqat olam). 달는 방식이 1·2장과 다름.
4 등장인물·사물·상황·사상	여호와·모세·드리는 자·제사장. 태움 대상은 기름·내장뿐, 고기 처리 침묵. 제단 화제를 "음식"(lechem)이라 부름.
5 장면 컷 분절	컷 1 소(1-5). 컷 2 양(6-11). 컷 3 염소(12-16). 컷 4 달는 금지(17). 컷 4가 따로 떨어짐.
6 의문·발견·정보	고기는 어디로. 왜 기름·피만 금하나. 정보 — shelamim은 shalom 어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16).
7 동영상	소 → 양 → 염소에서 같은 기름이 떼어져 올라간 뒤, 한 줄의 금지가 모두를 덮는다.
8 초별 제목·부제	초별 제목 — "세 제물, 한 금지". 부제 — "기름은 여호와의 것".
9 기도·내면 떠오름	제단 곁을 걸으며 "기름을 떼어 드리고 손에 거두지 않음"의 자리에서 멈춘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기름만 올라간다:** 번제는 전부, 소제는 한 줌, 화목제는 기름·내장만. 제사마다 '올라가는 분량'이 다르다.
- 결 2 — 달는 금지:** 절차가 끝난 자리에 절차 아닌 금지가 떨어진다.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가 영원한 규례로 봉인된다.
- 결 3 — 음식인데 먹지 못함:** 사르는 것을 "음식"(lechem)이라 부르나, 그 기름은 사람의 음식이 아니다. 같은 단어가 둘로 갈린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레 1장** (번제, 전부 ↔ 기름만). **레 7:11-36** (화목제 고기 처리). **레 17:10-14** (피 금지의 확장).
- 다른 권 — **신 12:23** ("피는 생명"). **출 29:13** (위임식 기름·콩팥). **고전 10:18** (제물을 먹는 자).
- 정경 흐름 — 번제·소제·화목제가 나란히 배열되며, '올라가는 분량'과 '먹는 자'의 구분이 제사 체계를 짜기 시작한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화목"이라는 이름(평화의 어근)에서 한 사람이 멈춘다.
- **멈춤 1:** 전부가 아니라 기름만 떼어 올리는 장면에서 멈춘다.
- **멈춤 2:** 절차 끝에 떨어지는 금지 한 줄(17절)에서 멈춘다.
- **끝:** 올라가는 분량이 제사마다 다르다는 걸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제단 곁에 세운다. 가르침 없이 자리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세 제물(소·양·염소)이 같은 처리를 받는다
- [x] 태움 대상은 기름·내장뿐이다
- [x] "번제 위에" 얹는다(무대 겹침)

- [x]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16)
- [x] 한 줄의 금지가 영원한 규례로 단는다(17)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금지.

미해결 질문

레위기 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화목제의 고기는 어디로 가는가?

- 본문은 기름·내장의 사름만 말하고 고기 처리를 침묵.
- 레 7:11-36에서 다뤄지나, 이 장 자체는 비워 둬. 보존.

Q2. 왜 기름과 피만 묶어 먹지 말라 하는가?

- 17절, 둘이 한 쌍으로 금지됨.
- "기름은 여호와의 것"(16절)·"피는 생명"(신 12:23)은 다른 곳에서. 이 장은 까닭을 비움.

Q3. 제단 화제를 "음식"(lechem)이라 부른 이유는?

- 11·16절, 사르는 것을 '음식'이라 칭함. 정작 사람은 그 기름을 먹지 못함.
- '음식'과 '먹지 말라'의 대비가 본문 안에서 풀리지 않음. 보존.

Q4. "번제 위에"(5절) 사른다는 것은 순서를 정한 것인가?

- 화목제가 이미 타는 번제 위에 얹히는지, 제사 간 순서가 고정인지 불명.
- 본문은 위치만 말하고 순서 규정은 비움.

Q5. 양에만 "기름진 꼬리"(alyah)가 명시된 이유는?

- 소·염소엔 없고 양에만 꼬리 부위가 추가됨.
- 품종 특성의 배경 관찰은 했으나 본문은 '왜'를 비움.

Q6. 화목제만 암수를 다 허용한 이유는?

- 번제(1장)는 수컷, 화목제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 제사 종류별 조건 차이의 까닭을 본문은 설명하지 않음.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레위기 4장

LEV-004 · 오경 · 히브리어

부지중의 죄. 신분이 내려갈수록 제물이 작아지고, 피를 바르는 자리가 옮겨간다.

관찰된 사실

레위기 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넓어짐 — 회막 안(회장 parokheth 앞·분향단 mizbeach haqetoret 뿔), 번제단 밑(yesod), 진 밖(michuts la-machaneh) 재 버리는 곳.
- 소품: 피(dam)가 손가락에 찍혀 일곱 번 뿌려지고(hizzah), 뿔(qeren)에 발리고, 밑에 쏟아짐 (shafakh).
- 제물: 수송아지(par, 제사장·회중) / 숫염소(족장) / 암염소·암양(평민).
- 신분별 차등 제물·성소 피 정화가 근동 정화 제의 배경과 형태가 겹침.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드리려거든"에서 "범죄하면"으로 톤이 무거워진다.
- 같은 절차가 네 번, 신분(제사장·회중·족장·평민)을 따라 계단처럼 내려간다.
- "부지중에"(bishgagah)와 "사함을 받으리라"가 반복 후렴을 만든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여호와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부지중) 범하였으되" — 죄의 조건 표제.
- 35절: 평민의 속죄제,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kipper)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nislach)".
- 네 신분 단락이 모두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후렴으로 닫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신분 넷: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mashiach, 3-12) / 온 회중(qahal, 13-21) / 족장(nasi, 22-26) / 평민 (am haarets, 27-35).
- 제물 크기 하강: 수송아지 → 숫염소 → 암염소·암양.
- 피의 깊이 차이: 제사장·회중은 회막 안(회장·분향단), 족장·평민은 번제단 뿔까지.
- 몸 처리: 제사장·회중 제물은 진 밖에서 태움(12·21), 족장·평민은 그 언급 없음.
- 공통: 기름(chelev)은 네 경우 다 제단에 사름. 끝마다 kipper/nislach.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절): "부지중에 범죄하면" 표제
- 컷 2 (3-12절): 제사장 — 수송아지, 회막 안 피, 진 밖 태움
- 컷 3 (13-21절): 회중 — 수송아지, 장로 안수, 진 밖 태움

- 컷 4 (22-26절): 족장 — 숫염소, 번제단 뿔, 사함
- 컷 5 (27-35절): 평민 — 암염소·암양, 번제단 뿔, 사함
- 컷 2·3 묶음(회막 안·진 밖) ↔ 컷 4·5 묶음(번제단·안 들어감).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chatat(חַטָּאת) — 속죄제/죄. '빚나감' 어근.
- bishgagah(בִּישְׁגָּגָה) — 부지중에, 그릇. 70인역 ἀκουσίως.
- mashiach(מָשִׁיחַ) —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 qahal(קָהָל) / nasi(נָסִי) / am haarets(אֲמֵת הָאָרֶץ) — 회중 / 족장 / 평민.
- hizzah(חִצָּה) — (피를) 뿌리다. 휘장 앞 일곱 번.
- qeren(קֶרֶן) — 뿔(제단). yesod(יְסוּד) — 제단 밑.
- kipper(כִּפֶּה) — 속죄하다. nislach(נִסְלַח) — 사함을 받다.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조건법(casuistic) 형식의 4부 평행 구조 — 신분별 단락.
- 하강 위계: 신분이 내려갈수록 제물이 작아지고 피의 깊이가 얕아짐.
- 두 묶음(회막 안·진 밖 / 번제단·안 안 들어감)의 대칭.
-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kipper/nislach) 후렴이 단락마다 닫음.

6 의문·발견·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성소·기물을 피로 정화하는 의례가 히타이트·메소포타미아 문헌에 보고됨. 속죄제 피의 동선과 형태가 겹친다.
- 사회 계층에 따른 차등 제물이 근동 제의 관습의 배경.
- "진 밖" 태움은 정결 처리 구역 구분의 배경. 본문은 장소만 명시.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레 4 ↔ 레 16장 (속죄일 — 피를 지성소로)
- 레 4 ↔ 레 5:1-13 (속죄제 추가 경우·형편 따른 제물)
- 레 4 ↔ 민 15:22-31 (부지중 죄 ↔ 고의 죄)
- 레 4 ↔ 히 13:11-12 (진 밖 태움) / 히 9:13-14 (피의 정결)
- 레 4 ↔ 민 19장 (붉은 암송아지, 진 밖 처리)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한 문장이 길을 연다 —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면." 그다음 같은 길이 네 번 걸어진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끌고 와, 그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가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리고 분향단 뿔에 바르며 나머지를 번제단 밑에 쏟고, 몸은 진 밖에서 태운다. 온 회중도 장로들의 안수로 같은 길을 걷는다. 족장은 숫염소로, 평민은 암염소·암양으로 더 작게 걷고, 그 피는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번제단 뿔에만 발린다. 신분이 내려갈수록 제물이 작아지고 피가 얕아지지만, 네 단락의 끝은 모두 같다 —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네 신분, 한 후렴 — 사함을 받으리라"
- 초벌 부제: "제사장·회중·족장·평민 — 같은 길, 다른 깊이"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2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정화 제의·차등 제물 + 4부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신분별 차등을 사회·계급 교리로 풀지 않음 → 제물 크기·피 깊이의 배열만 기록.
- "부지중의 죄"를 고의 죄 신학과 비교 설교하지 않음 → bishgagah 어휘·조건만 표시.
- "진 밖 태움"을 히 13장 그리스도론으로 끝지 않음 → 교차 참조 노드로만 남김.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레위기 4장은 부지중의 한 죄가 네 신분을 따라 같은 길을 다른 깊이로 걷는 결이다.

한 문단: 드리고 싶어 드리던 앞 세 제사와 달리, 속죄제는 "범죄하면"으로 열린다. 본문은 제사장·회중·족장·평민 네 신분을 따라 같은 절차를 네 번 반복하되, 신분이 내려갈수록 제물이 작아지고(수송아지→숫염소→암염소·암양) 피가 들어가는 깊이가 얕아진다(회막 안→번제단 뿔). 그러나 네 단락의 끝은 모두 같다 —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kipper/nislach).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무대가 넓어짐 — 회막 안(휘장·분향단)·번제단 밑·진 밖. 소품 — 피(찍고·뿌리고·바르고·쏟음), 신 분별 제물.
2 첫 느낌·분위기	"드리려거든"에서 "범죄하면"으로 무거워짐. "부지중에"와 "사함을 받으리라"의 반복.
3 시작과 끝	시작 — 부지중 범죄(1-2). 끝 — 평민의 사함(35). 네 단락이 같은 후렴(kipper/nislach)으로 단 합.
4 등장인물·사물·상황· 사상	신분 넷. 제물 하강(수송아지→숫염소→암염소·암양). 피 깊이 차이(회막 안 ↔ 번제단 뿔). 진 밖 태움(제사장·회중).
5 장면 컷 분절	컷 1 표제(1-2). 컷 2 제사장(3-12). 컷 3 회중(13-21). 컷 4 족장(22-26). 컷 5 평민(27-35). 두 묶음 대칭.
6 의문·발견·정보	제물·피 깊이가 함께 내려감. 제사장과 회중이 같은 등급. 정보 — bishgagah(부지중)가 장 전체 의 조건.
7 동영상	한 문장 → 네 신분의 반복. 제물이 작아지고 피가 얕아지나 끝은 같다 — "사함을 받으리라".
8 초벌 제목·부제	초벌 제목 — "네 신분, 한 후렴". 부제 — "같은 길, 다른 깊이".
9 기도·내면 떠오름	피가 옮겨 다니는 자리를 걸으며 "모르고 빛나간 자리의 돌아갈 길"에서 멈춘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함께 내려가는 두 변화:** 신분이 낮아질수록 제물 크기와 피의 깊이가 동시에 내려간다. 두 변화가
한 축으로 움직인다.
2. **결 2 — 한 죄에 네 길:** 같은 부지중의 죄가 신분에 따라 네 절차로 갈린다. 죄는 하나이되 처리는 신분을 탄
다.
3. **결 3 — 같은 끝:** 깊이가 달라도 네 단락은 모두 "사함을 받으리라"로 닫힌다. 길은 달라도 도착이 같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레 5:1-13 (속죄제 추가 경우·형편 따른 제물). 레 16장 (속죄일, 피를 지성소로).
- 다른 권 — 민 15:22-31 (부지중 죄 ↔ 고의 죄). 히 13:11-12 (진 밖 태움). 히 9:13-14 (피의 정결).
- 정경 흐름 — 자원하는 제사(번제·소제·화목제) 다음에 죄를 다루는 제사가 놓여, 제사 체계가 '드림'에서
'돌이킴'으로 넓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범죄하면"이라는 무거운 첫 조건에서 한 사람이 멈춘다.
- 멈춤 1: 신분 따라 제물이 작아지는 계단에서 멈춘다.
- 멈춤 2: 피가 회막 안까지 들어가는 자리와 못 들어가는 자리의 경계에서 멈춘다.
- 끝: 깊이는 달라도 도착이 같다는 걸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피의 동선 곁에 세운다. 가르침 없이 자리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속죄제는 "부지중에"(bishgagah)를 조건으로 한다
- [x] 네 신분(제사장·회중·족장·평민)을 따라 반복된다
- [x] 제물이 신분 따라 작아진다
- [x] 피의 깊이가 신분 따라 알아진다
- [x] 제사장·회중 제물은 진 밖에서 태운다
- [x] 네 단락이 같은 후렴(사함)으로 닫힌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돌이킴.

미해결 질문

레위기 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궤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신분이 내려갈수록 제물이 작아지는가?

- 수송아지 → 숫염소 → 암염소·암양의 하강.
- 본문은 위계를 보이되 까닭을 비유. 목상으로 이월.

Q2. 왜 제사장과 온 회중이 같은 등급(수송아지·회막 안)인가?

- 한 사람의 직임과 온 무리가 같은 무게로 처리됨.
- 3절 "백성으로 죄가 있게 하면"의 연결은 보이나 본문은 설명하지 않음.

Q3. 피의 깊이(회막 안 ↔ 번제단 뿔)가 갈리는 기준은?

- 제사장·회중은 안, 족장·평민은 바깥마당.
- 경계가 무엇을 가르는지 본문은 비유. 보존.

Q4. 왜 어떤 제물은 "진 밖"에서 태우는가?

- 제사장·회중 제물만 진 밖 태움(12·21), 족장·평민은 언급 없음.
- 진 안과 밖의 경계 의미는 목상으로 이월(히 13장 교차만 표시).

Q5. "부지중에"(bishgagah)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이 장은 모르고 지은 죄만 다룸. 고의 죄는 등장하지 않음.
- 민 15:30-31(고의 죄)과의 경계는 다음 결로. 관찰은 조건 명시까지만.

Q6. 끝의 후렴 "사함을 받으리라"(nislach)는 무엇을 보장하는가?

- 네 단락 모두 같은 후렴으로 닫힘.
- '사함'의 내용·범위는 본문이 더 풀지 않음. 보존.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레위기 5장

LEV-005 · 오경 · 히브리어

감당 못할 형편에도 길이 좁혀진다. 양에서 새로, 새에서 고운 가루로 내려가는 사다리.

관찰된 사실

레위기 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 회막·제단. 전반부 배경은 회막 밖 '일상'(법정 증언·부정한 것 만짐·경솔한 맹세).
- 소품의 사다리: 양·염소 → 산비둘기·잡비둘기 두 마리(torim·bne yonah) → 고운 가루(solet) 예바 십분의 일(esron ephah).
- 후반 소품: 성물(qodashim), 값 정한 숫양(erkecha), 배상 "오분의 일".
- 근동 배상 제의·형편별 차등 제물이 배경과 형태가 겹침.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4장이 신분으로 나뉘었다면 5장은 상황·사례로 나뉜다.
- "감당 못하거든"의 형편 사다리가 마음에 남는다.
- 피 없는 고운 가루 속죄제가 의외의 결로 다가온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진술하지 아니하면 죄가 있으리니" — 구체적 사례 시작.
- 19절: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maal) — 속건제 마무리.
- 시작은 속죄제(chatat) 사례, 끝은 속건제(asham). 한 장이 두 제사로 갈려 닫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전반: 인물이 신분이 아니라 **상황**으로 — 증언 안 함(1)·부정한 것 만짐(2-3)·경솔한 맹세(4).
- 동작 추가: "자복하라"(hitvaddah, 5절) — 제물 전 입으로 고함.
- 형편 사다리: 양·염소 → 새 두 마리 → 고운 가루. "힘이 미치지 못하면"(yado masseget) 반복.
- 후반(14-19): 대상이 "여호와의 성물"(qodashim) 범과. 배상 "오분의 일" + 값 정한 숫양.
- 두 방향: 속죄제는 형편 따라 내려가고(아래로), 속건제는 배상이 더해짐(위로).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절): 세 사례 — 증언·부정·맹세
- 컷 2 (5-6절): 자복 + 양·염소 속죄제
- 컷 3 (7-10절): 형편 못 미치면 — 새 두 마리(속죄제+번제)
- 컷 4 (11-13절): 더 못 미치면 — 고운 가루(기름·유향 없이), 한 줌 사름
- 컷 5 (14-19절): 속건제 — 성물 범과, 배상 오분의 일 + 값 정한 숫양

- 컷 2:3:4 = 내려가는 사다리, 컷 5 = 결 전환.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chatat(חַטָּאת) — 속죄제/죄. asham(אָשָׁם) — 속건제/허물·배상. 70인역 πλημμέλεια.
- qol alah(קוֹל אֱלֹהִים) — 맹세시키는 소리('맹세·저주' 이중 어감).
- hitvaddah(הִתְוַדָּה) — 자복하다.
- yado masseget(יָדוּ מַסֵּגֶת) — 손에 미치지 못하면(형편 표현).
- torim(טוֹרִים) / bne yonah(בְּנֵי יוֹנָתָן) — 산비둘기 / 집비둘기 새끼.
- esron ephah(אֶסְרוֹן אֶפְחָה) — 에바 십분의 일(고운 가루 분량).
- maal(מַעַל) — 범과(성물 침해). erkecha(עֲרֵכָה) — 값 정함.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사례 열거(case enumeration) — 1-4절의 세 상황 표제.
- 하강 척도(descending scale) — 양·염소 → 새 → 가루의 형편 사다리.
- 전반(속죄제)과 후반(속건제)의 두 결 병치 — 내려감 ↔ 더함.
-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kipper/nislah) 후렴이 단계마다 다음.

6 의문·발견·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성물·재산 침해에 배상을 더해 갚는 관습이 근동 법전(에쉬눈나·함무라비)에 유사 조항으로 보고됨. 속건제 "오분의 일"과 형태가 겹친다.
- 가난한 자를 위한 형편별 대체 제물이 근동 제의 관습의 배경.
- 공적 맹세·증언의 효력과 침묵의 책임이 1절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레 5 ↔ 레 4장 (속죄제 — 신분별)
- 레 5 ↔ 레 6:1-7 (속건제 — 이웃 재산 침해·배상)
- 레 5 ↔ 레 7:1-7 (속건제 처리 규례)
- 레 5 ↔ 민 5:5-8 (배상과 오분의 일)
- 레 5 ↔ 레 12:8 (형편 다른 산비둘기 — 눅 2:24)
- 레 5 ↔ 마 5:23-24 (예물과 화해)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언기

회막 밖 일대에서 죄가 생긴다 — 증언을 침묵하거나, 모르고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경솔히 맹세하거나. 그 죄를 깨달은 사람은 먼저 입으로 자복하고, 양이나 염소를 속죄제로 가져온다. 형편이 못 미치면 새 두 마리 (하나는 속죄제, 하나는 번제)로, 그것도 못 미치면 고운 가루 한 줌 기름·유향 없이 가져와 한 줌만 태운다. 무대가 바뀌어, 여호와와 성물에 모르고 범과한 사람은 잘못된 것을 갚되 오분의 일을 더해 갚고, 제사장이 값을 매긴 흠 없는 숫양을 속건제로 드린다. 한쪽은 형편 따라 좁혀지고 다른 쪽은 배상이 더해지되, 끝은 모두 "사함을 받으리라".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감당 못해도 길은 좁혀진다"
- 초벌 부제: "형편 따른 사다리와 배상의 오분의 일 — 한 장 속 두 제사"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1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배상 제의 + 하강 척도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형편 사다리를 "은혜의 보편성" 교리로 풀지 않음 → 제물 하강의 배열만 기록.
- "자복"(hitvaddah)을 회개론으로 확장하지 않음 → 동작 등장과 위치만 표시.
- 속죄제·속건제의 신학적 구별을 단정하지 않음 → 두 결의 방향(내려감/더함)만 관찰.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레위기 5장은 한 장 안에서 형편 따라 내려가는 속죄제와 배상이 더해지는 속건제가 마주 보는 결이다.

한 문단: 4장이 신분으로 나뉘었다면 5장은 상황으로 나뉜다. 전반부는 증언·부정·맹세의 사례를 들고, 자복(hitvaddah) 뒤에 양·염소 → 새 두 마리 → 고운 가루로 내려가는 형편 사다리를 편다. 피 없는 곡식 한 줌도 속죄제로 받는다. 후반부(14절~)는 결이 바뀌어, 여호와와 성물에 모르고 범과한 경우 배상에 오분의 일을 더하고 값 정한 숫양을 속건제(asham)로 드린다. 한쪽은 아래로, 한쪽은 위로 — 그러나 끝은 같다, "사함을 받으리라".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희막·제단, 배경은 희막 밖 일상(증언·부정·맹세). 소품 사다리 — 양·염소 → 새 → 고운 가루. 후반 — 성물·값 정한 솟양.
2 첫 느낌·분위기	상황·사례로 나뉜다. "감당 못하거든"의 사다리. 피 없는 고운 가루 속죄제가 의외.
3 시작과 끝	시작 — 증언 사례(1). 끝 — 속건제 범과(19, maal). 한 장이 두 제사(chatat/asham)로 갈려 닫힘.
4 등장인물·사물·상황·사상	상황별 죄. 자복(hitvaddah) 동작 추가. 형편 사다리(아래로) ↔ 배상 오분의 일(위로).
5 장면 컷 분절	컷 1 사례(1-4). 컷 2 자복+양(5-6). 컷 3 새(7-10). 컷 4 가루(11-13). 컷 5 속건제(14-19).
6 의문·발견·정보	피 없는 곡식 속죄제. 소제와 달리 기름·유향 뺐. 정보 — 형편 표현 yado masseget, 값 정함 erkecha.
7 동영상	일상의 죄 → 자복 → 형편 따라 좁혀지는 제물 / 무대 전환 → 성물 범과 → 배상 더함. 끝은 같다 — "사함을 받으리라".
8 초벌 제목·부제	초벌 제목 — "감당 못해도 길은 좁혀진다". 부제 — "한 장 속 두 제사".
9 기도·내면 떠오름	좁혀지는 길과 더해지는 값음 곁을 걸으며 "한 줍밖에 못 드리는 손에도 열리는 길"에서 멈춘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걸

1. **결 1 — 내려가는 사다리:** 양·염소가 안 되면 새, 새가 안 되면 가루. 형편이 못 미쳐도 길이 끊기지 않고 좁혀진다.
2. **결 2 — 두 방향:** 속죄제는 형편 따라 작아지고(아래로), 속건제는 배상이 더해진다(위로). 한 장 안에서 방향이 마주 본다.
3. **결 3 — 피 없는 길:** 형편이 막히면 곡식 한 줍도 속죄제가 된다. 같은 가루라도 소제와 달리 기름·유향을 뺐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레 4장** (속죄제, 신분별 ↔ 5장 상황별). **레 6:1-7** (속건제, 이웃 재산 침해). **레 7:1-7** (속건제 처리).
- 다른 권 — **민 5:5-8** (배상 오분의 일). **레 12:8·눅 2:24** (형편 따른 산비둘기). **마 5:23-24** (예물과 화해).
- 정경 흐름 — 속죄제(4장)에 사례·형편·배상이 더해지며, 제사 체계가 '죄의 종류'와 '드리는 자의 형편'을 함께 품기 시작한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일상의 작은 죄들(증언·부정·맹세)이 호명되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멈춘다.
- **멈춤 1:** 형편이 못 미칠 때 길이 좁혀져 열리는 사다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잘못된 것에 오분의 일을 더해 갚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길이 내려가도 끊기지 않고, 값음이 더해져도 사함이 같다는 곁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좁혀지는 길 곁에 세운다. 가르침 없이 자리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죄가 신분이 아니라 상황으로 나뉜다
- [x] 자복(hitvaddah)이 제물 앞에 온다
- [x] 제물이 형편 따라 양→새→가루로 내려간다
- [x] 피 없는 곡식 한 줌도 속죄제가 된다
- [x] 속건제는 배상에 오분의 일을 더한다
- [x] 두 제사 모두 "사함을 받으리라"로 단한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형편.

미해결 질문

레위기 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궤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피 없는 고운 가루로도 속죄제가 되는 이유는?

- 11절, 형편이 못 미치면 곡식 한 줌도 속죄제로 받음.
- 앞 장들에서 피가 핵심이었으나 여기선 길이 곡식으로 열림. 목상으로 이월.

Q2. 같은 고운 가루인데 소제(2장)와 달리 기름·유향을 빼는 이유는?

- 11절 "기름을 두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지니 이는 속죄제임이니라".
- 재료가 같되 처리가 갈리는 까닭을 본문은 비유. 보존.

Q3. 속죄제(자복)와 속건제(배상)의 동작 차이는?

- 전반은 자복(hitvaddah, 5절), 후반은 배상 "오분의 일"(16절).
- 두 동작이 어떤 죄에 각각 붙는지 경계가 본문 안에서 더 풀리지 않음.

Q4. 왜 배상에 "오분의 일"을 더하는가?

- 잘못된 만큼만이 아니라 더 얹어서 값(16절).
- 그 비율의 까닭을 본문은 설명하지 않음. 보존.

Q5. 새 두 마리 중 하나는 번제로 드리는 이유는?

- 7-10절, 하나는 속죄제, 하나는 번제. 한 형편에 두 제사가 묶임.
- 두 제사를 함께 두는 까닭은 목상으로 이월.

Q6. 제사장이 값을 매긴다(erkecha)는 것은?

- 15절, 속건제 숫양에 세겔 값이 매겨짐.
- 제물에 가격이 정해지는 결이 앞 제사들과 다름. 본문은 절차만 명시. 보존.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레위기 6장

LEV-006 · 오경 · 히브리어

청중이 백성에서 제사장으로 바뀐다. "불은 꺼지지 않게" — 같은 제사를 뒤에서 다시 본다.

관찰된 사실

레위기 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제단 곁으로 당겨짐 — 번제단·그 불·재(deshen)·진 밖 정결한 곳. '드리는 자'에서 '제단 지키는 자'의 동선으로.
- 소품: 항상 피우는 불(esh tamid), 아침 나무, 세마포 속옷(michnesayim)·겉옷(bigdei vad), 재 그릇, 소제 번철, 토기/놋그릇.
- "규례"가 torah('~에 관한 지침'). 70인역 νόμος.
- 꺼지지 않는 성화·제사장 의복 구분·거룩 전염이 근동 제의 배경과 겹침.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청중 전환 — "누구든지"(백성)에서 "아론과 그 자손"(제사장)으로.
- "불을 끄지 말라"가 강하게 박힌다(두 번).
- 드림이 아니라 관리·유지(재 치우기·나무 더하기·옷 갈아입기)의 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7절: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maal)..." — 속건제(이웃 침해·배상)로 5장 결의 연장.
- 8절: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 제사장 규례 시작.
- 30절: 피를 성소에 가져간 속죄제는 먹지 말고 불사르라 — 속죄제 처리로 닫음.
- "~의 규례(torah)는 이러하니라" 표제: 번제(9)·소제(14)·속죄제(25). 1-5장 순서를 뒤에서 다시 짚음.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청중 전환: 백성(1-7) → 아론과 그 자손(8-30).
- 새 동작: 재 치우기, 불에 나무 더하기, 옷 갈아입기, 지성물 먹기 — 관리·유지.
- 먹는 자리: 소제·속죄제 고기는 "거룩한 곳에서" 먹음(16·26절).
- 예외: 제사장 위임 소제는 온전히 사르고 먹지 않음(23절).
- 거룩의 전염(27절): 고기에 닿는 것마다 거룩. 피 묻은 옷은 거룩한 곳에서 빨고(kibbus), 토기(klicheres)는 깨뜨리고 놋그릇(kli nechosheth)은 닦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7절): 속건제(이웃 침해·배상 오분의 일) — 청중 백성
- 컷 2 (8-13절): 번제의 규례 — 밤새 타는 불, 재 치우기, 옷 갈아입기, "불은 꺼지지 않게"

- 컷 3 (14-23절): 소제의 규례 + 제사장 위임 소제(온전히 사름)
- 컷 4 (24-30절): 속죄제의 규례 — 거룩한 곳에서 먹음, 거룩 전염, 그릇·옷 처리
- 컷 1(백성) ↔ 컷 2·3·4(제사장). 카메라 전환.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torah(25·14·9, תּוֹרָה) — 규례/지침. 70인역 νόμος.
- olah(אָלַח) — 번제. minchah(מִנְחָה) — 소제. chatat(חַטָּאת) — 속죄제.
- esh tamid(12-13, אֵשׁ תָּמִיד) — 항상 피우는 불. lo tikhbeh(לֹא תִכְבֵּה) — 꺼지지 않게.
- deshen(דֶּשֶׁן) — (기름 섞인) 재.
- bigdei vad(בִּגְדֵי בָד) / michnesayim(מִיְנֵסָיִם) — 세마포 겹옷 / 속옷.
- kibbus(어근 kabas, 27절) — 빨다. kli cheres / kli nechosheth — 토기 / 놋그릇.
- maal(6:2, מָאַל) — 범과/신실치 못함.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청중 전환(audience shift) — 백성용 규정(1-5장)을 제사장용 규례(torah)로 다시 제시.
- "~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표제 반복 — 번제·소제·속죄제(1-5장 순서 재배열).
- "불은 꺼지지 않게"(lo tikhbeh)의 이중 반복(12·13).
- 먹는 자/안 먹는 자, 토기/놋그릇의 대구.

6 의문·발견·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꺼뜨리지 않는 성화를 유지하는 신전 제의가 근동 문헌에 보고됨. esh tamid와 형태가 겹친다.
- 거룩 구역과 일상 구역의 의복 구분(세마포 갈아입기)이 제의 정결 관습의 배경.
- 거룩의 접촉 전염·토기 흡수 관념이 정결 처리 규정의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레 6 ↔ 레 1-5장 (같은 제사를 제사장 시각에서 다시)
- 레 6 ↔ 출 27:20-21 (등불을 끄이지 않게)
- 레 6 ↔ 출 29장 (제사장 위임식)
- 레 6 ↔ 레 9-10장 (위임 후 첫 제사·"다른 불")
- 레 6 ↔ 민 28:3-6 (상번제) / 히 7:27 (단번의 제사)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처음엔 아직 백성 쪽이다. 이웃의 말긴 것을 속이거나 강탈한 자가 깨닫고 오분의 일을 더해 갚고 속건제를 드린다. 그리고 카메라가 돌아간다. 이제 제사장이다. 아침, 세마포 옷을 입은 제사장이 밤새 탄 번제의 재를 거두어 제단 곁에 두고, 옷을 갈아입고 진 밖 정결한 곳으로 가져간 뒤, 다시 와 불에 나무를 얹는다. 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다. 소제는 한 줌을 태우고 남은 것을 거룩한 곳에서 누룩 없이 먹되, 제사장 자신의 위임 소제는 온전히 태운다. 속죄제 고기는 거룩한 곳에서 먹고, 그 고기가 닿은 것은 거룩해지며, 피 묻은 옷은 거룩한 곳에서 빨고 토기는 깨뜨린다. 다만 피를 성소에 가져간 속죄제는 먹지 않고 불사른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같은 제사를 뒤에서 다시"
- 초벌 부제: "재 치우기·옷 갈아입기·지성물 먹기 — 제단을 지키는 자의 하루"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2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성화·의복 구분 + 청중 전환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불을 끄지 말라"를 신앙·열정 교훈으로 풀지 않음 → esh tamid·반복 횟수까지만 기록.
- "거룩의 전염"(27절)을 거룩·죄 신학으로 단정하지 않음 → 접촉·그릇 처리의 어휘만 표시.
- 제사장 위임 소제의 온전한 사름을 직임론으로 확장하지 않음 → 먹는 자/안 먹는 자 대구만 관찰.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레위기 6장은 청중이 백성에서 제사장으로 옮겨가며, 같은 제사를 뒤에서 다시 보는 결이다.

한 문단: 앞부분(1-7절)은 5장 결의 속건제(이웃 침해·배상)로 마무리되고, 8절부터 청중이 "아론과 그 자손"으로 바뀐다. 1-5장이 '어떻게 드리는가'였다면, 6장은 '드린 뒤 불을 어떻게 지키고 누가 무엇을 먹는 가'다. 재 치우기·나무 더하기·옷 갈아입기·지성물 먹기 같은 관리·유지의 동작이 들어오고, 그 한가운데 "불은 꺼지지 않게"(lo tikhbeh)가 두 번 박힌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제단 곁으로 당겨진 무대. 소품 — 항상 피우는 불·재·세마포 옷·번철·토기/놋그릇. "규례"는 torah(지침).
2 첫 느낌·분위기	청중 전환(백성→제사장). "불을 끄지 말라"의 강조. 드림이 아닌 관리·유지의 결.
3 시작과 끝	시작 — 속건제(1-7, 5장 연장). 8절부터 제사장 규례. 끝 — 피를 성소에 가져간 속죄제 사름(30). 제사별 torah 표제.
4 등장인물·사물·상황·사상	아론과 그 자손이 명령 대상. 거룩한 곳에서 먹음. 제사장 위임 소제는 온전히 사름(23). 거룩의 전염(27).
5 장면 컷 분절	컷 1 속건제(1-7, 백성). 컷 2 번제 규례(8-13). 컷 3 소제 규례(14-23). 컷 4 속죄제 규례(24-30). 카메라 전환.
6 의문·발견·정보	같은 번제의 앞뒤 시선. "불 끄지 말라" 이중 강조. 정보 — 제사장 소제는 다 태움, 거룩이 옳음.
7 동영상	백성 속건제 → 카메라 전환 → 제사장의 아침(재·불·옷) → 소제·속죄제 처리. 한가운데 "불은 꺼지지 않게".
8 초벌 제목·부제	초벌 제목 — "같은 제사를 뒤에서 다시". 부제 — "제단을 지키는 자의 하루".
9 기도·내면 떠오름	밤새 타는 불 곁, 재를 거두는 손길 곁을 걸으며 "꺼지지 않게 지키는 일"에서 멈춘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카메라가 돌아간다:** 같은 제사를 백성 시각(1-5장)과 제사장 시각(6장)으로 두 번 본다. 8절에서 청중이 바뀐다.
- 결 2 — 꺼지지 않는 불:** "불은 꺼지지 않게"가 두 번 박힌다. 드림이 아니라 지킴의 결이 새로 들어온다.
- 결 3 — 먹는 자와 안 먹는 자:** 백성 소제는 제사장이 먹고, 제사장 자신의 소제는 다 태운다. 같은 제물이 누가 드리느냐로 갈린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레 1-5장** (같은 제사의 백성 시각). **레 9-10장** (위임 후 첫 제사 "다른 불").
- 다른 권 — **출 27:20-21** (등불을 끊이지 않게). **출 29장** (제사장 위임식). **민 28:3-6** (상번제). **히 7:27** (단번의 제사).
- 정경 흐름 — 제사 규정이 '드리는 백성'에서 '지키는 제사장'으로 시점을 넓히며, 곧 이어질 위임식(8-10장)의 발판을 놓는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8절에서 청중이 제사장으로 바뀌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멈춘다.
- **멈춤 1:** 밤새 꺼지지 않는 불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제사장이 자기 소제를 다 태우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같은 제사가 시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꺼지지 않는 불 곁에 세운다. 가르침 없이 자리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걸:

- [x] 8절에서 청증이 백성에서 제사장으로 바뀐다
- [x] 같은 제사를 두 번째로 다룬다(번제·소제·속죄제 torah)
- [x] "불은 꺼지지 않게"가 두 번 박힌다
- [x] 관리·유지의 동작(재·나무·옷)이 들어온다
- [x] 제사장 위임 소제는 온전히 태운다
- [x] 거룩이 접촉으로 옮고, 그릇이 재질 따라 처리된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지킴.

미해결 질문

레위기 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같은 제사를 백성용·제사장용으로 두 번 적는가?

- 1-5장(백성)과 6장 이후(제사장)가 같은 제사를 다른 시각에서 다룸.
- 두 번 적는 까닭을 본문은 비움. 묵상으로 이월.

Q2. "불은 꺼지지 않게"가 두 번 강조된 이유는?

- 12·13절, lo tikhbeh가 거듭됨.
- 출 27:20-21·레 9-10장의 흐름과 연결되나, 6장 자체는 강조의 까닭을 비움.

Q3. 제사장의 위임 소제는 왜 먹지 않고 온전히 태우는가?

- 백성 소제는 제사장이 먹는데(2장), 제사장 자신의 것은 전부 사름(23절).
- 먹는 자와 드리는 자가 같을 때의 처리 차이를 본문은 설명하지 않음. 보존.

Q4. "거룩이 옮는다"(27절)는 것은 무엇인가?

- 고기에 닿는 것마다 거룩해짐. 거룩의 접촉 전염.
- 거룩과 죄의 전염 방향 차이는 묵상으로 이월. 관찰은 접촉 규정까지만.

Q5. 토기는 깨뜨리고 놋그릇은 닦는 차이는?

- 28절, 그릇 재질에 따라 처리가 갈림.
- 흡수/비흡수의 물질 배경 관찰은 했으나 본문은 '왜'를 비움. 보존.

Q6. 피를 성소에 가져간 속죄제는 왜 먹지 못하는가?

- 30절,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간 속죄제는 먹지 않고 불사름.
- 먹는 속죄제와 사르는 속죄제의 경계(레 4장 신분과 연결)는 다음 절로.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레위기 7장

LEV-007 · 오경 · 히브리어

규례가 규례 위에 쌓인다. 먹는 자와 먹지 못할 것이 한 본문에서 갈린다.

관찰된 사실

레위기 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회막 뜰과 제단. 사람보다 절차가 도는 무대로, 제사장이 제물을 다룬다.
- 소품으로 제물의 부위가 호명된다 — 기름(chelev), 콩팥, 간 꺼풀, 가슴(chazeh), 우편 뒷다리(shoq).
- 감사제 쪽에 빵이 소재로 등장 — 무교병, 기름 섞은 과자, 유교병(7:12-13).
- 표제어 torah(이것은 ~의 규례)가 항목마다 붙는다 (속건제·화목제·감사제).
- 화목제가 셋으로 갈림 — 감사(todah)·서원(neder)·자원(nedavah), 먹는 기한이 다름.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규정집의 차분함 위로, "끊어지리라"(karet) 경고에서 공기가 서늘해진다.
- "기름은 먹지 말라 / 피는 먹지 말라"의 반복이 청각적 인상을 남김.
- 앞은 규례, 뒤는 분배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흐름.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 개별 표제로 시작.
- 37-38절: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시내 광야에서" — 여섯 제사를 한 줄에 모으는 총괄로 종결.
- 개별 torah 표제 → 전체 목록 총괄의 구조. 6~7장 전체를 닫는 단락.
- 38절의 "시내 산 / 시내 광야" 장소 표지로 단락이 봉인됨.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말하는 이: 여호와 / 듣는 이: 모세 / 규례 안의 행위자: 제사장,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
- 제사장 직무에 따른 몫 분화 — 속죄제 드린 제사장이 먹음(7:7), 피 뿌린 제사장이 번제 가축을 가짐(7:8).
- "karet(끊어지리라)"가 두 번 — 부정 중 화목제 먹는 자(7:20-21), 기름·피 먹는 자(7:25,27).
- piggul(가증한 것, 7:18) — 기한 넘겨 셋째 날까지 남긴 고기.
- 화법은 사례별 조건문("만일 ~하면 ~하리라")의 결.
- 요제(tenufah, 가슴)·거제(terumah, 우편 뒷다리)가 제사장 몫으로 지정됨(7:30-34).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0절): 속건제 규례 + 제사장 몫(번제 가축·소제 분깃) — 묶음 "규례"
- 컷 2 (11-21절): 화목제 규례 — 감사·서원·자원, 빵, 먹는 기한 — 묶음 "규례"

- 컷 3 (22-27절): 기름·피 금지, "끓어지리라" — 묶음 "금지"
- 컷 4 (28-36절): 요제(가슴)·거제(뒷다리)로 정해지는 제사장 몫 — 묶음 "분배"
- 컷 5 (37-38절): 여섯 제사 총괄·시내 광야 표지 — 묶음 "봉인"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 torah(תּוֹרָה) — 여기서 '~에 관한 규례·지침'. 7장에 항목 표제로 반복.
- asham(אָשָׁם) — 속건제. 70인역은 '잘못/과실'(πλημμελεια) 계열로 옮김.
- shelamim(שְׁלָמִים) — 화목제. 어근에 '평안·온전'(shalom)이 들어 있음. 우가릿 šlmm과 어근 비교.
- todah(תּוֹדָה) / neder(נֶדֶר) / nedavah(נְדָבָה) — 감사 / 서원 / 자원 제물. 먹는 기한 차이.
- chelev(חֵלֶב) — 기름(굳기름). "여호와와의 것"으로 금지(7:23-25).
- dam(דָּם) — 피. 먹지 말라(7:26-27), 17장에서 재진술.
- karet(כָּרַת) — '잘라내다'. "그 백성 중에서 끓어지리라" 정형구. 내용은 본문이 풀지 않음.
- piggul(פִּיגּוּל) — 못 쓰게 된·역겨운 것(7:18).
- tenufah(תְּנוּפָה) — 요제, '흔드는' 동작. terumah(תְּרוּמָה) — 거제, '들어 올리는' 동작.
- chazeh(חָזַח) — 가슴. shoq(שׁוֹק) — 우편 뒷다리(넓적다리).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 각 제사 항목이 "이것은 ~의 규례니라(torah) → 처리 절차 → 먹는 자·기한 → 금지·경고"의 결로 진행.
- 표제 반복(torah)이 단락을 항목으로 끊어 나가는 형식 장치.
- 금지절(7:22-27)이 규례(앞)와 분배(뒤) 사이를 가로지르는 삽입 구조.
- 37-38절 총괄 목록이 6~7장 전체의 inclusio 후반부.
- 반복 어휘: torah, chelev, dam, karet(2회), qodesh(거룩).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제도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우가릿 제사 문헌의 šlmm(슬라뎀)과 히브리어 shelamim의 어근 공유 — 친교·평안 제물 계열의 비교 배경.
- 고대 근동 신전에서 봉헌물 일부를 사제 분깃으로 배분하던 관행 — 7:28-36 제사장 몫 규정의 제도적 배경(해석 아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트

- 레 7 ↔ 출 29:27-28 (요제·거제로 제사장 몫)
- 레 7 ↔ 레 3장 (화목제 본 규례)
- 레 7 ↔ 레 5:14-6:7 (속건제 본 규례)
- 레 7 ↔ 레 17:10-14 (피 먹지 말라 재진술, "피는 생명")
- 레 7 ↔ 레 22:29-30 (감사제 당일 먹기)
- 레 7 ↔ 신 12:23 (피는 생명)
- 레 7 ↔ 고전 10:18 (제단에 참여하는 자)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속건제 규례가 먼저 선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정한 곳에서 잡고 기름과 부위를 태우며,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고 번제 가죽·구운 소제를 뒤편으로 가진다. 이어 화목제가 셋으로 갈린다 — 감사면 그 날 안에, 서원·자원이면 이튿날까지, 셋째 날 남은 것은 못 쓰게 된다. 규례 사이로 금지가 한 번 가로지른다 — 기름도 피도 먹지 말라, 어기면 끊어진다. 다시 분배로 내려와, 혼든 가슴과 들어 올린 우편 뒷다리가 제사장의 뒤편으로 정해진다. 마지막에 번제·소제·속죄제·속건제·위임식·화목제가 한 줄에 모이고, 시내 광야의 명령으로 봉인된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규례·금지·분배 — 세 단의 결"
- 초벌 부제: "속건·화목의 규례 — 먹음과 금지, 뒤편의 나눔"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5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우가릿 šlmm 비교 + 사제 분깃 제도 + 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참가자에서 튀면 "다음 결로"로 접음.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기름·피 금지"가 제의적·도덕적 해석으로 변질 위험 → open_questions에 보존, 묵상으로 이월.
- karet(끓어짐)의 의미를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 본장에선 "정형구로 두 번 쓰임"까지만 기록.
- 요제·거제의 손동작을 추정하지 않도록 주의 → 미해결 질문으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레위기 7장은 한 제사의 설명이 아니라 규례·금지·분배가 세 단으로 쌓이는 형식이다.

한 문단: 본문은 항목마다 "이것은 ~의 규례니라"(torah)라는 표제를 달아 속건제와 화목제를 차례로 세운다. 규례가 두 단 쌓인 뒤 금지가 한 번 가로지르고(기름·피), 다시 분배로 내려와 가슴과 뒷다리가 제사장 뿔으로 정해진다. 마지막엔 여섯 제사가 한 줄에 모여 시내 광야의 명령으로 닫힌다. 시작은 표제, 끝은 목록이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 회막 뜰·제단. 소품 — 기름·콩팥·간 꺼풀·가슴·우편 뒷다리, 그리고 무교병·유교병. 표제어 torah가 항목마다 붙는다. |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규정집의 차분함. "끊어지리라"에서 한 번 서늘해진다. "기름·피 먹지 말라"의 반복이 귀에 남는다. |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시작 —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1절). 끝 — 여섯 제사 총괄 + "시내 광야에서"(37-38절). 개별 표제 → 전체 목록. |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여호와(말함)·모세(들음)·제사장·드리는 자. 직무에 따라 뿔이 갈리고(7:7-8), karet가 두 번 걸린다. |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1 속건제(1~10). 컷2 화목제(11~21). 컷3 기름·피 금지(22~27). 컷4 요제·거제 뿔(28~36). 컷5 총괄(37~38). |

|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감사제만 당일, 서원·자원은 이튿날. karet의 뜻. 기름 금지의 범위. 정보 — 요제·거제 뿔은 출 29:27-28의 재명문화. |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 규례→규례→금지→분배→봉인. 두 단의 규례 사이를 금지가 가로지르고, 분배가 받친다. |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 "규례·금지·분배 — 세 단의 결". 초벌 부제 — "먹음과 금지, 뿔의 나뉘". |

|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 제단 곁을 걸으며 "무엇이 주의 것이고 무엇이 제 뿔인지" 앞에 잠시 멈춘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표제 torah의 반복:** 항목마다 같은 표제가 붙어 규례를 끊어 세운다. 형식이 내용을 정렬한다.
2. **결 2 — 가로지르는 금지:** 규례와 분배 사이에 "기름·피 먹지 말라"가 삽입되어 흐름을 한 번 끊는다. 가장 무거운 경고(karet)가 여기 실린다.
3. **결 3 — 뿔의 나뉘:**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가 제사장에게 돌아간다. "여호와와 의 것"과 "제사장의 뿔"이 한 본문에서 갈린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레 3장 (화목제 본 규례). 레 5:14~6:7 (속건제 본 규례). 레 17:10~14 (피 금지 재진술).
- 다른 권 — 출 29:27~28 (요제·거제 뿔의 앞선 약속). 신 12:23 ("피는 생명").
- 정경 흐름 — 고전 10:18 ("제단에 참여하는 자")이 제물을 먹는 자의 곁을 다시 비춘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표제 "~의 규례니라" 앞에서 한 사람이 항목을 따라간다.
- 멈춤 1: 감사제가 당일에만 허락되는 짧은 기한에서 멈춘다.
- 멈춤 2: "끊어지리라"가 두 번 걸리는 금지절에서 멈춘다.
- 멈춤 3: 혼든 가슴이 제사장 뒹으로 돌아가는 분배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무엇이 주의 것인가*라는 걸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주의 것과 내 뒹을 가르는 자리* 앞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걸:

- [x] 항목마다 표제(torah)가 붙는다
- [x] 화목제가 감사·서원·자원 셋으로 갈린다
- [x] 먹는 기한이 종류에 따라 다르다
- [x] 기름과 피가 금지된다
- [x] "끊어지리라"가 두 번 걸린다
- [x] 가슴과 뒷다리가 제사장 뒹이다
- [x] 37~38절이 여섯 제사를 한 줄에 모은다
- [x] 시내 광야 표지로 단락이 닫힌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뒹.

미해결 질문

레위기 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걸.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감사제만 당일, 서원·자원제는 이튿날까지인 이유는?

- 관찰 사실: todah(감사)는 당일(7:15), neder·nedavah는 이튿날까지(7:16-17).
- 본문은 기한 차이의 까닭을 말하지 않음. 묵상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끊어지리라"(karet)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 부정 중 화목제 먹는 자(7:20-21), 기름·피 먹는 자(7:25,27)에게 두 번.
- 본문은 끊어짐이 죽음·추방·후손 단절 중 무엇인지 풀지 않음. 해석은 묵상으로 이월.

Q3. "기름은 여호와와 의 것"이라는 선언의 범위는?

- 먹지 말라는 기름(chelev)이 어떤 부위까지인지는 3장 규정과 겹쳐 봐야 함.
- 본장은 금지와 귀속만 진술. 어휘 분포만 기록.

Q4. 요제(tenufah)·거제(terumah)의 실제 동작은?

- '흔들다'·'들어 올리다'의 어근은 관찰되나, 정확한 손동작은 본문이 묘사하지 않음.
- 제의 동작의 재구성은 추정 영역이므로 미해결로 보존.

Q5. 왜 속건제·속죄제는 "지극히 거룩"하고 화목제는 그렇지 않은가?

- 속건제는 "지극히 거룩한 것"(7:1,6), 화목제는 가져온 자도 먹는 걸.
- 거룩 등급의 차이가 본문에 전제되나, 그 기준은 설명되지 않음. 보존.

Q6. 같은 화목제인데 빵에 유교병이 허용되는 곳은 어디인가?

- 감사제에 무교병과 함께 유교병(7:13)이 등장 — 다른 제사의 무교 원칙과 대비.
- 유교병이 허용·금지되는 경계는 본문이 한 곳에서 설명하지 않음. 답 없이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레위기 8장

LEV-008 · 오경 · 히브리어

명령이 그대로 실행된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가 무대 위에서 반복된다.

관찰된 사실

레위기 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회막 문 앞. 처음으로 "온 회중"이 구경하는 무리로 무대에 깔린다(8:3-4).
- 소품 — 관유, 속죄제 수송아지, 숫양 둘, 무교병 한 광주리, 예복(속옷·띠·겔옷·에봇·흉패).
- 흉패에 우림과 둠뫼(urim ve-tummim)를 넣음(8:8) — 정체·용법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 장 전체의 이름은 milluim(위임/채움), "손을 채우다" 관용구와 연결.
- 출 28(예복)·29(위임 명령)이 배경으로 깔림 — 본장은 그 실행.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규례에서 사건으로 전환. 동작(씻김·착복·기름·피)이 살아나는 인상.
-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가 절차마다 도장처럼 반복됨.
- 관유의 감각, 그리고 "이레 동안"이라는 시간 표지가 귀에 남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으라" — 명령으로 시작.
- 36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 준행으로 종결.
- 시작(명령)과 끝(준행)이 짝을 이루고, 그 사이에 "명하신 대로"가 메아리칩.
- 명령-실행의 완결된 한 단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집행자: 모세 / 임직받는 자: 아론과 아들들 / 지켜보는 자: 온 회중 / 명하는 분: 여호와.
- 모세가 능동(씻기고·입히고·붓고·바르고), 아론은 거의 침묵하며 받는 자.
- 피를 오른쪽 귓부리·엄지손가락(bohen)·엄지발가락 세 곳에 바름(8:23-24).
- 관유가 성막·기물·아론에게 동일하게 쓰여 거룩하게 함(qadash).
- 화법은 "모세가 ~하니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의 반복 — 행위자 내면은 드러나지 않음.
- 위임식 숫양의 가슴을 모세가 요제로 흔들고 "모세의 뫼"이 됨(8:29).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절): 회중 소집·준비물 제시 — 묶음 "소집"
- 컷 2 (6-9절): 씻김 + 아론 예복 착복 — 묶음 "입히기"

- 컷 3 (10-13절): 관유 기름 부음(성막·아론·아들들) — 묶음 "붓기"
- 컷 4 (14-21절): 속죄제 수송아지 + 번제 숫양 — 묶음 "세 제사"
- 컷 5 (22-30절): 위임식 숫양 — 귓부리·엄지에 피, 요제, 옷에 기름·피 — 묶음 "세 제사"
- 컷 6 (31-36절): 위임식 음식, 칠 일 머뭇, "준행하니라" — 묶음 "칠 일·마무리"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 milluim(מִלּוּיִם) — 위임/채움. "손을 채우다" 관용구. 70인역 τελείωσις(완성·온전케 함).
- mashach(מָשַׁח) — 기름을 바르다/붓다. '메시아'(기름부음 받은 자)의 어근.
- shemen ha-mishchah(שֶׁמֶן הַמִּשְׁחָה) — 관유(거룩한 기름).
- qadash(קָדַשׁ) — 거룩하게 하다·구별하다.
- ephod(אֶפֶד) / choshen(חֹשֶׁן) — 에봇 / 흉패.
- urim ve-tummim(אֲבִנֵי חַיִּים) — 우림과 둠뭇. 70인역 '드러냄과 진리'. 용법은 본문 미설명.
- dam(דָּם) — 피. 귓부리·엄지에 바름.
- bohen(בֹּהֵן) — 엄지(손·발).
- tenufah(תְּנוּפָה) — 요제(흔드는 동작).
- shivah yamim(שִׁבְעַת יָמִים) — 이레(칠 일).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 골격은 **실행 정형구**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kaasher tsivvah YHWH)"의 반복(약 7회).
- 출 29장(명령)과 레 8장(실행)이 거의 일대일로 대응되는 명령-실행 구조.
- 시작(명령, 1-3절)과 끝(준행, 36절)이 inclusio를 이룸.
- 제단에 관유를 "일곱 번" 뿌림(8:11) — 7의 구조.
- 반복 어휘: mashach, dam, qadash, "명하신 대로", shivah(일곱).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제도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 사제 임직 의례에서 기름 부음·예복 착복이 신분 구별의 표지로 쓰인 관행 — 비교 배경.
- 메소포타미아 신전 봉헌 의식의 7일 주기 — 칠 일 머뭇(8:33)의 제도적 배경(해석 아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트

- 레 8 ↔ 출 28장 (제사장 예복 규정)
- 레 8 ↔ 출 29장 (위임식 명령 — 실행 대본)
- 레 8 ↔ 출 40:12-15 (위임 명령 요약)
- 레 8 ↔ 레 9장 (여덟째 날 첫 제사)
- 레 8 ↔ 레 10:7 (회막 문 떠나지 말라 연결)
- 레 8 ↔ 시 133편 (수염에 흐르는 관유)
- 레 8 ↔ 히 7:26-28 (제사장직)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회막 문 앞에 온 회중이 모이고, 모세가 준비물을 펼친다.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예복을 차례로 입히며 흉패에 우림과 둠뭉을 넣는다. 관유를 들어 성막과 기물에 뿌리고 제단에 일곱 번 뿌린 뒤 아론의 머리에 붓는다. 속죄제 수송아지, 번제 숫양, 위임식 숫양이 차례로 드려지고, 숫양의 피를 아론과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엄지손가락·엄지발가락에 바른다. 가슴을 흔들어 요제로 드리고, 옷에 관유와 피를 함께 뿌린다. 위임식 음식을 회막 문에서 먹고, 칠 일 동안 그 문을 떠나지 말라는 명을 받는다.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된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명령과 준행 사이의 일곱 번"
- 초벌 부제: "위임식 — 명령이 실행이 되는 이레"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3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사제 임직 의례 + 7일 주기 + 출 29장 대응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참가자에서 튀면 "다음 결로"로 접음.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기름 부음(mashach)"이 메시아·성령 도유 신학으로 변질 위험 → open_questions에 보존, 묵상으로 이월.
- 귓부리·엄지에 피 바름의 의미를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 본장에선 "세 지점에 바름"까지만 기록.
- 모세의 제사 집행 위치를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 → 미해결 질문으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레위기 8장은 한 의식의 묘사가 아니라 명령이 그대로 실행으로 옮겨지는 이레의 형식이다.

한 문단: 본문은 출애굽기 29장의 위임 명령을 거의 일대일로 받아 실행한다. 모세가 씻기고, 입히고, 붓고, 바른다. 절차가 끝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가 도장처럼 찍힌다. 세 제사가 이어지고, 피가 귓부리와 엄지에 발리며, 옷에 기름과 피가 함께 뿌려진다. 칠 일 동안 회막 문을 떠나지 말라는 명으로 닫히고, "준행하니라"가 마지막에 놓인다. 시작은 명령, 끝은 준행이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 회막 문 앞, 온 회중이 지켜봄. 소품 — 관유·제물·무교병·예복·우림과 둠뭉. 장 이름 milluim(채움). |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규례에서 사건으로. 동작이 살아나고, "명하신 대로"가 절차마다 반복. "이레"의 시간 표지. |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시작 — "회막 문에 모으라"(1-3절, 명령). 끝 — "준행하니라"(36절). 명령-준행의 inclusio. |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모세(집행)·아론과 아들들(받음)·온 회중(지켜봄)·여호와(명함). 모세가 능동, 아론은 침묵. |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1 소집(1~5). 컷2 착복(6~9). 컷3 기름 부음(10~13). 컷4 두 제사(14~21). 컷5 위임식 숫양(22~30). 컷6 칠 일·마무리(31~36). |

|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칠 일 머뭇의 까닭. milluim이 채우는 것. 붓기와 뿌리기의 구별. 정보 — 출 29장 명령과 일대일 대응. |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 소집→착복→기름→제사→피·요제→칠 일·준행. 명령 하나가 실행으로 이어진다. |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 "명령과 준행 사이의 일곱 번". 초벌 부제 — "명령이 실행이 되는 이레". |

|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 회막 문 곁을 걸으며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해진 이레" 앞에 멈춘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걸

1. **결 1 — "명하신 대로"의 반복:** 절차마다 같은 정형구가 찍혀, 명령과 실행이 어긋나지 않음을 형식으로 보여준다.
2. **결 2 — 한 기름이 적시는 범위:** 성막·기물·제단·아론이 같은 관유로 구별된다. 사물과 사람이 한 걸에 들어간다.
3. **결 3 — 칠 일의 머뭇:** 의식이 하루로 끝나지 않고 이레로 묶인다. 시간이 본문의 골격이 된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레 9장 (여덟째 날, 이레 다음의 첫 제사). 레 10:7 (회막 문 떠나지 말라의 연결).
- 다른 권 — 출 29장 (본장의 실행 대본인 명령). 출 40:12~15 (위임 명령 요약).
- 정경 흐름 — 시 133편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관유), 히 7:26~28 (제사장직)이 이 장의 기름·임직을 다시 비춘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회막 문 앞 회중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의식을 지켜본다.
- 멈춤 1: "명하신 대로"가 절차마다 찍히는 반복에서 멈춘다.
- 멈춤 2: 피가 귓부리와 엄지에 발리는 구체적 동작에서 멈춘다.
- 멈춤 3: 칠 일 동안 문을 떠나지 말라는 명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명령과 준행 사이의 이레*라는 걸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명하신 대로 머무는 자리* 앞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걸:

- [x] 시작이 명령, 끝이 준행이다
- [x] "명하신 대로"가 절차마다 반복된다
- [x] 모세가 능동, 아론은 받는 자다
- [x] 한 관유가 사물과 사람을 구별한다
- [x] 세 제사가 차례로 드러진다
- [x] 피가 귓부리·엄지 세 곳에 발린다
- [x] 칠 일 동안 회막 문에 머문다
- [x] 명령-실행의 완결된 한 단위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이레.

미해결 질문

레위기 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걸.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궤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칠 일 동안 회막 문을 떠나지 말라는 까닭은?

- 관찰 사실: "위임식이 칠 일까지 이를 것임이라"(8:33)만 진술됨.
- 본문은 이레의 까닭을 풀지 않음. 목상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milluim("손을 채우다")이 채우는 것은 무엇인가?

- '채움'의 어근은 관찰되나, 무엇을 채우는지 본문이 직접 말하지 않음.
- 관용구의 기원 추정은 보류. 어휘만 기록.

Q3. 귓부리·엄지손가락·엄지발가락 세 곳에 피를 바르는 의미는?

- 같은 세 지점이 14장 나병 정결에서도 반복됨(관찰 사실).
- 본장은 동작만 기록.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4. "붓기"(아론 머리)와 "뿌리기"(옷)의 동작 구별은 왜인가?

- 12절은 부어(wayyitsoq), 30절은 뿌렸다(wayyaz) — 동작이 같림.
- 구별의 이유를 본문이 말하지 않음. 보존.

Q5. 제사장이 아닌 모세가 제사를 집행하는 위치는?

- 모세가 씻기고·붓고·드리며 가슴을 자기 뒤통으로 받음(8:29).
- 이 장에서 모세의 역할(증보자·집행자)을 본문이 규정하지 않음. 미해결로 보존.

Q6. 관유가 사물(성막·기물)과 사람에게 같이 쓰이는 이유는?

- 성막·제단·아론이 같은 기름으로 거룩하게 됨(qadash).
- 사물과 사람의 동일한 구별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답 없이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레위기 9장

LEV-009 · 오경 · 히브리어

이레의 머뭇이 끝나고, 여덟째 날 불이 내려와 제물을 사른다. 백성이 엎드린다.

관찰된 사실

레위기 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회막 앞 제단. 이번엔 아론이 처음으로 집행자로 단에 오른다(8장은 모세였음).
- 소품 — 제물 두 묶음. 아론용(송아지·숫양), 백성용(염소·송아지·어린 양·소·숫양·소제).
- "여덟째 날"(yom hashemini)이 8장의 이레(shivah yamim) 바로 다음 — 7+1 구조.
- 끝에 "불"(esh)이 큰 소품으로 등장, "여호와 앞에서" 나옴(9:24).
- 출 40:34-35(성막에 임한 영광)이 배경으로 깔림.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차분한 제사 진행 → 마지막 한 절(24절)에서 공기가 터지는 클라이맥스 구조.
- "오늘 나타나시리라"(4,6절)가 기다림·긴장을 만듦.
- "영광"이 한가운데(6절)와 끝(23절)에 두 번 걸쳐 무게를 잡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과 장로들을 불렀다" — 부름으로 시작.
- 6절: "여호와와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 예고.
- 23-24절: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불이 나와 제물을 사르며, 백성이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 성취·엎드림으로 종결.
- 예고(6절)와 성취(23절)가 inclusio. 시작은 부름, 끝은 엎드림.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지시자: 모세 / 집행자: 아론 / 보조: 아론의 아들들(피를 받쳐 줌) / 지켜보는 자: 온 백성·장로.
- 아론이 두 번 단에 오름 — 자신을 위해 먼저(8-14절), 백성을 위해 나중(15-21절).
- 아론이 손을 들어 백성을 축복(barak, 22절). 축복의 말은 본문에 기록되지 않음.
- 모세·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 다시 축복(23절) — 안에서의 일은 미기록.
- 백성의 반응은 사상이 아닌 몸의 반응 — "소리 지르며 엎드림"(24절).
- 화법은 "아론이 ~드리고 → 축복 → 영광 → 불 → 엎드림"의 사건 차례.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7절): 여덟째 날 소집·제물 지시·"오늘 나타나시리라" — 묶음 "예고"
- 컷 2 (8-14절): 아론 자신을 위한 속죄제·번제 — 묶음 "두 번의 드림"

- 컷 3 (15-21절): 백성을 위한 속죄제·번제·소제·화목제 — 묶음 "두 번의 드림"
- 컷 4 (22-23a절): 아론의 축복, 회막 출입과 재축복 — 묶음 "축복"
- 컷 5 (23b-24절): 영광 나타남·불이 제물 사름·백성 앞드림 — 묶음 "나타남"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 yom hashemini(יְיוֹם הַשְּׁמִינִי) — 여덟째 날. 이레 다음, 7+1 표지.
- kavod YHWH(כְּבוֹד יְהוָה) — 여호와와 영광. 6절·23절 두 번.
- nireh(נִרְאָה) / yera'eh — 나타나다(예고)·나타났다(성취).
- esh(אֵשׁ) — 불. "여호와 앞에서 나옴"(9:24). 70인역 '여호와로부터'.
- qarav(קָרַב) — 가까이 가져오다·드리다. 제사 행위의 핵심 동사.
- chattat(חַטָּאת) / olah(עֹלָה) — 속죄제 / 번제.
- shelamim(שְׁלָמִים) — 화목제.
- barak(בָּרַךְ) — 축복하다(9:22-23). 축복의 말은 미기록.
- tenufah(תְּנוּפָה) — 요제(흔드는 동작, 9:21).
- eglah(עֵגְלָה/עֵגֶל) — 송아지(아론의 속죄제물, 9:2,8).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 클라이맥스 구조 — 앞 23절이 준비, 마지막 절(24절)에 무게가 집중.
- 예고(6절)–성취(23절)의 inclusio가 장 전체를 묶음.
- "두 번의 드림" 대칭 — 아론 자신(8-14) ↔ 백성(15-21).
- 9장 끝의 "불"(esh)과 10:1의 "다른 불"이 같은 단어로 마주 봄(장 경계의 연결).
- 반복 어휘: kavod, nireh, qarav, barak, esh.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정경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 신전 봉헌식에서 신의 임재 표징으로 불·구름이 등장하는 모티프 — 비교 배경.
-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옴"(9:24)이 출 24:17·왕상 18:38·대하 7:1의 불 표징과 어휘·모티프 공유 — 정경 배경(해석 아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트

- 레 9 ↔ 출 24:16-17 (시내 산 영광의 불·구름)
- 레 9 ↔ 출 40:34-35 (성막에 임한 영광)
- 레 9 ↔ 레 8:33-35 (선행하는 칠 일)
- 레 9 ↔ 레 10:1-2 (직후의 "다른 불")
- 레 9 ↔ 민 9:15 (성막 위 구름)
- 레 9 ↔ 왕상 18:38 (불이 제물을 사름)
- 레 9 ↔ 대하 7:1 (성전 봉헌 때 불)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여덟째 날 아침,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과 장로들을 부르고 제물을 준비하라 지시한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 희에게 나타나시리라"는 말이 무대에 깔린다. 아론이 단에 올라 먼저 자기 송아지로 속죄제, 숫양으로 번제를 드린다. 이어 백성의 제물 — 염소·송아지·어린 양·소제·화목제 — 를 더 길게 드린다. 다 드린 뒤 아론이 손을 들어 백성을 축복하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 다시 축복한다. 그 순간 여호와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제단 위 제물을 사른다. 백성이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린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약속과 성취 사이의 제사들**"
- 초벌 부제: "여덟째 날 — 예고된 영광이 불로 나타난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2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불·영광 모티프 정경 배경 + 클라이맥스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참가자에서 튀면 "다음 결로"로 접음.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을 9장과 10장의 불로 신학화하지 않도록 주의 → open_questions에 보존.
- 아론의 축복 내용을 민 6장으로 채워 넣지 않도록 주의. 본장에서 "손 들어 축복함"까지만 기록.
- 회막 안에서의 일을 추정하지 않도록 주의 → 미해결 질문으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레위기 9장은 제사의 나열이 아니라 예고된 영광이 마지막 한 절에서 불로 나타나는 형식이다.

한 문단: 본문은 여덟째 날 아침에 "오늘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리라"는 예고를 깔아 둔다. 그 뒤 아론이 두 번 단에 오른다 — 먼저 자신을 위해, 다음 백성을 위해. 모든 제사와 축복이 끝난 자리에서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제물을 사른다. 백성이 소리 지르며 엎드린다. 예고와 성취가 양쪽에 걸쳐 있고, 그 사이에 모든 제사가 끼어 있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 회막 앞 제단, 아론이 처음 집행자로 오름. 소품 — 제물 두 묶음, 그리고 끝의 "불"(esh). "여덟째 날"(7+1). |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차분한 진행 → 마지막 절에서 터지는 클라이맥스. "오늘 나타나시리라"의 기다림. "영광"이 두 번 걸림. |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시작 — 부름·예고(1-7절). 끝 — 영광·불·엎드림(23-24절). 예고(6절)–성취(23절)의 inclusio. |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모세(지시)·아론(집행)·아들들(보조)·백성(지켜봄). 아론이 자신을 먼저, 백성을 나중에. 백성은 몸으로 반응. |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1 예고(1~7). 컷2 아론 자신(8~14). 컷3 백성(15~21). 컷4 축복(22~23a). 컷5 영광·불·엎드림(23b~24). |

|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여덟째 날의 까닭. 회막 출입의 내용. "여호와 앞의 불"의 성질. 정보 — 9:24의 불과 10:1의 다른 불이 같은 단어. |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 예고→자신 드림→백성 드림→축복→영광·불·엎드림. 두 번의 드림 뒤에 나타남이 온다. |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 "약속과 성취 사이의 제사들". 초벌 부제 — "예고된 영광이 불로 나타나다". |

|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 엎드린 백성 곁에 서서 "예고와 성취 사이의 머뭇" 앞에 멈춘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예고와 성취의 두 "나타남":** 6절의 약속과 23절의 성취가 같은 동사로 양쪽에 걸쳐, 그 사이의 모든 제사를 한 호흡으로 묶는다.
2. **결 2 — 두 번의 드림 순서:** 아론이 자신을 먼저, 백성을 나중에 드린다. 순서가 본문의 결을 가르킨다.
3. **결 3 — 마지막 한 절의 불:** 23절까지가 준비고, 24절의 불과 엎드림에 무게가 다 실린다. 형식이 끝을 향해 기운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레 8:33~35 (선행하는 칠 일). 레 10:1~2 (직후의 "다른 불").
- 다른 권 — 출 40:34~35 (성막에 임한 영광). 출 24:16~17 (시내 산 영광의 불).
- 정경 흐름 — 왕상 18:38·대하 7:1 (불이 제물을 사르는 표징)이 이 장의 불을 다시 비춘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오늘 나타나시리라"는 예고 앞에서 한 사람이 기다린다.
- 멈춤 1: 아론이 자신을 먼저 드리는 순서에서 멈춘다.
- 멈춤 2: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오는 빈 장면에서 멈춘다.
- 멈춤 3: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제물을 사르는 마지막 절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백성과 함께 엎드리며 *예고가 끝에 이뤄진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예고와 성취 사이에 머무는 자리* 앞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여덟째 날이 이레 다음에 놓인다
- [x] "오늘 나타나시리라"가 예고된다
- [x] 아론이 자신을 먼저, 백성을 나중에 드린다
- [x] "영광"이 6절과 23절에 두 번 걸린다
- [x] 마지막 절에 불과 엎드림이 온다
- [x]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온다
- [x] 백성이 몸으로 반응한다
- [x] 9장의 불이 10장의 다른 불로 이어진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불.

미해결 질문

레위기 9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여덟째 날"이 이레 다음에 따로 놓인 까닭은?

- 관찰 사실: 8장의 칠 일 머뭇 직후 9:1의 yom hashemini.
- 본문은 7+1의 까닭을 풀지 않음. 묵상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아론이 자신을 먼저, 백성을 나중에 드린 순서의 까닭은?

- 8-14절(자신) → 15-21절(백성)의 순서가 분명함.
- 7절이 "너와 백성을 속죄하라"로 연결하나, 순서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Q3. 23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온 일은 무엇인가?

- 안에서의 일은 본문이 적지 않음.
- 출입의 목적·내용은 미설명. 묵상으로 이월.

Q4.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esh)의 성질은?

- 출처는 "여호와 앞에서"로만 진술됨(9:24).
- 불의 성질·형태를 본문이 더 묘사하지 않음. 보존.

Q5. 아론의 축복(barak)의 내용은 무엇인가?

- 22절에 손을 들어 축복했다고만 함. 말의 내용은 비어 있음.
- 민 6장 축도와 연결은 추정 영역이므로 보류.

Q6. 9장의 "불"과 10장의 "다른 불"은 어떤 관계인가?

- 같은 단어 esh가 9:24와 10:1에 마주 놓임(관찰 사실).
- 두 불의 관계를 본문이 한 곳에서 설명하지 않음. 답 없이 보존, 다음 장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레위기 10장

LEV-010 · 오경 · 히브리어

같은 불이 다른 결로 나온다. 영광의 자리 곁에서 두 아들이 쓰러지고, 아론은 잠잠하다.

관찰된 사실

레위기 1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9장의 영광이 나타난 바로 그 회막 주변. 향로를 든 두 사람이 가운데 선다.
- 소품 — 향로(machtah), 향(qetoret), 그 위의 불. 옷째 들어 진영 밖으로 옮겨지는 시신.
- 1절의 불은 "다른 불"(esh zarah), 70인역 '낮선 불'(πῦρ ἄλλότριον). "명령하지 아니하신" 불.
- 사건 중간에 "포도주와 독주"(10:9) 금지 규례가 소재로 끼어듦.
- 9장이 바로 배경 — 같은 향로·불씨가 한 무대를 공유.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9장 끝의 환호 → 1-2절 죽음으로 한 호흡에 떨어지는 급전.
- "아론이 잠잠하니"(3절)의 침묵이 큰 무게.
- 짧은 장(20절)에 죽음·시신·규례·논쟁이 빠르게 교차.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매...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니 죽었다" — 죽음으로 시작.
- 20절: "모세가 듣고 좋게 여겼더라" — 논쟁의 수궁으로 종결.
- 9장 끝 불 ↔ 10장 처음 불의 연결, 그리고 먹는 문제로 갈라져 닫힘.
- 죽음(열림) ↔ 받아들임(닫힘), 호흡이 빠른 단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나답·아비후(죽음) / 아론(침묵) / 모세(말·규례·꾸짖음) / 엘르아살·이다말(남은 아들) / 미사엘·엘사반(시신 옮김).
- 모세가 능동(해석·규례·논쟁), 아론은 침묵하다 마지막에 한 번 답함.
- "아론이 잠잠하니"(wayyiddom Aharon, 3절) — 인물의 가장 큰 표현이 침묵.
- 애도 금지 — 머리 풀지·옷 찢지 말라, 회막 떠나지 말라(10:6-7).
- 내러티브 한가운데 규례 삽입 — 음주 금지, 거룩·속됨·정·부정 구별(lehavdil, 10:9-11).
- 속죄제 염소를 먹었는가의 논쟁(16-20절), 아론의 답을 모세가 수궁.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다른 불·삼켜짐·모세의 말·아론의 침묵 — 묶음 "사건"
- 컷 2 (4-7절): 시신 옮김·애도 금지·회막 떠나지 말라 — 묶음 "사건"

- 컷 3 (8-11절): 삽입 규례 — 음주 금지·구별·가르침 — 묶음 "삽입된 법"
- 컷 4 (12-15절): 남은 소제·요제·거제 먹는 규정 재확인 — 묶음 "먹는 문제"
- 컷 5 (16-20절): 속죄제 염소 논쟁·아론의 답·모세의 수궁 — 묶음 "먹는 문제"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 esh zarah(אֵשׁ זָרָה) — 다른/낯선 불. 70인역 πῦρ ἄλλότριον. "명령하지 아니하신".
- machtah(מַחְתָּה) — 향로.
- qetoret(קֵטֹרֶת) — 향.
- wayyiddom(וַיִּדְדֹם) — 잠잠해지다(3절). 아론의 침묵.
- qadosh(קָדוֹשׁ) — 거룩.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 거룩히 여김을 받겠다"(3절).
- lehavdil(לְהַבְדִּיל) — 구별하다(10:10). 거룩↔속됨, 정함↔부정함.
- chol(חֹל) / qodesh(קֹדֶשׁ) — 속됨 / 거룩.
- tahor(טָהוֹר) / tame(טָמֵא) — 정함 / 부정함.
- yayin(יַיִן) / shekar(שֵׁכָר) — 포도주 / 독주(10:9).
- sheirim — 산 염소(속죄제물 계열, 16절 논쟁의 대상).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 9장의 "여호와 앞의 불"(9:24)과 10장의 "여호와 앞의 불"(10:2)이 같은 표현으로 마주 봄 — 사름 ↔ 삼킴의 대조.
- 내러티브 한가운데 규례(10:8-11)가 박힌 embedded law 구조.
- 장 전체가 "죽음 → 처리 → 규례 → 먹는 문제"의 빠른 장면 전환.
- 아이러니 — 영광의 자리 곁에서 곧바로 죽음이 일어남.
- 반복 어휘: esh, qarav, qadosh, lehavdil, "여호와 앞에서".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정경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 제의에서 향로·향 사용과 규정된 불씨 관행 — esh zarah(명령되지 않은 불)의 비교 배경.
- 메소포타미아 제의 규정의 사제 음주 금지 — 10:9 규례의 비교 배경(해석 아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트

- 레 10 ↔ 레 9:24 (선행하는 "여호와 앞의 불")
- 레 10 ↔ 출 30:9 (다른 향 금지)
- 레 10 ↔ 레 16:1 (이 사건을 다시 언급, 속죄일의 배경)
- 레 10 ↔ 민 3:4 · 민 26:61 (나답·아비후 죽음 회상)
- 레 10 ↔ 레 11:47 (정·부정 구별 연결)
- 레 10 ↔ 겔 44:21 (제사장 음주 금지 재진술)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만들기

9장의 환호가 가라앉지 않은 자리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향로에 불과 향을 담아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린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고, 그들이 죽는다. 모세가 한마디 하고, 아

론은 잠잠하다. 사촌들이 시신을 옷째 들어 진영 밖으로 옮기고, 아론과 남은 아들들은 애도가 금지된 채 회막에 머문다. 그 사이 규례가 박힌다 — 술을 마시지 말라, 거룩과 속됨·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여 가르치라. 끝에 먹는 문제로 옮겨가, 태워진 속죄제 염소를 두고 모세가 묻고 아론이 답하니,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긴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같은 불, 다른 결"
- 초벌 부제: "다른 불 — 죽음과 침묵, 그리고 구별의 규례"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향로·불씨 관행 + 음주 금지 배경 + embedded law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참가자에서 튀면 "다음 결로"로 접음.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다른 불"의 잘못이 무엇인지(향·불씨·술·태도)를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 → open_questions에 보존.
- "아론의 침묵"을 감정 해석으로 채우지 않도록 주의. 본장에선 "잠잠하니"까지만 기록.
- 음주 금지와 죽음을 인과로 연결하지 않도록 주의 → 미해결 질문으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레위기 10장은 한 사건의 보도가 아니라 같은 불이 다른 결로 나오고, 그 결에 침묵과 규례가 박히는 형식이다.

한 문단: 본문은 9장의 환호 바로 다음에 죽음을 놓는다. 나답과 아비후가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리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킨다. 9장에서 제물을 사르던 같은 표현의 불이 여기선 사람을 삼킨다. 아론은 잠잠하다. 사건 한가운데 규례가 박히고(음주 금지·구별·가르침), 끝은 먹는 문제의 짧은 논쟁과 수궁으로 닫힌다. 죽음으로 열고 받아들임으로 닫는, 호흡이 빠른 장이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 9장의 영광이 나타난 회막 걸. 소품 — 향로·향·불, 옮겨지는 시신, 그리고 술. "다른 불"(esh zarah). |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환호 → 죽음으로의 급전. "아론이 잠잠하니"의 무게. 짧은 장에 사건·규례·논쟁이 빠르게 교차. |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시작 — 다른 불·삼켜짐(1-2절). 끝 — "모세가 들고 좋게 여겼더라"(20절). 죽음 ↔ 받아들임. |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나답·아비후(죽음)·아론(침묵)·모세(말)·남은 아들·시신 옮기는 자. 모세 능동, 아론 침묵. |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1 사건·침묵(1~3). 컷2 시신·애도 금지(4~7). 컷3 삼입 규례(8~11). 컷4 먹는 규정(12~15). 컷5 염소 논쟁(16~20). |

|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다른 불"의 어긋남. 침묵의 내용. 9장 불과의 대조. 정보 — 16:1이 이 사건을 다시 언급(속죄일 배경). |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 죽음→처리→규례→먹는 논쟁. 같은 불이 다른 경로 갈리고, 규례가 한가운데 박힌다. |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 "같은 불, 다른 걸". 초벌 부제 — "죽음과 침묵, 그리고 구별의 규례". |

|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 잠잠한 아론 곁에 서서 "말이 막히는 자리" 앞에 멈춘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걸

1. **걸 1 — 같은 불의 두 걸:**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9:24에선 사르고 10:2에선 삼킨다. 같은 표현이 두 걸로 갈린다.
2. **걸 2 — 아론의 침묵:** 본문은 가장 큰 자리에 말이 아니라 "잠잠하니"를 놓는다. 비어 있는 곳이 무게를 진다.
3. **걸 3 — 한가운데 박힌 규례:** 죽음과 먹는 문제 사이에 음주 금지와 "구별하여 가르치라"가 삽입된다. 사건이 법으로 변진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레 9:24 (선행하는 불). 레 16:1 (이 사건을 배경으로 열리는 속죄일). 레 11:47 (정·부정 구별의 연결).
- 다른 권 — 출 30:9 (다른 향 금지). 민 3:4·민 26:61 (나답·아비후 죽음 회상).
- 정경 흐름 — 겔 44:21 (제사장 음주 금지 재진술)이 이 장의 규례를 다시 비춘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환호 다음의 죽음 앞에서 한 사람이 숨을 멈춘다.
- 멈춤 1: "아론이 잠잠하니"의 비어 있는 곳에서 멈춘다.
- 멈춤 2: 같은 불이 다른 결로 갈리는 대조에서 멈춘다.
- 멈춤 3: 사건 한가운데 박힌 "구별하여 가르치라"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말이 막히는 자리*라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잠잠함이 무엇인지 묻는 자리* 앞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환호 다음에 죽음이 놓인다
- [x] "다른 불"이 명령되지 않은 불이다
- [x] 같은 불이 사르고 또 삼킨다
- [x] 아론이 잠잠하다
- [x] 애도가 금지된다
- [x] 규례가 사건 한가운데 박힌다
- [x] 거룩과 속됨·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라 한다
- [x] 먹는 논쟁이 수궁으로 닫힌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구별.

미해결 질문

레위기 10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다른 불"(esh zarah)에서 무엇이 어긋난 것인가?

- 본문은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라고만 함(10:1).
- 향·불씨·시간·태도 중 무엇이 문제인지 본문이 특정하지 않음. 묵상에서 다시.

Q2. "아론이 잠잠하니"(3절)의 침묵은 무엇인가?

- 본문은 침묵만 기록하고 속을 적지 않음.
- 수용·항변·애통 중 무엇인지 본문이 말하지 않음. 채우지 않고 보존.

Q3. 9장의 불과 10장의 불이 같은데 결과가 갈리는 까닭은?

- 같은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제물을 사르고(9:24) 사람을 삼킴(10:2).
- 대조는 관찰되나 그 까닭을 본문이 한 곳에서 풀지 않음.

Q4. 음주 금지(10:9)가 사건 한가운데 놓인 까닭은?

- 규례가 내러티브에 삽입된 배치(관찰 사실).
- 술과 죽음의 인과를 본문이 명시하지 않음. 추정 보류.

Q5. 모세가 인용한 3절의 말씀은 어디서 온 것인가?

-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 거룩히 여김을 받겠다"가 앞선 본문에 직접 나온 적이 없음.
- 인용의 출처를 본문이 밝히지 않음. 보존.

Q6. 속죄제 염소 논쟁(16-20절)에서 아론의 답이 옳았던 까닭은?

- 모세가 수궁하나(20절), 무엇이 옳았는지 본문이 길게 풀지 않음.
- 규정과 정황의 관계를 본문이 한 곳에서 설명하지 않음. 답 없이 보존.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레위기 11장

LEV-011 · 오경 · 히브리어

먹는 것이 정함과 부정함으로 갈린다. 분류가 길게 이어지다 끝에 "거룩하라"가 놓인다.

관찰된 사실

레위기 1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사건 무대가 아닌 분류의 무대. 여호와와 말씀이 네 영역(땅·물·하늘·기는 것)을 차례로 훑음.
- 소품이 곧 동물들 — 굽·새김질(땅), 지느러미·비늘(물), 이름 열거(새), 발 수(기는 것).
- 기준어 — 굽 갈라짐(parsah)·새김질(gerah). 부정 표현 — tame, 더 강한 sheqets(가증, 70인역 βδέλυγμα).
- "주검"(nevelah)의 전이를 길게 다룸(24-40절) — 사람·그릇·씨·물·화덕.
- 10:10("구별하여 가르치라")이 바로 배경으로 깔림.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긴 목록의 반복적 흐름 → 끝(44-45절)에서 "거룩하라"로 결이 바뀜.
- "너희에게 부정하니라"가 후렴처럼 반복.
- 네 영역으로 무대가 갈리는 분류표 인상.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 먹을 것 분류로 시작.
- 44-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 동기절 삽입.
- 46-47절: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규례라" — 총괄로 종결.
- 분류(열림) → 거룩 명령 → 총괄(닫힘)의 단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말하는 이: 여호와 / 듣는 이: 모세와 아론(둘 다, 10장과 대비) / 명령 대상: "너희"(이스라엘).
- 주인공은 사물(동물). 사람은 먹는·만지는 주체로만 등장.
- 일상 동작의 정·부정 — 주검 만짐(저녁까지 부정), 옷 빨기, 질그릇 깨기, 씨·물의 전이(24-40절).
- 끝에 동사 hithqaddesh(스스로 거룩하라)와 형용사 qadosh(거룩한)가 동기절을 이룸(44-45절).
- 화법은 "정하다/부정하다 → 거룩하라"로 수렴 — 분류가 명령으로.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8절): 땅 짐승 — 굽·새김질 기준, 낙타·토끼·돼지 예외 — 묶음 "네 영역"
- 컷 2 (9-12절): 물 생물 — 지느러미·비늘 기준 — 묶음 "네 영역"
- 컷 3 (13-19절): 새 — 이름으로 열거 — 묶음 "네 영역"

- 컷 4 (20-23절): 날개+기는 것 — 매뚜기류 예외 — 묶음 "네 영역"
- 컷 5 (24-40절): 주검(nevelah)의 전이·회복 — 묶음 "주검의 전이"
- 컷 6 (41-47절): 기는 것 종합 + "거룩하라" + 분별 규례 총괄 — 묶음 "거룩·총괄"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 tahor(טָהוֹר) / tame(טָמֵא) — 정함 / 부정함. 본장의 골격.
- sheqets(שִׁקְצִים) — 가증한 것(물·기는 것에 자주). 70인역 βδέλυγμα.
- behemah(בְּהֵמָה) — 짐승(가축).
- parsah(פָּרָסָה) — 굽. gerah(גֵּרָה) — 새김질.
- sheretz(שְׂרָצִים) — 기는 것·떼 지어 다니는 것.
- oph(אֵיפ) — 날짐승·새.
- nevelah(נֶבֶלָה) — 주검(죽어 자연사한 것).
- lehavdil(לְהַבְדִּיל) — 구별하다(11:47, 10:10과 연결).
- qadosh(קָדוֹשׁ) / hithqaddesh(הִתְקַדְּדָה) — 거룩한 /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44-45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 네 영역(땅·물·하늘·기는 것)의 분류 구조 — 영역마다 기준 제시 방식이 조금씩 다름.
- 후렴 "너희에게 부정하니라"의 반복.
- 분류표 끝의 동기절(motivation clause)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44-45절).
- 46-47절 총괄이 inclusio 후반부(1-2절의 분류 선언과 짝).
- 주검 전이(24-40절)는 시간(저녁)·물(씻음)·파괴(깨뜨림)로 회복되는 절차 구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정경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의 식이 금기·정결 관념, 동물 분류·금기 목록과의 형식 비교 — 배경 자료.
- 창 7:2에 이미 "정결한 짐승·부정한 짐승" 구분이 노아 때 등장 — 11장이 첫 개념은 아님(정경 배경).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트

- 레 11 ↔ 창 7:2 (정결·부정 짐승 구분의 앞선 언급)
- 레 11 ↔ 신 14:3-21 (병행 식이 규정)
- 레 11 ↔ 레 10:10 (구별하여 가르치라 — 직전 연결)
- 레 11 ↔ 레 20:25-26 (정·부정 구별과 거룩 재진술)
- 레 11 ↔ 벰전 1:16 ("거룩하라" 인용)
- 레 11 ↔ 행 10:14-15 (정·부정 환상)
- 레 11 ↔ 막 7:19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먹을 것의 분류를 일러 주신다. 땅에서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만 정하고, 둘 중 하나만 있는 낙타·토끼·돼지는 부정하다. 물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정하고, 없으면 가증한 것이다. 하늘의 새는 이름으로 가증한 것이 열거되고, 날개 있고 기는 것은 부정하되 뛰는 다리가 있는 메

뚜기류는 예외다. 이어 주검의 전이가 길게 다뤄진다 —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릇·씨·물·화덕에 닿으면 그것까지 부정하며, 씻거나 깨뜨려 회복한다. 기는 것 전체를 정리한 끝에 결이 바뀐다 —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규례"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분류표 끝의 거룩하라"
- 초벌 부제: "정·부정의 분류 — 네 영역과 끝의 거룩"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2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식이 금기 비교 + 창 7:2 앞선 구분 + 분류·동기질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참가자에서 튀면 "다음 결로"로 접음.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정·부정 분류의 "이유"(위생·상징·구별 등)를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 → open_questions에 보존.
- tame와 sheqets의 강도 차이를 신학화하지 않도록 주의. 본장에선 "용어 분포"까지만 기록.
- 끝의 "거룩하라"를 분류와 인과로 묶어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 → 미해결 질문으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레위기 11장은 동물 목록이 아니라 네 영역의 정·부정 분류가 길게 흐르다 끝에 "거룩하라"로 모이는 형식이다.

한 문단: 본문은 땅·물·하늘·기는 것 네 영역을 차례로 훑으며 정함과 부정함을 가르친다. 영역마다 기준이 제시되고, "너희에게 부정하니라"가 후렴처럼 돌아온다. 분류가 끝난 뒤 주검의 전이가 길게 다뤄지고, 마지막에

결이 바뀐다 —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규례"로 달한다. 분류가 명령으로 수렴한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분류의 무대. 네 영역을 훑는 말씀. 소품이 곧 동물들. 기준어 parsah·gerah, 부정어 tame·sheqets. |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긴 목록의 반복 → 끝의 "거룩하라"로 결 전환. "너희에게 부정하나라" 후렴. 네 영역 분류표 인상. |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시작 — 먹을 것 분류(1-2절). 끝 — "분별하는 규례"(46-47절). 그 앞에 거룩 동기절(44-45절). |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여호와(말함)·모세와 아론(둘 다 들음)·"너희". 주인공은 사물(동물), 사람은 먹는·만지는 주체. |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1 땅(1~8). 컷2 물(9~12). 컷3 새(13~19). 컷4 기는 것(20~23). 컷5 주검 전이(24~40). 컷6 거룩·총괄(41~47). |

|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기준의 까닭. tame·sheqets 차이. 거룩과 분류의 연결. 정보 — 창 7:2의 앞선 구분, 신 14장 병행. |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 땅→물→하늘→기는 것→주검 전이→거룩하라. 분류가 명령으로 수렴한다. |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 "분류표 끝의 거룩하라". 초벌 부제 — "네 영역과 끝의 거룩". |

|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 긴 목록을 지나 "거룩하라" 앞에 멈춘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네 영역의 같은 형식:** 땅·물·하늘·기는 것이 각기 기준으로 갈린다. 영역마다 형식이 조금씩 달라 그 차이가 도드라진다.

2. **결 2 — 주검의 전이:** 부정이 사람에서 그릇·씨·물로 옮겨가고, 시간과 물로 회복된다. 달음의 경계가 세밀하다.

3. **결 3 — 끝의 "거룩하라":** 긴 분류가 명령 한 문장으로 모인다. 형식이 동기절로 수렴한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레 10:10 (구별하여 가르치라 — 직전 연결). 레 20:25~26 (정·부정 구별과 거룩 재진술).

• 다른 권 — 창 7:2 (정결·부정 짐승의 앞선 구분). 신 14:3~21 (병행 식이 규정).

• 정경 흐름 — 벧전 1:16("거룩하라" 인용)·행 10:14~15(정·부정 환상)이 이 장의 분류와 거룩을 다시 비춘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먹을 것의 분류 앞에서 한 사람이 목록을 따라간다.

• **멈춤 1:** 영역마다 다른 기준 제시 방식에서 멈춘다.

- **멈춤 2:** 주검의 부정이 그릇·씨·물로 옮겨가는 경계에서 멈춘다.
- **멈춤 3:** 분류표 끝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분류가 거룩으로 모인다*는 결을 손에 쥐는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무엇을 가르고 무엇을 들이는지 묻는 자리* 앞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네 영역으로 정·부정이 갈린다
- [x] 영역마다 기준 제시 방식이 다르다
- [x] "너희에게 부정하니라"가 후렴으로 반복된다
- [x] 주검의 부정이 사물로 전이된다
- [x] 시간과 물로 회복된다
- [x] 끝에 "거룩하라"가 놓인다
- [x] 분류가 명령으로 수렴한다
- [x] 46~47절이 분별 규례로 총괄한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거룩.

미해결 질문

레위기 1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정·부정을 가르는 기준의 까닭은 무엇인가?

- 관찰 사실: 굽·새김질(땅), 지느러미·비늘(물) 등 기준이 제시됨.
- 본문은 그 기준이 정해진 까닭(위생·상징·구별)을 말하지 않음. 묵상에서 다시.

Q2. tame(부정)와 sheqets(가증)의 강도 차이는 왜인가?

- 물·기는 것에 sheqets가 더 자주 붙음(관찰 사실).
- 두 용어의 구별 기준을 본문이 명시하지 않음. 어휘 분포만 기록.

Q3. 새는 왜 기준 없이 이름으로만 열거되는가?

- 땅·물은 기준 제시, 새(13-19절)는 이름 목록.
- 영역별 형식 차이의 까닭을 본문이 풀지 않음. 보존.

Q4. 주검의 부정이 그릇·씨·물로 전이되는 범위의 경계는?

- 마른 씨는 정하고 물 댄 씨는 부정해지는 등 경계가 세밀함(11:37-38).
- 전이의 원리·경계를 본문이 한 곳에서 일반화하지 않음. 미해결로 보존.

Q5. 분류표 끝에 "거룩하라"가 붙는 까닭은?

- 분류(정·부정)와 명령(거룩하라)이 44-45절에서 이어짐.
- 둘의 연결 논리를 본문이 길게 풀지 않음. 묵상으로 이월.

Q6. 창 7:2의 앞선 구분과 11장 분류는 어떤 관계인가?

- 노아 때 이미 "정결·부정 짐승"이 구분됨(관찰 사실).
- 앞선 구분과 본장 목록의 관계를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답 없이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레위기 12장

LEV-012 · 오경 · 히브리어

짧은 한 장에 날수가 두 겹으로 매겨진다. 출산 뒤의 정결이 시간과 제물로 담힌다.

관찰된 사실

레위기 1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두 곳 — 앞은 집(산모의 정결 날들), 뒤는 회막 문(기한 차면 제물 드림).
- 소품이 적음 — 날수, 그리고 끝의 제물(일 년 된 어린 양·비둘기·산비둘기).
- 2절 부정 기간이 월경의 부정(niddah)과 같다 함. 4절은 "정혈"(demei tohorah, 정결의 피).
- 3절에 팔일째 할례가 한 절로 끼어듦.
- 11장(정·부정 분류)이 바로 배경 — 12장이 그 적용을 사람의 몸·시간에 둬.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날수가 또박또박 매겨지는 시계·달력 같은 인상.
- 같은 틀이 남아·여아로 두 번 반복(숫자만 다름).
- 끝의 "비둘기 둘" 양보 조항이 가난한 경우를 챙기는 걸.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남아를 낳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 부정으로 시작.
- 8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 정결로 종결.
- 부정(열림)에서 정결(닫힘)로 건너가는 한 단위, 그 사이를 날수가 채움.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말하는 이: 여호와 / 듣는 이: 모세 / 주인공: 여인(산모) / 마지막: 제사장 / 갓난아이.
- 산모가 거의 유일한 행위자 — 머물고·기다리고·제물 가지고 나아감. 제사장은 속죄만.
- 두 겹 구조 — 남아 7일 부정+33일 정결, 여아 14일+66일(두 배).
- 정결 기간 제한 — 성물을 만지지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 말라(4절).
- 끝의 제물 — 번제(어린 양) + 속죄제(비둘기), 양보 조항 비둘기 둘(8절).
- 화법은 "부정 기간 → 정결 기간 → 제물 → 속죄(kipper) → 정결"의 차례.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남아 — 칠 일 부정, 팔일째 할례 — 묶음 "남아"
- 컷 2 (4절): 삼십삼 일 정결, 성물·성소 제한 — 묶음 "남아"
- 컷 3 (5절): 여아 — 십사 일 부정 + 육십육 일 정결(두 배) — 묶음 "여아"

- 컷 4 (6-8절): 어린 양 번제 + 비둘기 속죄제, 가난하면 비둘기 둘, 제사장 속죄 → 정결 — 묶음 "제물·정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 yaldah/yaldah — 낳다(2절, 출산).
- zachar(זָכַר) / neqevah(נִקְוָה) — 남아 / 여아.
- niddah(נִדָּה) — 월경의 부정·분리(2절).
- demei tohorah(דְּמֵי טוּהַר) — 정혈, '정결의 피'(4절). 70인역 '정결한 피 안에서'.
- tame(טָמֵא) / tahor(טָהוֹר) — 부정 / 정결.
- mul(מול) — 할례하다(3절, 팔일째).
- olah(עָלָה) / chattat(חָטָא) — 번제 / 속죄제(6절).
- kohen(כֹּהֵן) — 제사장.
- kipper(כִּפֶּה) — 속죄하다(8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 남아(1-4절)와 여아(5절)의 평행 구조 — 같은 틀, 숫자만 두 배(doubling).
- 두 겹의 날수 — "부정의 날"과 "정결의 날"이 따로 매겨짐(남아 7+33=40, 여아 14+66=80).
- 8절의 양보 조항(concession clause) — "힘이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 둘.
- 부정(2절)-정결(8절)의 inclusio.
- 3절 할례가 정결 규례 흐름에 한 절로 삽입됨.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정경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 여러 문화의 출산 후 격리·정결 기간 관행과의 형식 비교 — 배경 자료.
- 창 17:12의 팔일째 할례 규정이 3절과 연결됨 — 정경 배경(해석 아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트

- 레 12 ↔ 레 11:47 (정·부정 구별 — 직전 연결)
- 레 12 ↔ 레 15:19-30 (월경·유출의 정결, niddah 연결)
- 레 12 ↔ 창 17:12 (팔일째 할례)
- 레 12 ↔ 눅 2:22-24 (마리아의 정결·비둘기 둘)
- 레 12 ↔ 레 5:7-11 (가난한 자의 제물 대체)
- 레 12 ↔ 레 1장 (번제) · 레 4장 (속죄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여인이 남아를 낳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고, 여덟째 날에 아이가 할례를 받는다. 그 뒤 삼십삼 일의 정결 기간이 이어지고, 그동안 산모는 성물을 만지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다. 여아면 같은 틀이 두 배로 — 십사일 부정, 육십육 일 정결. 정결의 날이 차면 산모가 회막 문으로 나아가 일 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속죄제로 가져온다. 양을 드릴 힘이 없으면 비둘기 둘로 대신한다. 제사장이 그것을 드려 산모를 위해 속죄하면, 산모가 정결해진다. 부정으로 시작한 날들이 시간과 제물을 거쳐 정결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부정에서 정결로 — 시간과 제물"
- 초벌 부제: "출산 후의 정결 — 두 겹의 날수와 끝의 제물"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2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산후 격리 관행 비교 + 창 17:12 할례 + 평행·양보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참가자에서 튀면 "다음 결로"로 접음.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여아 부정 기간이 남아의 두 배인 까닭을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 → open_questions에 보존.
- 출산 후 "속죄제"의 까닭을 죄·정결 신학으로 채우지 않도록 주의. 본장에선 "속죄제 포함"까지만 기록.
- "정혈"(demei tohorah)의 전환 기준을 추정하지 않도록 주의 → 미해결 질문으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레위기 12장은 여덟 절에 부정한 날과 정결한 날이 두 겹으로 매겨지고 끝에 제물로 달히는 형식이다.

한 문단: 본문은 출산 뒤의 시간을 두 겹으로 매긴다 — 부정의 날과 정결의 날. 남아는 7+33, 여아는 그 두 배인 14+66. 같은 틀이 숫자만 달리하여 두 번 돈다. 정결의 날이 차면 산모가 회막 문으로 나아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힘이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 둘로 대신한다. 제사장이 속죄하면 산모가 정결해진다. 부정으로 열고 정결로 닫는, 시간과 제물이 가운데를 채우는 짧은 단위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둘 — 집(정결 날들)·회막 문(제물). 소품 적음 — 날수, 어린 양·비둘기. niddah·demei tohorah. |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날수가 또박또박 매겨지는 달력 인상. 남·여로 두 번 반복. 끝의 "비둘기 둘" 양보. |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시작 — 부정(1-2절). 끝 — "속죄할지니 정결하라" (8절). 부정→정결, 사이를 날수가 채움. |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여호와(말함)·모세(들음)·산모(주인공)·제사장(속죄). 산모가 거의 유일한 행위자. |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1 남아·할례(1~3). 컷2 정결 기간·제한(4). 컷3 여아 두 배(5). 컷4 제물·속죄·정결(6~8). |

|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여아 두 배의 까닭. 두 겹 날수. 출산 뒤 속죄제. 정보 — 8절 비둘기 둘이 눅 2:24에 연결. |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 출산→할례→정결 날들→(여아 두 배)→제물→속죄→정결. 시간과 제물이 정결을 완성. |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 "부정에서 정결로 — 시간과 제물". 초벌 부제 — "두 겹의 날수와 끝의 제물". |

|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 정결의 날들을 지나 회막 문으로 가는 시간 안을 걸으며 "기다림" 앞에 멈춘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두 겹의 날수:** "부정의 날"과 "정결의 날"이 따로 매겨진다. 부정이 끝나도 정결이 더 남아, 시간이 두 층으로 흐른다.
2. **결 2 — 같은 틀의 두 배:** 남아와 여아가 같은 구조에 숫자만 달리한다. 형식이 두 번 돌며 숫자가 도드라진다.
3. **결 3 — 끝의 제물과 양보:** 번제와 속죄제로 닫히되, "힘이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 둘이 허락된다. 규례 안에 형편이 들어온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레 11:47 (정·부정 구별 — 직전 연결). 레 15:19~30 (niddah·유출의 정결). 레 5:7~11 (가난한 자의 제물 대체).
- 다른 권 — 창 17:12 (팔일째 할례). 눅 2:22~24 (마리아의 정결과 비둘기 둘).
- 정경 흐름 — 가난한 자의 비둘기 대체가 신약(눅 2장)에서 다시 나타나 이 장의 양보 조항을 비춘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출산 뒤의 부정한 날 앞에서 한 사람이 시간을 센다.
- **멈춤 1:** 부정의 날과 정결의 날이 따로 매겨지는 두 겹에서 멈춘다.

- **멈춤 2:** 같은 틀이 남아·여아로 두 배 도는 데서 멈춘다.
- **멈춤 3:** 기쁜 일에 속죄제가 함께 드러지는 데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시간과 제물이 정결로 단는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부정에서 정결로 건너가는 기다림의 자리* 앞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출산 뒤 날수가 두 겹으로 매겨진다
- [x] 부정의 날 다음에 정결의 날이 더 있다
- [x] 남아와 여아가 같은 틀, 숫자만 두 배다
- [x] 팔일째 할례가 한 절로 끼어든다
- [x] 정결 기간에 성소 출입이 제한된다
- [x] 끝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다
- [x] 힘이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 둘로 대신한다
- [x] 부정으로 열고 정결로 닫힌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날수.

미해결 질문

레위기 1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궤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여아의 정결 기간이 남아의 두 배인 까닭은?

- 관찰 사실: 남아 7+33=40일, 여아 14+66=80일.
- 본문은 두 배의 까닭을 말하지 않음. 목상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부정의 날"과 "정결의 날"이 따로 매겨진 까닭은?

- 부정 기간이 끝나도 정결 기간이 더 남음(두 겹).
- 두 날수의 구별 기준을 본문이 풀지 않음. 보존.

Q3. "정혈"(demei tohorah)이 부정에서 정결로 바뀌는 기준은?

- 같은 출혈이 niddah(부정)에서 '정결의 피'로 결이 바뀜.
- 본문은 그 전환을 시간(날수)으로만 표시. 다른 기준은 미설명.

Q4. 출산 뒤에 "속죄제"가 포함된 까닭은?

- 기쁜 일인데 번제와 함께 속죄제가 드러짐(6절).
- 본문은 "속죄하라"(kipper)만 말하고 까닭을 풀지 않음. 목상으로 이월.

Q5. 할례(3절)가 정결 규례 한가운데 한 절로 놓인 까닭은?

- 팔일째 할례가 부정·정결 일수 사이에 삽입됨.
- 할례와 정결 일수의 관계를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보존.

Q6. "힘이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 둘"의 양보 조항은 어디까지인가?

- 양을 못 드리는 경우를 따로 둠(8절).
- 대체의 범위·조건을 본문이 한 곳에서 일반화하지 않음. 답 없이 보존.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레위기 13장

LEV-013 · 오경 · 히브리어

보고, 기다리고, 다시 본다. 판정은 서두르지 않는다. 진단의 반복이 한 사람을 진영 안과 밖으로 가른다.

관찰된 사실

레위기 1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진영 한켠, 제사장 앞에 환부를 가진 사람이 서는 자리. 일정 시간 뒤 다시 같은 자리로 데려오는 반복 무대.
- 소품: 피부(basar)·털(sear)·환부(nega)·생살(michyah), 후반부엔 양털 옷·베옷·가죽 제품.
- 관찰 기준어가 색과 깊이: 흰 것(lavan)·불그스름·누런 털·검은 털, "살보다 우묵하다(amoq)".
- 배경 제도는 "진영"의 안과 밖. 부정한 자는 진영 밖에 거함(46절).
- tsara'at(차라아트)는 사람 피부(2절~)·옷(47절~)에 동일하게 쓰이며, 다음 장에서 집(14장)에도 쓰임. 70인역 λέπρα.
- 제사장은 치료하지 않고 보고·격리·판정만 한다.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같은 절차 문장이 반복되는 차분하고 다소 답답한 공기. "보고 → 이레 가두고 → 다시 보고".
- 판정("정하다/부정하다")이 칼 같지 않고 격리의 간격을 두고 한 박자 쉬어 내려짐.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 "피부에 무엇이 돋거든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 한 사례에서 출발.
- 59절: "이는 ...옷에 tsara'at의 병이 들었을 때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 전체 규례 선언으로 봉인.
- 시작의 목적도 판정, 끝의 요약도 "정하고 부정한 것의 진단". 판정 쌍(tahor/tame)이 양끝에 걸림.

4 등장인물·사물·상황·사상

- 인물: 제사장(kohen, 거의 전 절) / 환부를 가진 "그 사람"(이름 없음, 보여지는 쪽).
- 그 사람의 유일한 발화는 45절 "부정하다 부정하다"(tame tame) — 옷 찢고 머리 풀고 윗입술 가리고 외침.
- 판정 기준이 감정이 아니라 관찰된 징표: 색·깊이·번짐·털의 변화.
- 역설적 판정: 부분이 희면 부정이나, 온몸이 다 희면 정하다(13:13).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8절): 피부의 부어오름·딱지·색점 — 첫 진단·이레 격리·재진
- 컷 2 (9-17절): 오래된 환부 — 생활(michyah) 보이면 부정, 온몸 희면 정
- 컷 3 (18-23절): 종기 자리
- 컷 4 (24-28절): 화상 자리
- 컷 5 (29-37절): 머리·수염(netheq), 누런 털
- 컷 6 (38-39절): 살의 흰 색점 — 정하다
- 컷 7 (40-44절): 대머리·이마 벗어짐
- 컷 8 (45-46절): 부정 판정자의 처신, 진영 밖 거함
- 컷 9 (47-59절): 옷의 환부 — 격리·세탁·불사름, 규례 요약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tsara'at(טַרְאָט) — 피부·옷·집에 두루 쓰이는 넓은 범주. 70인역 λέπρα.
- nega(נֶגַע) — 환부. '맞은 것·닿은 것' 어감.
- kohen(כֹּהֵן) — 제사장. 진단·판정의 주체.
- tahor(טָהוֹר) / tame(טָמֵא) — 정하다 / 부정하다. 판정 쌍.
- hisgir(חִסְגֵּר) — 가두다·격리하다. 이레 단위.
- pasah(פָּסַח) — 번지다. 판정의 핵심 변수.
- michyah(מִיחַיָּה) — 생활. 드러나면 부정 사유.
- lavan(לָבָן) — 희다. 색 기준어.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결의론(casuistic) 법 양식: "만일 ~하면 ~하라"의 조건문이 대상별로 분기.
- 반복 절차 공식: "보다 → 격리(이레) → 다시 보다 → 판정". 대상만 바뀌고 절차는 동일.
- 이레(yamim shiv'ah) 격리가 단위로 반복, 경우에 따라 2회 격리(14일).
- 사람(2-46) → 옷(47-58) → 규례 요약(59)의 확장 구조. 집은 14장으로 이월.

6 의문·발견·정보 — (3) ANE·제도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에서 피부 이상이 제의적 부정·사회적 격리의 사유로 다뤄진 정황 (배경).
- 환부의 색·깊이·번짐을 관찰해 판정하는 절차적 진단 양식이 메소포타미아 진단 모음집 계열에 유사 보고 됨 (배경, 해석 아님).
- 미쉬나 Nega'im이 이 진단 세칙을 별도 소논집으로 정밀화 (참고, 해석 영역).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레 13 ↔ 레 14 (정결케 된 자의 예식 — 진단의 후속)
- 레 13 ↔ 민 5:1-4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 레 13 ↔ 민 12:10-15 (미리암의 tsara'at·7일 격리)
- 레 13 ↔ 신 24:8-9 (tsara'at 규례 준수)
- 레 13 ↔ 왕하 5장 (나아만), 왕하 7:3-10 (성문의 네 사람)

- 레 13 ↔ 대하 26:16-21 (웃시야), 마 8:1-4 (제사장에게 보이라)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한 사람이 피부에 무언가가 돌아 제사장 앞에 선다. 제사장은 고치지 않고 다만 본다 — 색·깊이·털. 단정하기 어려우면 이레 동안 가둔다. 다시 보고, 번지지 않았으면 또 이레, 그래도 그대로면 "정하다". 번졌거나 생살이 드러나면 "부정하다". 종기 자리·화상 자리·머리·이마로 같은 보기·기다리기·다시 보기가 반복된다. 부정 판정을 받은 자는 옷을 찢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진영 밖에 홀로 거한다. 이어 장면이 옷으로 옮겨가, 같은 격리·세탁·불사름이 반복되고 "이것이 규례다"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보고, 기다리고, 다시 보다"
- 초벌 부제: "관찰의 규례 — 색·깊이·번짐, 그리고 이레"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결의론 양식 + 진단 절차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질병 묘사는 절제(선정성 없이 절차·색·깊이만).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모두 기록됨 (무대·첫느낌·시작끝·인물·컷9개·의문·동영상·제목·기도)

드리프트 관찰

- tsara'at를 특정 병명(나병)으로 좁히지 않도록 주의 — "사람·옷·집에 두루 쓰이는 범주"까지만 기록.
- "부정/정결"을 도덕적 우열로 단정하지 않음. 제의적 구별의 절차로만 관찰.
- 질병·환부 묘사는 색·깊이·번짐 등 본문 어휘에 한정, 선정성 배제.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레위기 13장은 진단의 한 동작 — 보고, 기다리고, 다시 보고, 판정함 — 이 대상만 바꾸며 반복되는 규례다.

한 문단: 본문은 한 사람의 피부에서 시작해, 종기·화상·머리·이마, 그리고 옷까지 같은 절차를 반복한다. 핵심 변수는 "번졌는가"이고, 핵심 장치는 "이레의 격리"다. 제사장은 고치지 않고 다만 본다. 그 한 동작이 한 사람을 진영 안과 밖으로 가른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 진영 한켠, 제사장 앞 진단 자리. 소품 — 피부·탈·환부·생살·옷. 색(흰·붉은·누런)과 깊이가 관찰 기준. |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같은 절차 문장이 반복되는 차분하고 답답한 공기. 판정이 격리의 간격을 두고 한 박자 쉬어 내려진다. |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시작 — 한 사례("피부에 돋거든 제사장에게로", 2절). 끝 — 전체 규례 선언("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 59절). |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제사장(보는 자) + 환부를 가진 이름 없는 사람(보여지는 자). 유일한 발화는 45절 "부정하다 부정하다". 판정 기준은 감정이 아닌 관찰된 징표. |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9컷 — 피부·오래된 환부·종기·화상·머리/수염·흰 색점·대머리·부정자 처신·옷. |

|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핵심 변수 = 번짐(pasah). 역설 = 온몸이 희면 정함(13절). 정보 — tsara'at는 사람·옷·집에 두루 쓰이는 범주. |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 보다→격리(이레)→다시 보다→판정의 한 동작이 사람에서 옷까지 반복되는 흐름. |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 "보고, 기다리고, 다시 보다". 부제 — "관찰의 규례 — 색·깊이·번짐, 그리고 이레". |

|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 들여다보는 손이 있는 자리를 걸으며 아련다 — "서두르지 않고 보아 주심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반복되는 한 동작:** 대상은 피부에서 옷까지 바뀌지만 "보다→격리→다시 보다→판정"의 절차는 동일하다. 본문은 절차의 항상성으로 일관성을 만든다.
2. **결 2 — 이레의 간격:** 판정이 즉결되지 않고 시간을 두고 "번졌는가"를 본다. 가장 큰 무게가 기다림에 실려 있다.
3. **결 3 — 고치지 않는 손:** 제사장은 진단만 한다. 정결케 하는 예식은 다음 장으로 미뤄진다. 본문은 진단과 회복을 한 장에 합치지 않는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레 14장** (정결케 된 자의 예식, 진단의 후속). **레 15장** (또 다른 부정·정결 규례로 이어짐).
- 다른 권 — **민 12:10-15** (미리암의 7일 격리). **왕하 5장** (나아만). **마 8:1-4**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 13장 규례의 재호출).
- 정경 흐름 — 진단의 규례가 부정/정결의 구별을 진영 안과 밖이라는 공간으로 형상화한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환부 하나로 제사장 앞에 서는 한 사람의 자리에 멈춘다.
- **멈춤 1:** "이레 동안 가두라"의 간격에서 멈춘다 — 판정이 미뤄지는 시간.
- **멈춤 2:** 온몸이 희면 정하다는 역설(13절)에서 멈춘다.
- **멈춤 3:**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자기 입으로 외치는 처신(45절)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판정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들여다보는 손* 곁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진단의 한 동작이 대상만 바꾸며 반복된다
- [x] 핵심 변수는 번짐, 핵심 장치는 이레의 격리
- [x] 제사장은 고치지 않고 다만 본다
- [x] 온몸이 희면 정하다는 역설이 있다
- [x] 부정 판정자는 스스로 외치고 진영 밖에 거한다
- [x] tsara'at는 사람과 옷에 두루 쓰인다
- [x] 한 사례에서 시작해 규례 선언으로 닫힌다
- [x] 정결 예식은 14장으로 미뤄진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다시 봄.

미해결 질문

레위기 1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부분이 희면 부정인데 온몸이 다 희면 정한가?

- 13절: 환부가 온몸을 덮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희게 되면 "정하다".
- 본문은 이 역설의 까닭을 말하지 않음. 묵상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왜 사람·옷·집에 같은 단어 tsara'at를 쓰는가?

- 피부(2절~)·옷(47절~)·집(14:34~)이 한 단어로 묶임.
- 본문은 셋을 한 범주로 묶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음. 해석은 뒤로.

Q3. 격리(이레)의 횟수와 길이는 무엇이 결정하는가?

- 어떤 경우는 1회, 어떤 경우는 2회 격리. 본문은 사례별로 정할 뿐 일반 원리를 말하지 않음.

Q4. 제사장이 고치지 않고 보기만 하는 이유는?

- 치료·처방이 등장하지 않고 진단·판정만 있음. 정결 예식은 14장으로 미뤄짐.
- 진단자와 치료자의 분리가 의도된 것인지 본문은 말하지 않음.

Q5. 부정 판정자가 스스로 "부정하다" 외치는 처신의 결은?

- 45절: 옷 찢음·머리 휩·입술 가림·외침. 자기 입으로 자기 상태를 알림.
- 이 처신이 보호인지·표지인지·경고인지는 답하지 않고 보존.

Q6. "진영 밖 홀로 거함"의 결은?

- 46절: 부정한 동안 홀로, 진영 밖에서 거함.
- 격리의 결이 분리인지·기다림인지는 본문이 단정하지 않음. 답 없이 보존.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레위기 14장

LEV-014 · 오경 · 히브리어

진영 밖에서 부르심을 받고, 새 들·백향목·우슬초로 씻기며 안으로 돌아온다. 집에도 같은 진단의 손이 닿는다.

관찰된 사실

레위기 1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진영 "밖"에서 시작(2-3절), 점차 진영 안 → 장막 밖 이레 → 여드레째 회막 문으로 이동.
- 소품: 새 두 마리, 백향목(ets erez)·홍색 실(sheni tola'at)·우슬초(ezov), 질그릇, 흐르는 물(mayim chayyim), 후반엔 기름 한 록·어린 양·곡식.
- 두 새 중 하나는 잡고, 하나는 "살아 있는 새"(tsippor chayyah)로 들에 놓아줌.
- 후반 무대는 "집"(bayit) — 돌(even)·흙(afar)·벽이 소재. 혈기·빼내기·긋어내기.
- 우슬초는 출 12:22(유월절)·민 19장(정결수)과 겹치는 재료.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 장(보기·멈춤) 대비 동작이 많아진 공기 — 들고 움직이는 손들.
- "부정하다"에서 "정결케 하다"로 결이 역류. 진영 밖에서 안으로의 동선.
- 날수(첫째·일곱째·여드레째)가 단계를 시간으로 나눔.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2절: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 정결케 되는 한 사람에서 출발.
- 57절: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한지를 가르치는 것이니, tsara'at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 규례 요약으로 봉인.
- 13장(진단)과 14장(정결)이 같은 단어 tsara'at로 한 묶음으로 닫힘.

4 등장인물·사물·상황·사상

- 인물: 제사장(손을 많이 씻 — 피·기름 바름, 뿌림) / 정결케 되는 사람(옷 빨고, 털 밀고[gilach], 씻음).
- 몸 세 곳에 피·기름: 오른쪽 귀(ozen)·손 엄지(bohen yad)·발 엄지(bohen regel) — 레 8:23-24 위임식 과 동일 부위.
- 가난한 자를 위한 별도 규정(21-32절): 적은 예물로 같은 절차.
- 집의 경우: 판정 전 먼저 짐을 비우게 함(36절). 비우고→보고→판정의 순서.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9절): 진영 밖 첫 예식 — 새 들(하나 잡고 하나 놓음), 7회 뿌림, 이레 뒤 밀고 씻음
- 컷 2 (10-20절): 여드레째 — 어린 양·기름·곡식, 속건제(asham), 귀·엄지·발가락에 피·기름

- 컷 3 (21-32절): 가난한 자를 위한 규정
- 컷 4 (33-42절): 집의 환부 — 비움·관찰·이레 격리·돌 빼냄·흙 긁어냄
- 컷 5 (43-47절): 번지면 집을 헐어 진영 밖으로
- 컷 6 (48-53절): 번지지 않은 집의 정결 — 새·돌·물·우슬초(사람과 동일)
- 컷 7 (54-57절): 전체 규례 요약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taher(טהר) — 정결케 하다. 판정·예식 동사.
- tsippor chayyah(צִיפור חַיִּיָּה) — 살아 있는 새. 돌 중 놓아주는 한 마리.
- mayim chayyim(מַיִם חַיִּיִּם) — 흐르는 물('살아 있는 물').
- ets erez(עֵץ עֵרֶז) / sheni tola'at(חֹשֶׁת שֵׁנִי) / ezov(עֶזוֹב) — 정결 재료 묶음.
- asham(אָשָׁם) — 속건제.
- ozen·bohen yad·bohen regel — 귀·손 엄지·발 엄지(피·기름 바르는 세 곳).
- gilach(גִּילַח) / kavas(כָּבַס) — 정결 단계 동작.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결의론(casuistic) 법 양식 + 의례 순서(ritual sequence) — 첫째 날→일곱째 날→여드레째의 시간 단계.
- 사람의 정결(1-32)과 집의 정결(33-53)이 평행 — 새·돌·물·우슬초가 양쪽에 반복.
- 형편에 따른 이중 규정(10-20 / 21-32) — 같은 절차의 부유/빈한 두 길.
- 13장(진단)→14장(정결)의 한 단위, 57절 요약으로 봉인.

6 의문·발견·정보 — (3) ANE·제도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 정화 의례에서 새·피·물·식물 재료를 결합한 제의, '살아 있는' 표지(흐르는 물·산 새)의 사용 정황 (배경).
- 거주 공간(집)의 곰팡이·부식을 제의적 부정으로 다루는 정황 (배경, 해석 아님).
- 미쉬나 Nega'im이 정결 예식 세부를 정밀화 (참고, 해석 영역).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레 14 ↔ 레 13 (진단 — 14장의 전제)
- 레 14 ↔ 출 12:22 (우슬초로 피를 바름)
- 레 14 ↔ 민 19장 (붉은 암송아지·우슬목·흐르는 물)
- 레 14 ↔ 시 51:7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
- 레 14 ↔ 레 8:23-24 (위임식 — 귀·엄지·발가락에 피)
- 레 14 ↔ 마 8:4 / 막 1:44 / 눅 5:14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간다. 새 둘 중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에서 잡고, 백향목·홍색 실·우슬초와 산 새를 그 피에 적셔 일곱 번 뿌린 뒤 산 새를 들로 날린다. 그 사람은 옷을 빨고 털을 밀고 씻으며 진영 안으로

들어오되 장막 밖에서 이레를 머문다. 이레째에 다시 밀고 씻고, 여드레째에 회막 문으로 와 어린 양·기름·곡식을 드린다. 속건제의 피와 기름이 오른쪽 귀·엄지손가락·엄지발가락에 발린다. 형편이 어려운 자에게는 적은 예물로 같은 길이 열린다. 이어 같은 손이 집에 닿는다 — 비우고, 보고, 격리하고, 돌을 빼고 흙을 긁어내며, 번지면 헹고, 그치면 사람과 똑같이 새·돌·물·우슬초로 정결케 한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밖에서 안으로 — 씻기며 돌아오다"
- 초벌 부제: "새·돌·백향목·우슬초 — 복귀의 예식"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의례 순서 + 정화 재료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예식 묘사는 절차·재료에 한정.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모두 기록됨 (무대·첫느낌·시작끝·인물·컷7개·의문·동영상·제목·기도)

드리프트 관찰

- 새·돌·피·기름의 "상징적 의미"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 — "재료와 동작의 분포"까지만 기록.
- 가난한 자 규정을 도덕 교훈으로 단정하지 않음. "형편에 따른 이중 길"의 절차 관찰로만.
- 집의 tsara'at 원인을 추정하지 않음. 33절 표현은 의문으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레위기 14장은 진단 다음의 동작 — 진영 밖에서 씻기며 안으로 돌아오는 복귀의 예식 — 을 사람에게서 집까지 같은 재료로 반복한다.

한 문단: 본문은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는 데서 시작해, 새·돌·물·우슬초의 예식과 시간 단계(첫째·일곱째·여드레째)를 거쳐 회막 문까지 동선을 잇는다. 형편이 어려운 자에게는 적은 예물로 같은 길을 열고, 마지막엔 같은 손이 집에 닿는다. 13장의 진단과 한 묶음으로 닫힌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 진영 밖 → 장막 밖 → 회막 문 → 집. 소품 — 새·돌·백향목·홍색 실·우슬초·질그릇·흐르는 물·기름·어린 양. |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 장의 멈춤 대비 동작이 많은 공기. "부정"에서 "정결"로 결이 역류. 밖에서 안으로의 동선. |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시작 —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2절). 끝 — "정·부정을 가르치는 규례"(57절). 13~14장이 tsara'at로 한 묶음. |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제사장(피·기름 바름) + 정결케 되는 사람(밀고·빨고·씻음). 귀·엄지·발가락에 피·기름(레 8장과 동일 부위). 형편별 이중 규정. |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7컷 — 진영 밖 예식·여드레째 예물·가난한 자 규정·집 진단·집 혈기·집 정결·요약. |

|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새 둘 중 하나는 놓아줌. 사람과 집의 정결이 같은 재료로 평행. 정보 — 우슬초가 출 12·민 19와 겹침. |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 진영 밖→씻김→이레→여드레째 회막→형편별 길→집까지 같은 손이 닿는 흐름. |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 "밖에서 안으로 — 씻기며 돌아오다". 부제 — "새 둘·백향목·우슬초 — 복귀의 예식". |

|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 밖에서 안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걸으며 아된다 — "밖에 있던 자를 부르심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밖에서 안으로의 동선:** 예식은 진영 밖에서 시작해 회막 문까지 이어진다. 공간의 이동이 정결의 진행을 형상화한다.
2. **결 2 — 사람과 집의 평행:** 같은 새 둘·물·우슬초가 사람과 집 양쪽에 쓰인다. 본문은 정결의 동작을 거주 공간까지 확장한다.
3. **결 3 — 형편별로 열린 같은 길:** 풍족한 자와 빈한 자가 다른 예물로 같은 절차에 닿는다. 본문은 길을 둘로 열되 도착지를 하나로 둔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레 13장** (진단, 14장의 전제). **레 8:23-24** (위임식의 귀·엄지·발가락 피). **레 15장** (또 다른 정결 규례로 이어짐).
- 다른 권 — **출 12:22** (우슬초로 피). **민 19장** (정결수의 우슬목·흐르는 물). **마 8:4**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
- 정경 흐름 — 진단(13장)과 회복(14장)이 한 단위로 닫히며, 부정/정결의 구별이 공간의 안과 밖으로 형상화된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는 동선에 멈춘다.
- **멈춤 1:** 한 마리는 잡히고 한 마리는 날아가는 두 새(4-7절)에서 멈춘다.
- **멈춤 2:** 귀·엄지·발가락에 피와 기름이 발리는 세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형편이 어려운 자에게 같은 길이 열리는 21절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밖에 있던 자가 안으로 돌아온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밖에서 안으로 이어지는 동선* 위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예식이 진영 밖에서 시작해 회막 문까지 이어진다
- [x] 새 둘 중 하나는 잡고 하나는 놓아준다
- [x] 시간이 첫째·일곱째·여드레째로 나뉜다
- [x] 귀·엄지·발가락 세 곳에 피와 기름이 발린다
- [x] 형편에 따라 두 길이 같은 절차로 수렴한다
- [x] 사람과 짐이 같은 재료로 평행을 이룬다
- [x] 집을 판정 전에 먼저 비워진다
- [x] 13~14장이 한 규례로 닫힌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복귀.

미해결 질문

레위기 1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새가 들이며, 한 마리만 잡고 한 마리는 놓아주는가?

- 4-7절: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잡고, 산 새는 피에 적셔진 뒤 들로 놓임.
- 본문은 둘을 쓰는 까닭을 말하지 않음. 묵상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백향목·홍색 실·우슬초, 이 세 재료의 묶음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출 12·민 19에도 겹쳐 나오나, 본문은 재료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음.

Q3. 왜 오른쪽 귀·엄지손가락·엄지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바르는가?

- 레 8장 제사장 위임식과 같은 세 부위. 본문은 같은 부위를 쓰되 이유를 말하지 않음.

Q4. 형편에 따른 이중 규정이 같은 정결에 닿게 하는 결은?

- 10-20절(풍족)과 21-32절(빈한)이 같은 절차로 수렴. 이 평행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Q5. 집에 tsara'at가 생긴다는 33절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가?

- "가나안 땅에서... 집에 환부가 생기게 하거든" — 마치 예정된 듯한 어법. 본문은 까닭을 설명하지 않음.

Q6. 판정 전에 집을 먼저 비우게 하는 순서의 결은?

- 36절: 제사장이 보기 전 짐을 다 내게 함. 비움·관찰·판정의 순서가 의도된 것인지 본문은 단정하지 않음.
-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레위기 15장

LEV-015 · 오경 · 히브리어

몸에서 흐르는 것이 부정이 되고, 닿는 것마다 그 결이 번진다. 씻음과 이레의 기다림이 다시 정함으로 데려간다.

관찰된 사실

레위기 1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성소가 아니라 일상 공간 — 눕는 자리(mishkav)·앉는 자리(moshav)·집 안. 마지막에 성막(mishkan)과 한 번 연결됨(31절).
- 소품: 침상·안장·질그릇(kli cheres)·나무 그릇(kli ets), 그리고 씻는 물.
- 그릇 처리가 재료별로 다름: 질그릇은 깨뜨림, 나무 그릇은 씻음.
- 시간 표지가 "저녁"(erev) — 대부분의 경우 "저물도록 부정". 지속 사례는 이레(yamim shiv'ah)+여드레째 제사.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조심스러운 공기. 닿는 것마다 부정이 옮겨 가는 전이의 감각.
- "저물도록 부정하리라"의 반복이 끝이 정해진 차분함을 줌.
- 남자(앞)와 여자(뒤)가 거울처럼 마주 보는 대칭 인상.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2절: "누구든지 몸에 유출이 있으면... 부정한즉" — 한 경우의 선언으로 출발.
- 31절: "성막을 더럽히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 일상 규례를 성막과 한 번 연결.
- 32-33절: "유출이 있는 자... 불결을 앓는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 모든 경우 요약으로 봉인.

4 등장인물·사물·상황·사상

- 인물: 제사장은 거의 부재(제사 부분에만 잠깐). 주체는 유출이 있는 사람 자신.
- 네 경우: 남자의 비정상 유출(zav) / 남자의 정상 유출(shichvat zera) / 여자의 월경(niddah) / 여자의 비정상 유출(zovah).
- 닿은 사람·물건으로 부정이 전이(naga). 침·안장에까지 미침.
- 시간 두 층: 일시적 = 저녁까지 / 지속적 = 그친 날부터 이레, 여드레째 제사.
- 정상적 경우엔 제사 없음. 제사는 지속 사례(컷 1·5)에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5절): 남자의 비정상 유출 — 전이·그릇 처리·이레 후 제사 (긴 부분)
- 컷 2 (16-17절): 남자의 정상 유출 — 씻고 저녁까지 (짧은 부분)

- 컷 3 (18절): 남녀 동침 — 둘 다 씻고 저녁까지 (가운데 한 절)
- 컷 4 (19-24절): 여자의 월경(niddah) — 이레·전이 (짧은 부분)
- 컷 5 (25-30절): 여자의 비정상 유출 — 그친 후 이레·여드레째 제사 (긴 부분)
- 컷 6 (31절): 성막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 규례의 까닭
- 컷 7 (32-33절): 전체 규례 요약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zav(זָוַ) / zovah(זָוַה) — 유출 있는 남자 / 여자. 동일 어근의 성별 쌍.
- niddah(נִדְּחָה) — 월경.
- shichvat zera(שִׁיבַת זְרָעָה) — 정상 유출.
- naga(נָגַ) — 닿다. 전이의 동사.
- kavas(כָּבַד) / rachats(רָחַץ) — 정결 동작.
- kli cheres(קְלֵי חֶרֶס, 깨뜨림) / kli ets(קְלֵי אֵץ, 나무 그릇, 씻음).
- erev(עֶרֶב) / yamim shiv'ah(יָמֵי שִׁבְעָה) — 두 층의 시간 표지.
- mishkan(מִשְׁכָּן) — 31절, 일상 규례를 성막과 연결.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결의론(casuistic) 법 + 교차(chiastic) 대칭: 남자 긴 부분(1-15) ↔ 여자 긴 부분(25-30), 남자 짧은 부분(16-17) ↔ 여자 짧은 부분(19-24), 가운데 동침(18절)이 축.
- 두 층의 시간 구조: 저녁까지 / 이레+여드레.
- 전이의 연쇄: 사람→자리/물건→다른 사람.
- 일상(소품) → 성막(31절) → 규례 요약(32-33)의 봉인.

6 의문·발견·정보 — (3) ANE·제도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에서 신체 유출을 제의적 부정으로 다루고 격리·정화하는 정황 (배경).
- 토기 깨뜨림 vs 목기 씻음의 재료별 처리 구별 (배경, 해석 아님).
- 미쉬나 Zavim·Niddah가 규례를 별도 소논집으로 정밀화 (참고, 해석 영역).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레 15 ↔ 레 12장 (산후 정결 — 유사 시간 구조)
- 레 15 ↔ 레 13-14장 (다른 부정·정결 규례)
- 레 15 ↔ 레 18:19 / 20:18 (niddah 관련)
- 레 15 ↔ 삼하 11:4 (밧세바의 정결)
- 레 15 ↔ 마 9:20-22 / 막 5:25-34 / 눅 8:43-48 (혈루증 여인의 닿음)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한 남자에게 지속되는 유출이 있다. 그가 눕고 앉는 자리가 부정해지고, 그것을 만진 사람도 부정해진다. 그릇은 재료에 따라 깨지거나 씻기고,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뒤 여드레째 제사를 드린다. 정상적인 유출이면 그저 씻고 저녁까지다. 한가운데 한 절, 동침한 둘은 씻고 저녁까지. 거울처럼 여자 쪽으로 넘어가 월경이면

이레, 비정상적으로 길면 남자와 똑같이 이레+여드레째 제사를 거친다. 마지막 한 문장이 이 모든 일상을 성막과 묶는다 — "성막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 그리고 "이것이 규례다"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닿으면 옳고, 씻으면 돌아온다"
- 초벌 부제: "닿음·씻음·이레 — 그리고 성막을 향한 한 줄"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교차 대칭 구조 + 재료별 처리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유출 묘사는 선정성 없이 절제 — 정/부정 구별과 절차에 한정.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모두 기록됨 (무대·첫느낌·시작끝·인물·컷7개·의문·동영상·제목·기도)

드리프트 관찰

- 유출·신체를 도덕적 죄로 단정하지 않음 — 제의적 정/부정 구별로만 관찰.
- 유출 묘사는 본문 어휘에 한정, 선정성·과묘사 배제.
- 31절의 성막 연결을 신학 프레임으로 확장하지 않음 — "일상과 성막이 한 번 연결됨"까지만 기록, 까닭은 의문으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레위기 15장은 몸에서 흐르는 것을 닿음으로 번지는 부정과 씻음·시간으로 돌아오는 정함의 거울 구조로 다룬다.

한 문단: 본문은 남자의 유출에서 시작해 여자의 유출로 끝나며, 둘을 거울처럼 마주 세운다. 부정은 닿음으로 번지고, 그릇은 재료에 따라 깨지거나 씻기며, 회복은 "저녁까지" 또는 "이레+여드레째 제사"의 두 층으로 나뉜다. 마지막 한 문장이 이 모든 일상을 성막과 연결한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 일상 공간(침상·앉는 자리·집), 끝에 성막과 연결. 소품 — 질그릇(꺾)·나무 그릇(씻음)·물. 시간 표지 — 저녁. |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닿음으로 번지는 조심스러운 공기. "저물도록 부정"의 반복이 끝이 정해진 차분함. 남녀 거울 대칭. |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시작 — 한 경우의 선언(2절). 끝 — 성막 연결(31절) 뒤 규례 요약(32-33절). |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제사장 거의 부재, 주체는 유출 당사자. 네 경우(zav/정상/niddah/zovah). 닿음(naga)으로 전이. 시간 두 층. |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7컷 — 남자 긴 부분·남자 짧은 부분·동침(축)·여자 짧은 부분·여자 긴 부분·성막 연결·요약. |

|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전이가 침·안장에까지 미침. 정상 경우엔 제사 없음. 정보 — 질그릇 깎 vs 나무 그릇 씻음. |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 닿음으로 번지고, 씻음·시간으로 돌아오며, 끝에 일상이 성막과 묶이는 흐름. |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 "닿으면 옳고, 씻으면 돌아온다". 부제 — "닿음·씻음·이레 — 그리고 성막을 향한 한 줄". |

|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 일상의 자리들, 끝에 성막이 비치는 걸을 걸으며 아된다 — "가장 일상적인 자리에서도 나누시는 시선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거울 대칭:** 남자(앞)와 여자(뒤)가 긴 부분·짧은 부분으로 짝지어지고 동침(18절)이 한가운데 축이 된다. 본문은 구조 자체로 두 경우를 마주 세운다.

2. **결 2 — 두 층의 시간:** 일시적인 것은 "저녁까지", 지속적인 것은 "이레+여드레째 제사". 회복의 길이가 두 층으로 나뉜다.

3. **결 3 — 일상과 성막을 잇는 한 문장:** 침상·그릇·닿음의 규례 끝에 31절이 모든 것을 성막과 연결한다. 가장 일상적인 것이 가장 거룩한 곳과 한 줄로 묶인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레 12장** (산후 정결, 유사 시간 구조). **레 13-14장** (다른 부정·정결 규례). **레 16장** (속죄일 — 다음 장, 한 해의 정결).
- 다른 권 — **삼하 11:4** (정결의 때). **막 5:25-34** (혈루증 여인이 옷에 닿음 — 15장 규례의 배경).
- 정경 흐름 — 부정/정결의 구별이 일상의 닿음으로까지 확장되고, 마지막에 성막과 연결되어 다음 장(속죄일)으로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일상의 자리가 부정해지는 한 경우에 멈춘다.
- **멈춤 1:** 닿음이 침·안장·사람으로 번지는 전이에서 멈춘다.
- **멈춤 2:** 남자와 여자가 거울처럼 마주 서는 한가운데(18절)에서 멈춘다.
- **멈춤 3:** 일상을 성막과 잇는 31절의 한 문장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가장 일상적인 자리에서도 정함과 부정이 갈린다*는 걸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일상의 자리와 성막이 한 줄로 만나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남자와 여자의 규례가 거울처럼 대칭이다
- [x] 부정이 닿음으로 변진다
- [x] 회복이 저녁까지와 이레+여드레의 두 층이다
- [x] 질그릇은 깨고 나무 그릇은 씻는다
- [x] 정상적 경우엔 제사가 없다
- [x] 제사장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 [x] 31절이 일상을 성막과 연결한다
- [x] 한 경우에서 시작해 규례 요약으로 닫힌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정결.

미해결 질문

레위기 1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남자와 여자의 규례가 거울처럼 대칭으로 배열되는가?

- 긴 부분-짧은 부분이 양쪽에 짝지어지고 동침(18절)이 한가운데 축.
- 본문은 둘을 나란히 두되 배열의 까닭을 말하지 않음. 묵상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왜 질그릇은 깨고 나무 그릇은 씻는가?

- 재료별 처리 차이만 명시되고 까닭은 설명되지 않음.

Q3. 31절에서 일상 규례가 성막과 연결되는 결은?

- 일상 물건-닿음 이야기 끝에 "성막을 더럽히고 죽지 않게"가 한 번 등장.
- 일상과 성막의 연결 까닭을 본문은 풀어 말하지 않음.

Q4. 정상적 유출과 비정상적 유출의 회복 차이는 무엇이 가르는가?

- 일시적 = 저녁까지, 지속적 = 이레+여드레째 제사. 경계의 기준을 본문은 일반화하지 않음.

Q5. 닿음의 전이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 침·안장·만진 사람에게까지 미침. 전이의 한계선을 본문은 사례로만 둬.

Q6. 정상적 경우에 제사가 없는 까닭은?

- 제사는 지속 사례(컷 1·5)에만 등장. 일시적 경우엔 씻음과 저녁으로 충분.
- 제사의 유무를 가르는 결을 본문은 단정하지 않음. 답 없이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레위기 16장

LEV-016 · 오경 · 히브리어

한 해에 한 번, 한 사람이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두 염소 중 하나는 피로, 하나는 광야로. 진영 한가운데가 가장 깊이 다뤄지는 날.

관찰된 사실

레위기 1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 평소 닫힌 휘장(paroketh) 안, 지성소(qodesh haqodashim), 궤 위 속죄소(kapporeth). 1절이 두 아들의 죽음(레 10장)과 함께 무대를 엮.
- 소품: 흰 세마포 옷(bigdei vad)·향로·향연기(anan ha-ketoreth)·피·수송아지(par)·두 염소(sa'ir).
- 시간 못 박힘: "일곱째 달 열흘날", "일년에 한 번"(achat ba-shanah).
- 광야(midbar) = 한 염소가 보내질 곳, 본문은 "격리된 땅"(eretz gezerah)이라 부름.
- 70인역: kapporeth → ἱλαστήριον(롬 3:25·히 9:5 재등장), la-Azazel → '보내 버릴 것에게'.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첫 절의 죽음으로 무게가 들어오는 공기. "일년에 한 번"의 희소함.
- 향연기가 차오르는 시각적 인상.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동선.
- 두 염소가 제비로 갈리는 장면, "아사셀"이라는 음역어가 귀에 남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두 아들의 죽음 + "아무 때나 성소에 들어오지 말라" — 금지로 출발.
- 34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일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 허락된 한 때로 봉인.
- "일년에 한 번"이 2절 부근과 34절에 걸쳐 수미상관을 이룸.

4 등장인물·사물·상황·사상

- 인물: 거의 아론 한 사람("아론은..."의 반복). 다른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의 동작.
- 짐승 셋: 아론을 위한 수송아지 1, 백성을 위한 염소 2(제비로 갈림).
- 두 염소: 제비(goral)로 "여호와와 의 것"(속죄제)과 "아사셀의 것"(산 채 광야로)으로 분리.
- 산 염소에 두 손 없음(semichah) + 허물 고백 → 광야로 보냄.
- 백성의 참여 = 동작이 아니라 멈춤과 자기 낮춤(innah nefesh, 29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절): 죽음의 배경 + 진입 금지
- 컷 2 (3-5절): 준비 — 흰 세마포·씻음·짐승
- 컷 3 (6-10절): 두 염소를 제비로 가름

- 컷 4 (11-14절): 아론을 위한 수송아지, 향연기로 가린 채 속죄소에 피 뿌림
- 컷 5 (15-19절): 백성의 염소 피로 성소·회막·제단 정결
- 컷 6 (20-22절): 산 염소에 손 얹고 고백, 광야로 보냄
- 컷 7 (23-28절): 옷 벗고 씻음, 번제, 영문 밖 불사름
- 컷 8 (29-34절): 백성의 안식·자기 낮춤, "일년에 한 번" 영원한 규례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kipper(כִּפֵּר) — 속죄하다.
- kapporeth(כַּפֹּרֶת) — 속죄소. 70인역 ἱλαστήριον.
- qodesh haqodashim — 지성소('거룩한 것 중의 거룩한 것').
- paroketh(휘장) / sa'ir(염소) / par(수송아지).
- goral(제비) / semichah(손 얹음, 어근 samakh).
- Azazel(아사셀) — 본문이 설명하지 않는 음역어.
- innah nefesh(자기를 괴롭게 함) / shabbat shabbaton(안식 중의 안식).
- eretz gezerah(격리된 땅) — 광야의 별칭.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중심 배치: 가장 깊은 진입(컷 4·5)이 장의 한가운데, 준비(컷 2·3)와 마무리(컷 7·8)가 감쌌.
- 두 염소의 평행: 같은 백성의 속죄가 둘로 나뉘어 하나는 피, 하나는 광야.
- "일년에 한 번"의 inclusio(양끝).
- 씻음의 반복: 들어가기 전·나온 후. 흰 세마포 옷의 단순함.

6 의문·발견·정보 — (3) ANE·제도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공동체의 부정·재앙을 짐승·물건에 실어 바깥/광야로 보내는 추방 의례 정황 (배경).
- 지성소 진입을 특정 시점·특정 인물로 제한하는 제의적 공간 위계 (배경, 해석 아님).
- 미쉬나 Yoma가 속죄일 전 과정을 별도 소논집으로 상세화 (참고, 해석 영역).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레 16 ↔ 레 10:1-2 (나답·아비후의 죽음 — 16:1이 다시 언급)
- 레 16 ↔ 출 30:10 (속죄소 위 일년에 한 번)
- 레 16 ↔ 레 23:26-32 (속죄일을 절기로 규정)
- 레 16 ↔ 민 29:7-11 (속죄일 제물)
- 레 16 ↔ 히 9:1-14 (지성소·휘장·피), 히 13:11-12 (영문 밖 불사름)
- 레 16 ↔ 롬 3:25 (hilastērion)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두 아들이 죽은 무거운 배경에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말씀이 시작된다. 아론은 씻고 흰 세마포를 입는다. 회막 문에서 두 염소를 제비로 가르다 — 여호와와 아사셀의 것. 먼저 자기를 위한 수송아지를 잡고, 향연기로 속죄소를 가린 채 그 피를 뿌린다. 다시 나와 백성의 염소 피로 성소·회막·제단을 정결케 한다.

살아 있는 염소에 두 손을 얹어 백성의 허물을 고백하고, 그 염소를 끊긴 땅 광야로 보낸다. 아론은 옷을 벗고 씻고 번제를 드리며, 나머지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그날 온 백성은 멈추고 스스로 낮춘다. 한 해에 한 번, 그렇게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한 해에 한 번, 가장 안쪽으로"
- 초벌 부제: "휘장 안과 광야 — 한 날의 두 방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이상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중심 배치 구조 + 추방 의례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아사셀·손 얹음의 의미"는 해석으로 보류, 동작·분포만 기록.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모두 기록됨 (무대·첫느낌·시작끝·인물·컷8개·의문·동영상·제목·기도)

드리프트 관찰

- "아사셀"의 정체(장소/존재/이름)를 추정하지 않음 — 음역어로 보존, 70인역 차이만 배경 기록.
- 두 염소·손 얹음·향연기를 신학적 상징(대속·전가 등)으로 단정하지 않음 — 동작과 분포까지만.
- 속죄일을 신약 본문으로 곧장 환원하지 않음 — 교차 참조 노트로만 표시, 해석은 목상으로 이월.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레위기 16장은 한 해에 한 번, 한 사람이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고 두 염소가 피와 광야로 갈리는 한 날의 규례다.

한 문단: 본문은 두 아들의 죽음과 진입 금지로 열리고, 흰 세마포·향연기·피·두 염소·손 얹음·광야의 동작을 거쳐, "일년에 한 번"의 영원한 규례로 닫힌다. 가장 깊은 진입이 장의 한가운데에 놓이고, 백성은 멈춤과 자기 낮춤으로 참여한다. 앞의 정결 규례들이 이 한 날로 모인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 평소 닫힌 휘장 안 지성소·속죄소. 소품 — 흰 세마포·향연기·피·수송아지·두 염소. 시간 — 일곱째 달 열흘, 일년에 한 번. 광야(끊긴 땅)가 배경. |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첫 절의 죽음으로 들어오는 무게, "일년에 한 번"의 희소함, 향연기와 두 염소의 인상. |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시작 — 죽음의 배경 + 진입 금지(1-2절). 끝 — "일년에 한 번"의 영원한 규례(34절). 양끝의 inclusio. |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거의 아론 한 사람. 짐승 셋(수송아지 1·염소 2). 두 염소가 제비로 갈림. 산 염소에 손 얹음. 백성은 멈춤(innah nefesh)으로 참여. |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8컷 — 금지·준비·제비·아론의 피·백성의 피·산 염소·마무리·백성의 안식. 진입이 중심. |

|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두 염소의 갈림, "아사셀"의 정체, 향연기의 가림, 일년에 한 번. 정보 — kapporeth → hilastērion. |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고, 한 염소는 피·한 염소는 광야로, 온 백성이 멈추는 하루의 흐름. |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 "한 해에 한 번, 가장 안쪽으로". 부제 — "휘장 안과 광야 — 한 날의 두 방향". |

|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 한 사람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한 염소가 멀어지는 하루를 걸으며 아뢴다 — "가장 깊은 곳이 다뤄지는 하루를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가장 안쪽의 진입:** 평소 닫힌 휘장 안이 일년에 한 번 열린다. 본문은 진입의 희소함과 위험(죽음의 배경)을 함께 둔다.
2. **결 2 — 두 염소의 두 방향:** 같은 백성의 속죄가 피(여호와와의 것)와 광야(아사셀의 것)로 갈린다. 하나의 일이 두 방향으로 보여진다.
3. **결 3 — 백성의 멈춤:** 백성은 동작하지 않고 멈추며 자기를 낮춘다. 가장 큰 일이 일어나는 날의 참여가 멈춤이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레 10:1-2 (두 아들의 죽음, 16:1의 배경). 레 23:26-32 (속죄일을 절기로). 레 15:31 (앞장이 성막의 더럽힘을 경고하며 이 날로 이어짐).
- 다른 권 — 출 30:10 (속죄소 위 일년에 한 번). 히 9:1-14 (지성소·휘장·피). 히 13:11-12 (영문 밖 불사름).
- 정경 흐름 — 레위기 한가운데 놓인 이 장으로 앞의 정결 규례들이 모이고, 신약(히브리서·로마서)이 같은 단어로 이 날을 다시 읽는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두 아들의 죽음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금지에 멈춘다.
- 멈춤 1: 두 염소가 제비로 갈리는 순간(8절)에서 멈춘다.
- 멈춤 2: 향연기가 속죄소를 덮는 가장 안쪽(13절)에서 멈춘다.
- 멈춤 3: 산 염소가 끓인 땅으로 멀어지는 장면(22절)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한 해에 한 번 가장 안쪽이 다뤄진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휘장 안과 광야, 한 날의 두 방향* 사이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평소 닫힌 가장 안쪽이 일년에 한 번 열린다
- [x] 거의 아론 한 사람의 동작이다
- [x] 두 염소가 제비로 갈려 피와 광야로 향한다
- [x] 산 염소에 손을 얹어 허물을 고백하고 보낸다
- [x] 대제사장이 흰 세마포만 입고 거듭 씻는다
- [x] 백성은 멈춤과 자기 낮춤으로 참여한다
- [x] 가장 깊은 진입이 장의 한가운데 놓인다
- [x] 죽음·금지로 열려 "일년에 한 번"으로 닫힌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한 번.

미해결 질문

레위기 1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아사셀"(Azazel)은 무엇인가?

- 8·10·26절에 세 번 등장하나 본문은 정체를 밝히지 않음. 70인역은 '보내 버릴 것'으로 기능화.
- 장소·이름·존재 중 무엇인지 본문은 답하지 않음. 묵상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왜 두 염소로 나누는가?

- 같은 백성의 속죄가 하나는 피(여호와와의 것), 하나는 광야(아사셀의 것)로 갈림.
- 하나의 일을 둘로 나눠 보이는 까닭을 본문은 설명하지 않음.

Q3. 향연기가 속죄소를 "가려" 보호한다는 결은?

- 13절: 향연기가 속죄소를 덮어 "죽지 않게" 함. 가림이 어떻게 보호가 되는지 본문은 풀지 않음.

Q4. 왜 일년에 단 한 번인가?

- 다른 제사는 수시이나 이 진입만 "일년에 한 번"으로 못 박힘. 그 희소함의 까닭을 본문은 일반화하지 않음.

Q5. 가장 높은 날에 가장 단순한 흰 세마포 옷을 입는 까닭은?

- 평소의 화려한 대제사장 복장이 아니라 흰 세마포. 옷의 단순함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본문은 말하지 않음.

Q6. 백성의 참여가 "멈춤과 자기 낮춤"인 결은?

- 29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innah nefesh). 능동의 동작이 아닌 멈춤으로 참여하는 결을 본문은 단정하지 않음. 답 없이 보존.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레위기 17장

LEV-017 · 오경 · 히브리어

모든 잡는 일을 한 문으로 모으고, 피는 먹지 말라 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가 그 한가운데 박힌다.

관찰된 사실

레위기 1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두 공간이 마주 섬: "들"(sadeh, 진영 밖 노천) vs "회막 문"(ohel moed). 들에서 잡던 것을 한 문으로 모음.
- 소품: 잡는 짐승(소·양·염소), 피(dam), 제단(mizbeach), 흙(afar).
- 7절의 se'irim(들양·숫염소 형상) — 70인역 τοῖς ματαίοις('헛된 것들'). 본문은 정체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음.
- 대상에 거류민(ger)이 반복 포함됨.
- 사냥한 짐승의 피는 흙으로 덮음(kissah ... afar).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단호한 공기 — "~하지 말라", "끊어지리라"의 거듭됨.
- 짧은 장에 "피"(dam)가 반복되며 한 단어가 계속 돌아옴.
- 명령들 한가운데 까닭("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11절)이 한 번 박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3-4절: 짐짐승을 회막 문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자는 "끊어지리라" — 도살 장소 규정으로 출발.
- 16절: 빨지 않거나 씻지 않으면 "죄를 담당하리라" — 정결의 책임으로 봉인.
- "끊어지리라"(kareth)·"죄를 담당하리라"가 양끝과 사이에 거듭 걸림.

4 등장인물·사물·상황·사상

- 대상이 넓음: "이스라엘 집의 누구든지" + 거류민(ger). 특정 인물이 아닌 모두.
- 제사장은 제단에 피를 뿌리는 동작으로만 잠깐(6절). 주체는 잡는 사람들 전체.
- 네 갈래: 짐짐승 도살 / 들의 se'irim에게 드리던 일 / 피를 먹는 경우 / 사냥·자연사한 것.
- 공통 축 = 피의 처리: 먹지 말라, 제단에 두라/흙으로 덮으라.
- 11절 까닭(motivation clause):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속죄하느니라."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7절): 짐짐승 도살은 회막 문으로 — 들의 se'irim 금지
- 컷 2 (8-9절): 회막 문 밖 제물도 끊어짐 (거류민 포함)

- 컷 3 (10-12절): 피를 먹지 말라 —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11절, 중심)
- 컷 4 (13-14절): 사냥한 짐승·새의 피는 쏟고 흠으로 덮음 — 까닭 반복
- 컷 5 (15-16절): 자연사·찢긴 것을 먹은 자의 정결 — 빨고 씻음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dam(דָּם) — 피.
- nefesh(נֶפֶשׁ) — 생명/목숨. 11절·14절에서 피와 묶임. 70인역 ψυχή.
- shachat(שָׁחַט) — 잡다·도살하다.
- ohel moed(회막) / mizbeach(제단).
- kareth(כָּרַע) —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 se'irim(들양·숫염소 형상) — 70인역 τοῖς ματαίοις.
- kissah ... afar(흠으로 덮다) / kipper(속죄하다) / ger(거류민).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결의론(casuistic) 법 + 중심 진술(central statement): 11절이 장의 한가운데에 까닭으로 박힘.
- 피·생명(dam·nefesh)의 반복이 모든 컷의 공통 축.
- "끊어지리라"(kareth) 후렴의 반복.
- 대상의 확장: 이스라엘 + 거류민(ger)이 동일하게 묶임.

6 의문·발견·정보 — (3) ANE·제도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들·노천 도살이 특정 신격·정령에게 바쳐지던 정황 (배경).
- 피를 생명의 자리로 보아 먹기를 금하거나 특별히 다루는 관념 (배경, 해석 아님).
- 미쉬나 Chullin이 일상(세속) 도살과 피 처리를 다룸 (참고, 해석 영역).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레 17 ↔ 창 9:4 (노아 — 피째 먹지 말라)
- 레 17 ↔ 레 3:17 / 7:26-27 (기름·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끊어짐)
- 레 17 ↔ 신 12:15-16,20-25 (흠어진 뒤 도살 허용·피 금령)
- 레 17 ↔ 레 16장 (속죄일 — 피로 속죄)
- 레 17 ↔ 행 15:20,29 (피를 멀리하라), 히 9:22 (피흘림 없이 사함 없음)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들에서 짐승을 잡던 손들이 한 문으로 모인다. 소·양·염소를 회막 문으로 끌어와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들의 헛된 것들에게 드리던 일은 끊어진다. 회막 문 밖에서 제물을 드리는 자도, 이스라엘이든 거류민이든 끊어진다. 장의 한가운데에서 까닭이 한 번 밝혀진다 — "피는 먹지 말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제단에 두어 속죄하게 하였다." 사냥한 짐승의 피는 쏟고 흠으로 덮는다. 자연사·찢긴 것을 먹은 자는 옷을 빨고 몸을 씻으며, 씻지 않으면 죄를 담당한다. 그렇게 닫힌다.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별 제목: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 초벌 부제: "흠어진 도살을 한 곳으로 — 피를 함부로 두지 않는 규례"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중심 진술 구조 + 노천 도살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피가 속죄한다"의 신학 풀이는 목상으로 보류.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모두 기록됨 (무대·첫느낌·시작끝·인물·컷5개·의문·동영상·제목·기도)

드리프트 관찰

- 11절 "피가 속죄한다"를 신약 속죄론으로 곧장 환원하지 않음 — 교차 참조 노드로만 표시, 해석은 목상으로.
- se'irim의 정체를 단정하지 않음 — 70인역 차이만 배경 기록, 의문으로 보존.
- 도살·피를 잔혹하게 묘사하지 않음 — "잡다·피·흠으로 덮음"의 절차 어휘에 한정.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레위기 17장은 모든 도살을 한 문으로 모으고 피를 함부로 두지 말라는 명령의 한가운데에 "생명은 피에 있다"는 까닭 하나를 박는다.

한 문단: 본문은 들의 도살을 회막 문으로 집중시키고, 피를 먹지 말며, 제단에 두거나 흠으로 덮으라 명한다. 그 명령들 사이 11절에 까닭이 한 번 박힌다 —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대상은 이스라엘과 거류민 모두이며, 앞 장(속죄일)의 피가 일상으로 이어진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 들(노천) vs 회막 문. 소품 — 잡는 짐승·피·제단·흠. 7절 se'irim(70인역 '헛된 것들'). 거류민 포함. |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단호한 공기("~하지 말라"·"끊어지리라"). 짧은 장에 "피"가 반복. 명령 한가운데 까닭이 한 번 박힘. |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시작 — 회막 문 도살 규정(3-4절). 끝 — 정결의 책임(16절). "끊어지리라"가 거듭 걸림. |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대상이 넓음(이스라엘+거류민). 제사장은 6절에 잠깐. 네 갈래가 모두 피의 처리로 모임. 11절 까닭. |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5컷 — 집짐승 도살·문 밖 제물·피 금령(중심)·사냥한 피·정결. 11절이 한가운데. |

|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피·생명이 거의 같은 말로 묶임. 도살 집중의 까닭. 정보 — 신 12장이 같은 피 금령을 상황 바꿔 반복. |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 흩어진 도살이 한 문으로 모이고, 피 금령 한가운데 까닭이 박히며, 피를 제단·흠에 두는 흐름. |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부제 — "흩어진 도살을 한 곳으로 — 피를 함부로 두지 않는 규례". |

|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 흩어진 손들이 한 문으로 모이고 한가운데 한 문장이 박히는 걸을 걸으며 아뢴다 — "명령들 한가운데 까닭을 두신 걸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한 문으로의 집중:** 흩어진 도살이 회막 문 한 곳으로 모인다. 본문은 일상의 행위를 한 자리로 끌어 모은다.
2. **결 2 — 한가운데 박힌 까닭:** 명령들 사이 11절이 "생명은 피에 있다"는 까닭을 한 번 둔다. 구조의 중심에 이유가 놓인다.
3. **결 3 — 피를 함부로 두지 않음:** 제단에 두든 흠으로 덮든, 피는 늘 특별히 처리된다. 본문은 피의 처리에 일관성을 둔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레 16장** (속죄일의 피, 17장의 일상으로 이어짐). **레 3:17 / 7:26-27** (피·기름 금령). **레 18장** (이어지는 거룩 규례).
- 다른 권 — **창 9:4** (피째 먹지 말라, 노아). **신 12:15-25** (흩어진 뒤의 도살과 피 금령). **행 15:20,29** (피를 멀리하라). **히 9:22** (피흘림 없이 사함 없음).
- 정경 흐름 — 속죄일(16장)의 피가 17장에서 일상의 도살로 내려오고, 같은 피 금령이 창세기에서 사도행전까지 반복된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들의 도살이 한 문으로 모이는 동선에 멈춘다.
- **멈춤 1:** 들의 헛된 것들에게 드리던 일이 끊어지는 7절에서 멈춘다.
- **멈춤 2:** 명령 한가운데 박힌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11절)에서 멈춘다.
- **멈춤 3:** 사냥한 피를 흠으로 덮는 14절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명령 한가운데 까닭 하나가 박힌다*는 걸을 손에 쥐는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흩어진 것이 한 곳으로 모이고 중심에 한 문장이 놓이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모든 도살이 회막 문 한 곳으로 모인다

- [x]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거듭된다
- [x] 11절이 명령 한가운데 까닭으로 박힌다
- [x] 생명과 피가 거의 같은 말로 묶인다
- [x] 제단에 못 가져오는 피도 흠으로 덮는다
- [x] 이스라엘과 거류민이 동일하게 묶인다
- [x] "끊어지리라"가 후렴처럼 반복된다
- [x] 도살 규정에서 시작해 정결의 책임으로 닫힌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피.

미해결 질문

레위기 1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모든 도살을 회막 문 한 곳으로 모으라 하는가?

- 3-7절: 들에서 잡지 말고 회막 문으로 끌어오라. 7절의 우상 언급 외에 집중의 까닭을 본문은 자세히 풀지 않음.
- 묵상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7절의 se'irim은 무엇인가?

- 들에서 그것에게 드리던 일을 "음란하게 섬겼다"고 표현. 정체를 본문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음. 70인역은 '헛된 것들'로 풀.

Q3. "생명이 피에 있다"는 11절은 어떤 결인가?

- 명령 한가운데 박힌 까닭. 생명·피·속죄가 한 문장에 묶임. 그 관계의 깊이를 본문은 선언으로만 두고 풀지 않음.

Q4. 레 17장(회막 문 집중)과 신 12장(흠어진 뒤 허용)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 같은 피 금령이 상황을 바꿔 다시 나옴. 두 본문의 관계를 본문 자체는 설명하지 않음.

Q5. 제단에 못 가져오는 피도 흠으로 덮으라는 결은?

- 13-14절: 사냥한 짐승의 피는 쏟고 흠으로 덮음. 제단이든 흠이든 피를 함부로 두지 않는 일관성의 까닭을 본문은 단정하지 않음.

Q6. 거류민(ger)이 같은 규례에 묶이는 결은?

- 이스라엘과 거류민이 동일하게 끊어짐·정결의 책임을 짐. 이 동일 적용의 결을 본문은 명령으로만 두고 풀지 않음. 답 없이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레위기 18장

LEV-018 · 오경 · 히브리어

두 풍속 사이에 선 무대. 금령의 목록을 "나는 여호와니라"가 양쪽에서 감싼다.

관찰된 사실

레위기 1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두 땅 사이 — 떠나온 애굽과 들어갈 가나안(3절). 백성은 아직 가나안 진입 전.
- "풍속"이 chuqqot(규례/관습). 애굽·가나안의 chuqqot vs 여호와의 chuqqot의 대조 구도.
- 소품다운 물건은 거의 없고, 후반에 "땅"(erets)이 주어로 등장 — 25절 "땅이 그 거민을 토하여 내었느니라".
- 21절에 친족 조항 사이로 "몰렉"(Molech) 제의 금령이 끼어듦. 70인역은 "통치자"(ἄρχων)로 옮기기도 함.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단호한 명령조의 목록. 그러나 "나는 여호와니라"가 사이사이 끼어들어 곁에 누가 있는 인상.
- 1-5절(서문) → 6-23절(목록) → 24-30절(경고)로 톤이 세 번 바뀜.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2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로 본론을 엮.
- 30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로 닫음. 동일 문장의 수미상관.
- 시작 직후 3절(애굽·가나안 풍속 금지)과 끝 24-30절(가증한 풍속 경고)이 짝.
- 정형구가 양 끝뿐 아니라 4·5·6·21절에도 박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말하는 분: 여호와 한 분(1절). 모세는 전달자, 듣는 쪽은 이스라엘 자손.
- 6-18절: 가까운 친족(qarov basar, 살붙이)을 하나씩 호명 — 아버지·어머니·계모·자매·손녀·고모·이모·며느리 등.
- 금령 정형구: "ervah(하체)를 galah(드러내다)하지 말라" — 직역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 19-23절: 친족 밖 금령 — 월경 중 여인·이웃의 아내·몰렉·동성·짐승.
- 22절부터 "가증한 것"(toevah) 등장, 26-30절 경고에서 재반복.
- 금령마다 긴 이유 설명 없음. 동기는 "나는 여호와니라"에 매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절): 서문 — 두 땅의 풍속 금지, 여호와의 규례, "이를 행하면 살리라"
- 컷 2 (6-18절): 친족 금령 목록 — "살붙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반복

- 컷 3 (19-23절): 친족 밖 금령 — 월경·이웃의 아내·몰렉·동성·짐승, "가증한 것"
- 컷 4 (24-30절): 경고 — 땅이 거민을 토해 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 액자 구조: 컷 1·4(정형구)가 컷 2·3(목록)을 감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ani YHWH(אֲנִי יְהוָה) — "나는 여호와니라". 2·4·5·6·21·30절 동기절.
- chuqqot(חֻקֹּת) — 규례/관습/풍속. 애굽·가나안 vs 여호와와의 대조.
- ervah(עֲרֵוָה) — 하체/벌거벗음. 금령 정형구의 핵심어.
- galah(גָּלָה) — 드러내다/벗기다. ervah와 짝.
- qarov basar(קָרוֹב בָּשָׂר) — '살붙이', 가까운 친족(6절).
- toevah(תּוֹעֵבָה) — 가증한 것. 22·26·27·29·30절.
- Molech(מֹלֶךְ) — 21절. 70인역은 ἄρχων으로 의미역.
- vachai bahem(5, וַחַי בָּהֶם) — "그것들로 살리라". 갈 3:12·롬 10:5에 인용.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액자(inclusio) — "나는 여호와니라"가 2절·30절 양 끝, 그리고 중간(4·5·6·21절)에도 박힘.
- 서문(1-5)과 경고(24-30)가 짝, 목록(6-23)이 그 안에 들어감.
- 친족 금령(6-18)의 정형구 반복: "ervah를 galah하지 말라".
- "가증한 것"(toevah)이 22절부터 경고까지 이어지는 후렴.
- 18장(금령)과 20장(형벌)이 짝 — 18장엔 형벌 규정이 거의 없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 친족 혼인·계대 관습은 문화마다 달랐고, 본문은 "애굽·가나안 풍속을 따르지 말라"로 거리를 둠.
- 몰렉 제의(자녀를 불에 지나가게 함)가 주변 문화에 보고됨. 본문은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금령만 둠.
- "땅이 거민을 토해 낸다"는 표현은 땅을 도덕적 주체처럼 그리는 화법.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레 18 ↔ 레 20:10-21 (동일 금령의 형벌 규정 짝)
- 레 18:2,30 ↔ 출 6:6-7 ("나는 여호와니라" 정형구)
- 레 18:5 ↔ 갈 3:12 · 롬 10:5 ("이를 행하면 살리라" 인용)
- 레 18:3 ↔ 신 12:31 (가증한 풍속)
- 레 18 ↔ 겔 33:25-26 (ervah·피 금령 회상)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한 음성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선 뒤, 떠나온 애굽과 들어갈 가나안 두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 규례를 지키라 한다. 이어 가까운 살붙이를 하나씩 호명하며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가 후렴처럼 반복되고, 목록 끝에 결이 다른 조항들(월경·이웃의 아내·몰렉·동성·짐승)이 붙으며 "가증한 것"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다. 톤이 경고로 바뀌어, 이런 일로 땅이 더러워져 거민을 토해 냈다고 한다. 마지막에 같은 음성이 돌아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로 처음 자리에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 초벌 부제: "금령의 목록을 양쪽에서 감싸는 같은 이름"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배경 + 액자 구조 + 18/20장 짝)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도덕 단정·선정성 없이 금령의 구조·반복만 관찰.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8:22:23절의 성적 금령은 도덕 단정·선정성 없이 본문의 금령 구조·반복만 관찰 → 내용 평가는 보류.
- 21절 물렉 조항의 배치는 해석으로 번지지 않도록 "끼어둠"의 관찰까지만.
- 5절 "이를 행하면 살리라"는 신약 인용과 연결되나 관찰에서는 교차 참조 노드로만 표시.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레위기 18장은 긴 금령의 목록이 아니라, 그 목록을 "나는 여호와니라"가 앞뒤로 감싸고 중간에도 박아 넣은 한 액자다.

한 문단: 본문은 두 땅 사이에 선 백성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로 열고, 떠나온 애굽과 들어갈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한다. 그 뒤에 가까운 살붙이를 하나씩 호명하는 금령이 후렴처럼 반복되고, 친족 밖 조항과 "가증한 것"이 더해진다. 끝에서 땅이 거민을 토해 냈다는 경고로 톤이 바뀌고, 처음 썼던 같은 음성으로 닫힌다. 목록의 무게는 조항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것을 두른 같은 이름의 반복에 실려 있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두 땅 사이(애굽·가나안, 3절). 소품다운 물건은 적고 "땅"이 후반에 주어로 등장 (25절). 목록 가운데 몰렉 조항(21절)이 끼어듦.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단호한 명령조이나 "나는 여호와나라"가 사이사이 끼어 곁에 누가 있는 인상. 서문 →목록→경고로 톤이 세 번 바뀜.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나라"(2절). 끝 — 동일 문장(30절). 수미상관, 그리고 4·5·6·21절에도 박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말하는 분은 여호와 한 분. 6-18절 친족 호명, 정형구 "ervah를 galah하지 말라". 19-23절 친족 밖 금령, "toevah" 등장.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서문(1~5). 컷 2 친족 금령(6~18). 컷 3 친족 밖 금령(19~23). 컷 4 경고 (24~30). 1·4가 2·3을 감싸는 액자.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나는 여호와나라"가 목록을 두름. 땅이 주어진 까닭(25절). 몰렉 조항의 배치(21절). 정보 — 18장(금령)·20장(형벌)의 짝, 5절이 갈 3:12·롬 10:5에 인용.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음성이 서고→두 땅의 풍속 금지→친족 호명의 후렴→친족 밖 조항·가증한 것→땅이 토해 념의 경고→같은 음성으로 닫힘.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나라". 초벌 부제 — "금령의 목록을 양쪽에서 감싸는 같은 이름".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두 땅 사이의 자리에 서서 멈춘다. 주께 아뢴다 — "차가운 목록을 감싸던 그 이름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목록을 두른 이름:** "나는 여호와나라"가 2·4·5·6·21·30절에 박혀, 조항보다 정형구가 더 일정하게 반복된다. 금령의 무게가 이름 쪽으로 실린다.
2. **결 2 — 두 땅 사이:** 떠나온 애굽도, 들어갈 가나안도 아닌 자리에 백성이 선다. 본문은 그 둘 사이에서 다른 규례를 둔다.
3. **결 3 — 주어가 된 땅:** 25절에서 땅이 거민을 토해 낸다. 사람의 행위에 땅이 반응하는 화법이 경고를 닫는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레 20:10-21 (같은 금령의 형벌 규정 짝). 레 19 (성결법의 핵심, 다음 장).
- 다른 권 — 출 6:6-7 ("나는 여호와나라" 정형구의 출처). 갈 3:12 · 롬 10:5 (18:5 "이를 행하면 살리라" 인용).
- 정경 흐름 — 18장의 금령은 19-20장과 한 묶음(성결법)으로 이어지며, "거룩하라"는 다음 장의 핵심과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나라"는 첫 문장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두 땅 사이에 선 자리를 의식하는 데서 멈춘다.
- 멈춤 2: 같은 이름이 목록 중간에도 박히는 자리(21절)에서 멈춘다.

- **멈춤 3:** 땅이 거민을 토해 낸다는 경고(25절)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목록을 감싸는 것은 조항이 아니라 한 이름이라는 결을 손에 준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두 땅 사이에서 한 이름 앞에 서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나는 여호와니라"가 목록을 양쪽에서 감싼다
- [x] 백성은 두 땅(애굽·가나안) 사이에서 있다
- [x] 친족 금령이 정형구의 반복으로 펼쳐진다
- [x] "가증한 것"이 후반을 묶는다
- [x] 땅이 거민을 토해 낸다는 경고로 닫힌다
- [x] 18장엔 형벌이 거의 없다 (20장과 짝)
- [x] 같은 음성으로 열고 닫는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기록.

미해결 질문

레위기 1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궤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나는 여호와니라"가 금령의 동기절로 반복되는 까닭은?

- 관찰 사실: 2·4·5·6·21·30절. 목록을 양쪽에서 감싸고 중간에도 박힘.
- 본문은 정형구의 기능을 설명하지 않음. 목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25절 "땅이 거민을 토하여 내었다"에서 땅이 주어인 까닭은?

- 땅을 도덕적 주체처럼 그리는 표현.
- 왜 사람이 아니라 땅이 행위의 주어인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음. 보존.

Q3. 친족 금령(6-18절) 사이에 21절 몰렉 조항이 끼어든 까닭은?

- 결이 다른 제의 금령이 친족 목록 한가운데 놓임.
- 배치의 이유는 본문이 말하지 않음.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보존.

Q4. 18장에는 형벌 규정이 거의 없는 까닭은?

- 금령("하지 말라")만 있고 형벌은 20장에 짝으로 놓임.

- 두 장의 분담 구조의 까닭은 관찰까지. 해석은 뒤로.

Q5. "가증한 것"(toevah)이 22절부터 경고까지 이어지는 의미는?

- 친족 목록에는 없던 단어가 후반에 등장해 경고를 묶음.
- 단어 분포는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6. 5절 "이를 행하면 살리라"가 금령 한가운데 놓인 까닭은?

- 금지의 목록 안에 "살리라"는 약속이 한 번 들어 있음.
- 금령과 생명이 한 호흡에 놓인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레위기 19장

LEV-019 · 오경 · 히브리어

"거룩하라"로 연 뒤, 제단의 규례와 밭의 모퉁이가 한 결로 묶인다. 약자와 이웃을 향한 조항마다 같은 이름이 따라붙는다.

관찰된 사실

레위기 1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하나가 아니라 일상의 여러 자리로 빠르게 바뀜 — 집·제단·밭·일터·법정·도량형.
- 소품 — 곡식·포도원·이삭(9-10절), 저울·추·되(35-36절).
- 밭 규례의 원어: "모퉁이" peah, "떨어진 이삭" leqet — 거두지 않고 약자(가난한 자·ger)에게 남김.
- "거룩하라"(레 11:44-45)와 십계명(출 20장)이 배경으로 겹침.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가 조항마다 마침표처럼 반복됨.
- 약자(가난한 자·나그네·귀먹은 자·맹인·품꾼·늙은이)가 자주 등장. 짧은 장면이 빠르게 교차.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 존재의 이유.
- 37절: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 행함의 명령.
- "거룩하라"로 열려 "지켜 행하라"로 닫힘. 양쪽 다 "나는 여호와"로 받쳐짐.
- 그 사이가 짧은 조항의 연속 (18장과 유사한 액자-목록 구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말하는 분: 여호와 한 분(1-2절). 듣는 쪽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 제사장만이 아님.
- 약자 목록: 가난한 자·거류민(10절), 품꾼(13절), 귀먹은 자·맹인(14절), 늙은이(32절), 나그네(33-34절).
- "이웃"(re'a) 반복: 억압 말라(13), 비방 말라(16), 사랑하라(18).
- 18절 봉우리: "원수를 갚지 말며(lo taqom)···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kamokha) 나는 여호와 이니라".
- 34절이 18절과 짝: 나그네를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음).
- 약자 보호 조항의 근거가 자주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 나는 여호와니라"(14·32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절): 서문 — "너희는 거룩하라"
- 컷 2 (3-8절): 부모·안식일·우상·화목제 (십계명 메아리)
- 컷 3 (9-18절): 밭 모퉁이·이삭, 도둑·거짓·압제·약자 금령, "이웃을 네 몸과 같이"

- 컷 4 (19-29절): 혼합 금지, 나무 열매, 점·삭발·문신 등 잡다한 규례
- 컷 5 (30-36절): 성소·신접 금지, 늙은이 공경, 나그네 사랑, 공정한 도량형
- 컷 6 (37절): 맺음 —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qadosh(קָדוֹשׁ) — 거룩한/구별된. 2절. 사람의 거룩을 여호와와의 거룩에 매듭.
- ani YHWH(אֲנִי יְהוָה) — "나는 여호와니라". 약 15회, 조항마다 동기절.
- peah(פֶּהַח) — 밭 모퉁이(9절). 약자 뒤편으로 남김.
- leqet(לֶקֶט) — 떨어진 이삭(9절).
- ger(גֵּר) — 거류민/나그네(10·33·34절).
- re'a(רֵעַ) — 이웃(13·16·18절).
- ahav ... kamokha(אָהַב ... כַּמּוֹכְחָה) —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 lo taqom(לֹא תִקּוֹם) — "원수를 갚지 말라".
- mozne tsedeq(מוֹצֵן צְדָקָה) — "공정한 저울".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액자 — "거룩하라"(2절)와 "지켜 행하라"(37절), 양쪽 "나는 여호와"로 받침.
- "나는 여호와니라"가 컷마다 후렴처럼 박힘 (약 15회).
- 십계명(출 20장)의 메아리가 3-8절 등에 흠여짐.
- 18절(이웃)과 34절(나그네)이 "자기같이 사랑하라"로 짝.
- 큰 규례(제사)와 작은 일상(품삯·밭 모퉁이)이 같은 무게로 동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추수 때 이삭줍기·밭 모퉁이 남김이 약자 보호 장치로 본문에 명시됨.
- 공정한 도량형(저울·추·되) 규정이 고대 근동 법전류에도 보고됨.
- 점·삭발·문신 금령(27-28절)은 주변 문화의 관습과 거리를 두는 화법으로 관찰됨 (내용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레 19:2 ↔ 레 11:44-45 ("거룩하라" 정형구)
- 레 19:3-12 ↔ 출 20:1-17 (십계명 메아리)
- 레 19:18 ↔ 마 22:39 · 롬 13:9 · 갈 5:14 · 약 2:8 ("이웃을 사랑하라" 인용)
- 레 19:9-10 ↔ 신 24:19-22 · 룻 2장 (추수의 약자 보호)
- 레 19:35-36 ↔ 신 25:13-16 (공정한 도량형)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한 음성이 온 회중을 향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하고 연다. 이어 부모·안식일·우상의 익숙한 명령이 빠르게 지나가고, 장면이 밭으로 바뀌어 모퉁이와 이삭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에게 남기라 한다. 일터와 법정으로 옮겨 품꾼의 삯·약자·재판의 공정을 다루다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

는 여호와이니라"의 봉우리에 이른다. 혼합·열매·관습의 조항이 이어지고, 후반에 다시 늙은이와 나그네, 공정한 도량형이 나온다. 마지막에 같은 음성이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로 처음 자리에서 닫는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너희는 거룩하라"
- 초벌 부제: "거룩이 일상의 여러 무대로 흩어져 같은 이름에 매이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9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추수·도량형 + 십계명 메아리 + 액자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조항 평가 없이 구조·반복만 관찰.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네 이웃을 사랑하라"(18절)가 신약 윤리 프레임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찰에서는 교차 참조 노트로만 표시.
- 19·27-28절의 혼합·관습 금령은 내용 평가 없이 "결이 다른 조항의 동거"의 관찰까지만.
- "거룩하라"를 적용·교훈으로 끌고 가지 않고, 2절과 37절의 액자 구조 관찰에 머물.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레위기 19장은 "거룩하라"는 한 선언이 일상의 여러 무대로 흩어져, 조항마다 "나는 여호와니라"에 매이는 결이다.

한 문단: 본문은 온 회중을 향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로 연다. 그 거룩은 제단에만 머물지 않고 발과 일터와 법정과 도량형으로 흩어진다. 큰 규례와 작은 일상이 같은 무게로 놓이고, 약자와

이웃을 향한 조항마다 같은 이름이 따라붙는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한 봉우리로 솟고, 같은 정형구가 나그네에게도 붙는다. 마지막에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로 처음 자리에서 닫힌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일상의 여러 무대(집·제단·밭·일터·법정·도량형). 소품 — 곡식·포도원·이삭, 저울·추·되. 밭 모퉁이(peah)·이삭(leqet)은 약자 묶.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나는 여호와니라"가 마침표처럼 반복. 약자가 자주 등장하고 짧은 장면이 빠르게 교차.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너희는 거룩하라"(2절). 끝 —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37절). 양쪽 다 "나는 여호와"로 받침.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여호와 한 분이 "온 회중"에게 말씀. 약자 목록(가난한 자·나그네·귀먹은 자·맹인·품꾼·늙은이). 18절·34절에 "자기같이 사랑하라"가 두 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서문(1~2). 컷 2 십계명 메아리(3~8). 컷 3 밭·약자·이웃(9~18). 컷 4 혼합·관습(19~29). 컷 5 늙은이·나그네·도량형(30~36). 컷 6 맺음(37).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큰 규례와 작은 일상의 동거. 19·27·28절 혼합·관습의 배치. 정보 — 19:18이 마 22:39·롬 13:9 등에 인용, 18·20장이 한 묶음(형벌은 20장).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거룩하라→십계명 메아리→밭의 약자 묶→일터·법정의 공정→이웃 사랑의 봉우리→혼합·관습→늙은이·나그네·도량형→지켜 행하라.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너희는 거룩하라". 초벌 부제 — "거룩이 일상의 여러 무대로 흩어져 같은 이름에 매이다".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밭과 일터와 법정 사이를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뢴다 — "작은 자리에도 당신의 이름이 따라붙음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흩어진 거룩:** 2절의 "거룩하라"가 제단에 갇히지 않고 밭·일터·법정·도량형으로 흩어진다. 거룩이 일상의 여러 무대에 놓인다.
- 결 2 — 따라붙는 이름:** 큰 규례든 작은 조항이든 "나는 여호와니라"가 약 15회 따라붙는다. 형벌보다 이름이 자주 온다.
- 결 3 — 두 번의 "자기같이":** 이웃(18절)과 나그네(34절)에게 같은 "자기같이 사랑하라"가 붙는다. 안과 밖의 사람에게 같은 정형구가 놓인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레 11:44-45 ("거룩하라"의 출처). 레 18 (앞 장, 금령). 레 20 (형벌 규정 짝).
- 다른 권 — 출 20장 (십계명의 메아리). 마 22:39 · 롬 13:9 · 갈 5:14 · 약 2:8 (19:18 인용). 신 24:19-22 · 룩 2장 (추수의 약자 보호).
- 정경 흐름 — 19장의 "거룩하라"는 18-20장 성결법의 가운데 봉우리로, 앞 장의 금령과 뒤 장의 형벌을 잇는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는 첫 선언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거룩이 발 모퉁이의 작은 조항으로 내려오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의 봉우리(18절)에서 멈춘다.
- **멈춤 3:** 같은 말이 나그네에게도 붙는 자리(34절)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거룩은 제단이 아니라 일상의 여러 자리에 따라온다는 결을 손에 쥔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발과 일터와 이웃 사이에서 한 이름 앞에 서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거룩하라"로 열려 "지켜 행하라"로 닫힌다
- [x] 거룩이 일상의 여러 무대로 흩어진다
- [x] 큰 규례와 작은 일상이 같은 무게로 놓인다
- [x] 약자가 조항마다 등장한다
- [x] "자기같이 사랑하라"가 이웃과 나그네에게 두 번
- [x] "나는 여호와니라"가 후렴처럼 따라붙는다
- [x] 19장엔 형벌이 거의 없다 (20장과 짝)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거룩.

미해결 질문

레위기 19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거룩하라"(2절)가 일상의 작은 조항과 어떻게 한 결로 묶이는가?

- 관찰 사실: 거룩의 선언 뒤에 부모·발·품삿·도량형 같은 작은 조항이 이어짐.
- 거룩과 일상이 한 장에 묶인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묵상 단계로 이월.

Q2. 큰 규례와 작은 규례가 같은 무게로 놓인 까닭은?

- 제사 규례와 "발 모퉁이를 남기라"가 나란히, 둘 다 "나는 여호와니라"로 받쳐짐.
- 경중을 본문이 매기지 않음. 보존.

Q3. 19·27-28절의 혼합·관습 금령이 윤리 조항 사이에 끼어든 까닭은?

- 종자·가축·옷의 혼합, 점·삭발·문신 금령이 이웃 사랑 같은 조항과 한 장에 동거.
- 배치의 이유는 본문이 말하지 않음.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보존.

Q4. 18절(이웃)과 34절(나그네)에 같은 "자기같이 사랑하라"가 붙은 까닭은?

- 이웃과 나그네에게 동일한 정형구가 두 번 쓰임.
- 두 짝의 의도는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5. 약자 보호 조항의 근거가 "나는 여호와니라"인 까닭은?

- 맹인·귀머은 자 앞의 조항이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로 받쳐짐(14절).
-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의 행위를 이름에 매다는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6. 19장에 형벌이 거의 없는 까닭은?

- 명령과 동기절(나는 여호와니라)의 결이고, 형벌은 20장에 모임.
- 18-20장의 분담 구조의 까닭은 관찰까지. 해석은 뒤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레위기 20장

LEV-020 · 오경 · 히브리어

몰렉으로 열어 18장 금령의 형벌을 짝지어 둔다. "거룩하라"가 다시 돌아오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별로 닫힌다.

관찰된 사실

레위기 2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따로 그려지지 않고 판결문 같은 자리 — "이런 자는 이렇게 하라"의 선고가 펼쳐짐.
- 맨 앞 소재: 몰렉(Molech, 2절), 신접한 자·박수(ov·yiddeoni, 6절). 18장 끝에 끼었던 몰렉이 여기서 첫머리.
- 소품처럼 돌아오는 단어 "피"(dam) —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 후반(24-26절)에 "젓과 꿀이 흐르는 땅"과 짐승의 정/부정 구별(badal)이 들어옴 (11장의 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반드시 죽일지니라"의 반복으로 무겁게 가라앉음. 책임이 행한 사람에게 매인 인상.
- 몰렉·신접으로 열고, 끝에서 "거룩하라"·"구별하라"로 톤이 바뀜.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2절: 몰렉에게 자녀를 준 자에게 "반드시 죽일지니라" — 형벌로 엮.
- 27절: 신접·박수에게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 형벌로 닫음.
- 양쪽 끝에 "신접"이 걸림. 그 사이(7-8절, 24-26절)에 "거룩하라"·"구별하라"가 박힘.
- 7절은 19:2의 "거룩하라" 정형구가 형벌 장 한가운데 다시 돌아온 것.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말하는 분: 여호와 한 분(1절). 듣는 쪽은 이스라엘 자손.
- 조항 안에 익명의 "어떤 자"가 줄줄이 — 18장 목록(친족·이웃의 아내·동성·짐승)과 거의 동일.
- 형벌 두 종류: 사람이 집행하는 "반드시 죽일지니라"(mot yumat),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karat). 일부는 "자식 없이 죽으리라"(20-21절).
-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damav bo)가 9·11·12·13·16절 반복 — 책임 귀속 정형구.
- 9절 부모 저주(qillel)가 목록 앞쪽 — 19장 "부모를 경외하라"와 짝.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6절): 몰렉·신접의 형벌, "내가 그를 끊으리라"
- 컷 2 (7-8절): 삽입된 호소 —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 컷 3 (9절): 부모 저주의 형벌

- 컷 4 (10-21절): 18장 금령의 형벌 짝 — "반드시 죽일지니라/끊어지리라/피가 자기에게로"
- 컷 5 (22-27절): 규례 지킴·땅이 토하지 않게."구별하였노라/구별하라"·거룩, 신접의 형벌로 닫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Molech(2, מֹלֶךְ) — 18장에 이어 재등장. 70인역 ἄρχων.
- ov · yiddeoni(27·6, וַיִּדְּעוּנִי · בַּיּוֹם) — 신접한 자·박수(영매/점술).
- mot yumat(מֹת יוּמָת) — "반드시 죽일지니라". 동족목적어 강조.
- karat(כָּרַת) — "끊어지리라", 잘려 나감.
- damav bo(דָּמַו בּוֹ) —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책임 귀속.
- qillel(9, קִלְלָה) — 저주하다(부모).
- qadosh(26·7, קָדוֹשׁ) — 거룩한.
- badal / hivdalti(24-26, הִבְדַּלְתִּי) — 구별하다/나누다. 사람과 짐승 양쪽에 쓰임.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액자 — 신접(2·6절)과 신접·박수(27절)가 양 끝에 걸림.
- 형벌 정형구 반복: mot yumat, karat, "피가 자기에게로".
- 7-8절 "거룩하라"(19:2의 메아리)가 형벌 한가운데 삽입.
- 18장(금령)과 20장(형벌)이 같은 목록의 짝.
- "구별"(badal)이 사람(24절)과 짐승(25절) 양쪽에 쓰여 장을 닫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몰렉 제의(자녀를 불에 지나가게 함)가 주변 문화에 보고됨. 본문은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금령·형벌만 듬.
- 신접·박수(영매·점술) 관행이 고대 근동에 보고됨. 출 22:18, 신 18:9-12과 같은 걸.
- 정/부정 짐승의 구별(badal)은 11장과 같은 화법.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레 20:10-21 ↔ 레 18:6-23 (같은 목록, 금령과 형벌의 짝)
- 레 20:7 ↔ 레 19:2 ("거룩하라" 정형구)
- 레 20:25 ↔ 레 11장 (정/부정 짐승의 구별)
- 레 20:6,27 ↔ 출 22:18 · 신 18:9-12 (신접·박수 금령)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판결문 같은 음성이 몰렉에게 자녀를 준 자와 신접한 자·박수에게 무거운 선고로 내린다. 그러다 톤이 잠깐 바뀌어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는 호소가 한 번 끼어든다. 다시 선고로 돌아와 부모를 저주한 자, 그리고 18장에서 본 목록(이웃의 아내·친족·동성·짐승)에 각각 형벌을 붙인다 — "반드시 죽일지니라/끊어지리라/피가 자기에게로". 마지막에 장면이 트여 땅이 토하지 않도록 규례를 지키라 하고, 음식의 정/부정 구별로 넘어가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고 한다. 끝으로 다시 신접·박수의 선고로 처음 자리에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18장의 짝, 형벌의 장"
- 초벌 부제: "형벌로 열고 형벌로 닫되, 그 안에 거룩과 구별이 박히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배경 + 18/20장 짝 + badal 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형벌의 도덕 단정·선정성 없이 정형구 반복·구조만 관찰.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형벌 규정(10-21절)은 도덕 단정·선정성 없이 정형구의 반복·형벌 종류의 차이의 관찰까지만.
- 몰렉·신접 조항은 제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금령·형벌의 위치 관찰에 머물.
- 형벌 무게의 차이는 기준을 본문이 말하지 않으므로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음.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레위기 20장은 18장 금령의 형벌 짝으로, 무거운 선고를 신접으로 열고 신접으로 닫되 그 안에 "거룩하라"와 "구별하라"를 박아 넣은 결이다.

한 문단: 본문은 몰렉과 신접의 선고로 열린다. 18장에서 "하지 말라"로만 나왔던 목록이 여기서 사람마다 형벌로 받쳐진다 — "반드시 죽일지니라", "끊어지리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무거운 선고 한 가운데 19장의 "거룩하라"가 한 번 끼어 들고, 마지막에 톤이 트여 땅과 음식의 "구별"로 넘어간다. 사람을 구별하신 같은 단어가 짐승의 정/부정 구별에도 쓰이며, 다시 신접의 선고로 처음 자리에서 닫힌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판결문 같은 자리. 맨 앞 소재 몰렉·신접(2·6절). 돌아오는 "피". 끝에 "젓과 꿀이 흐르는 땅"과 짐승의 정/부정 구별(badal).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반드시 죽일지니라"의 반복으로 무겁게 가라앉음. 책임이 행한 사람에게 매인 인상. 끝에서 "거룩하라"."구별하라"로 톤 전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몰렉의 형벌(2절). 끝 — 신접·박수의 형벌(27절). 양 끝에 "신접". 사이에 7-8절·24-26절의 거룩·구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여호와 한 분이 익명의 "어떤 자"를 차례로 선고. 18장 목록과 동일. 형벌 두 종류 (mot yumat·karat)와 "피가 자기에게로".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몰렉·신접(1~6). 컷 2 삽입된 호소(7~8). 컷 3 부모 저주(9). 컷 4 18장 형벌 짝(10~21). 컷 5 구별·거룩·신접으로 닫음(22~27).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18장(금령)·20장(형벌)의 짝. 끼어든 "거룩하라"(7-8절). 형벌의 다른 무게. 정보 — badal이 사람·짐승 양쪽에, 신접이 양 끝에.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몰렉·신접의 선고→"거룩하라"의 삽입→18장 목록의 형벌→땅과 음식의 구별→다시 신접의 선고로 닫힘.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18장의 짝, 형벌의 장". 초벌 부제 — "형벌로 열고 형벌로 닫되, 그 안에 거룩과 구별이 박히다".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무거운 선고의 자리에 서서 멈춘다. 주께 아뢴다 — "선고 한가운데 끼어든 '거룩하라'의 자리를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18장의 형벌 짝:** 18:6-23과 20:10-21이 같은 목록이다. 한 장은 금령, 한 장은 형벌. 본문 스스로 둘로 나뉜 결이다.
- 결 2 — 끼어든 거룩:** 무거운 선고 한가운데 7-8절에서 19장의 "거룩하라"가 한 번 돌아온다. 형벌과 거룩이 한 장에 함께 놓인다.
- 결 3 — 사람과 짐승의 구별:** "구별"(badal)이 사람(만민 중에서, 24절)과 짐승(정/부정, 25절) 양쪽에 같은 단어로 쓰이며 장을 닫는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레 18:6-23 (금령의 짝). 레 19:2 (20:7 "거룩하라"의 메아리). 레 11장 (정/부정 구별).
- 다른 권 — 출 22:18 (무당 금령). 신 18:9-12 (신접·박수 금령).
- 정경 흐름 — 20장은 18-19장과 함께 성결법의 닫는 결로, 금령(18)·거룩(19)·형벌과 구별(20)이 한 묶음을 이룬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몰렉의 무거운 선고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18장에서 본 목록이 형벌과 함께 돌아오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선고 한가운데 "거룩하라"가 끼어드는 자리(7-8절)에서 멈춘다.
- 멈춤 3: 사람과 음식에 같은 "구별"이 쓰이는 자리(24-26절)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형벌의 장도 거룩과 구별을 안에 품는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무거운 선고 한가운데 들리는 한 호소 앞에 서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18장 목록의 형벌 짝이다
- [x] 몰렉·신접으로 열고 신접·박수로 닫는다
- [x] 형벌 한가운데 "거룩하라"가 끼어든다
- [x] 형벌이 두 종류 이상으로 갈린다
- [x] "그 피가 자기에게로"가 반복된다
- [x] "구별"이 사람과 짐승 양쪽에 쓰인다
- [x] 정/부정 구별로 장을 닫는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구별.

미해결 질문

레위기 20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궤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18장(금령)과 20장(형벌)을 따로 둔 까닭은?

- 관찰 사실: 같은 목록을 한 장은 "하지 말라", 다른 장은 형벌로 다름.
- 두 장으로 나눈 까닭을 본문은 설명하지 않음. 목상 단계로 이월.

Q2. 형벌 한가운데 7-8절 "거룩하라"가 끼어든 까닭은?

- 무거운 선고 사이에 19:2의 호소가 한 번 삽입됨.
- 그 위치의 까닭은 본문이 말하지 않음. 보존.

Q3. 형벌의 무게가 조항마다 다른 까닭은?

- "반드시 죽일지니라"."끊어지리라"."자식 없이 죽으리라"가 갈림.
- 차이의 기준을 본문이 매기지 않음.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보존.

Q4.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가 반복되는 의미는?

- 책임을 행한 사람에게 매다는 정형구가 여러 번 나옴.

- 정형구의 기능은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5. 사람의 형벌을 다루다가 음식의 정/부정 구별로 닫는 까닭은?

- "구별"(badal)이 사람(24절)과 짐승(25절) 양쪽에 같이 쓰임.
- 두 절을 한 단어로 잇는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6. 신접·박수가 장의 처음과 끝에 모두 놓인 까닭은?

- 6절과 27절, 양쪽 끝에 같은 소재가 걸림.
- 그 액자 배치의 의도는 관찰까지. 해석은 뒤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레위기 21장

LEV-021 · 오경 · 히브리어

거룩의 규례가 제단에서 제사장의 몸으로 옮겨온다. 죽음·결혼·흠을 지나, 일반 제사장에서 대제사장으로 동심원이 좁혀진다.

관찰된 사실

레위기 2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두 겹 — 큰 무대는 성소·제단 둘레, 본문의 카메라는 제사장의 몸과 가정으로 향함.
- 소품 "하나님의 음식"(lechem elohim) — 제사를 음식처럼 부름(6·8·17·21·22절).
- "죽은 자"가 nefesh(본래 생명/혼, 여기선 시신 용법, 1·11절).
- 후반(17-23절)에 신체의 "흠"(mum) 목록이 소품처럼 나열.
- 19:27-28(삭발·살 베기)과 10장(나답·아비후 애도 제한)이 배경으로 겹침.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카메라가 온 회중에서 제사장, 다시 대제사장으로 zoom인하는 인상.
-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가 후렴처럼 반복. "하나님의 음식"은 따뜻한 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 죽음 규정으로 옴.
- 24절: "모세가 이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 전달 보고로 닫음.
- 1절 "더럽히지 말라"와 23절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가 chillel로 마주 걸림.
- 그 사이가 동심원 — 일반 제사장(1-9) → 대제사장(10-15) → 흠 있는 제사장(16-23).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말하는 분: 여호와(1절). 듣는 쪽이 좁혀짐 — 아론의 자손 제사장 → 대제사장 → 흠 있는 자손.
- 죽음 규정: 일반 제사장은 가까운 가족 예외(2-3절), 대제사장은 부모조차 불가(11절).
- 결혼 규정: 일반 제사장은 기생·이혼녀 금지(7절), 대제사장은 더해 "처녀(betulah)를 아내로"(13-14절).
- 9절: 제사장의 딸의 행음 조항 — 가정 전체가 거룩의 자리.
-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ani YHWH mqaddesh, 8·15·23절) — 거룩의 주어가 여호와.
- 23절: 흠 있는 제사장은 직무 제한, 그러나 성물은 먹음(22절) — 배제 속의 포함.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6절): 일반 제사장의 죽음·애도 규정,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니 거룩할지라"
- 컷 2 (7-9절): 일반 제사장의 결혼 규정, 딸의 행음,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 컷 3 (10-15절): 대제사장 — 더 엄한 죽음·결혼, 처녀를 아내로
- 컷 4 (16-23절): 흠 있는 제사장 — 직무 제한, 성물은 먹음
- 컷 5 (24절): 맺음 —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전함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kohen(כֹּהֵן) — 제사장. kohen hagadol — 대제사장(머리에 관유 부여된 자, 10절).
- nefesh(11:1, נֶפֶשׁ) — 생명/혼, 여기서 '죽은 몸' 용법.
- lechem elohim(לֶחֶם אֱלֹהִים) — "하나님의 음식/떡"(6·8·17·21·22절).
- mum(23·21·18·17, מוּם) — 흠.
- betulah(13-14, בְּתוּלָה) — 처녀.
- chillel(23:1, חִלְלֵל) — 더럽히다/속되게 하다. qadosh의 반대.
- qadosh / mqaddesh(קָדוֹשׁ / מְקַדְּשׁ) — 거룩한/거룩하게 하는.
- ani YHWH mqaddesh(23·15·8, אֲנִי יְהוָה מְקַדְּשׁ) —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동심원(concentric) — 일반 제사장 → 대제사장 → 흠 있는 제사장으로 카메라가 좁혀짐.
- 점층(escalation) — 죽음·결혼 규정이 단계마다 엄해짐.
- 액자 — 1절·23절의 "더럽히지 말라"(chillel)가 마주 걸림.
-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가 컷마다 달는 후렴(6·8·15·23절 둘레).
- 21장(드리는 사람의 흠)과 22장(드러지는 제물의 흠)이 짝.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 제사장 정결 규정 — 죽은 자 접촉·신체 흠에 관한 제의 자격 규정이 주변 문화에도 보고됨.
- 제사장 가문의 결혼 제약이 제의 직무의 순수성과 연결됨.
- 10장 나답·아비후 사건이 대제사장 애도 제한(11절)의 정황 배경.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레 21:5 ↔ 레 19:27-28 (삭발·살 베기 금령, 제사장에게 재적용)
- 레 21:11 ↔ 레 10:1-7 (나답·아비후, 애도 제한 배경)
- 레 21:17-23 ↔ 레 22장 (흠 — 사람의 흠과 제물의 흠의 짝)
- 레 21 ↔ 겔 44:20-27 (제사장 정결 규정 회상)
- 레 21 ↔ 히 7:26 (흠 없는 대제사장)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카메라가 제사장에게 줌인한다. 죽은 자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가장 가까운 가족만 예외다. 머리와 수염을 손대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니 거룩하라. 이어 결혼의 규정 뒤에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가 달는다. 카메라가 대제사장으로 더 좁혀져 부모의 시신조차 가까이 말고 처녀를 아내로 맞으라 한다. 다시 넓어져 흠 있는 제사장은 제단의 직무를 행하지 말라 하되, 곧 그래도 지성물과 성물은 먹을 수 있다고 덧붙인다. 마지막에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로 달고,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전한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거룩이 몸으로 옮겨오다"
- 초벌 부제: "죽음·결혼·흠을 지나 좁혀지는 거룩의 동심원"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제사장 정결 + 동심원 구조 + 21/22장 짝)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규정 평가 없이 동심원·점층·후렴만 관찰.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9절(제사장 딸의 행음)·결혼 규정은 도덕 단정·선정성 없이 단계별 적용의 관찰까지만.
- 흠(mum) 목록은 신체 평가 없이 "직무 제한과 식탁의 포함"의 구조 관찰에 머물.
-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를 적용·교훈으로 끌고 가지 않고 주어의 위치 관찰에 머물.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레위기 21장은 거룩의 규례가 제단에서 제사장의 몸과 가정으로 옮겨오며, 일반 제사장에서 대제사장으로 동심원처럼 좁혀지는 결이다.

한 문단: 본문은 죽은 자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규정으로 열린다. 거룩이 제단이 아니라 제사장의 몸 — 죽음 접촉·결혼·머리와 수염·신체의 흠 — 으로 옮겨온다. 카메라가 일반 제사장에서 대제사장으로 좁혀질수록 규정은 더 엄해지고, 흠의 축이 더해지되 직무에서 물러난 자도 성물의 식탁에서는 빠지지 않는다. 그 모든 규례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에 매이며, 거룩의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임이 드러난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가 제사장의 몸과 가정. 소품 "하나님의 음식"(lechem elohim). "죽은 자"가 nefesh. 후반에 "흠"(mum) 목록.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은 회중에서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zoom인하는 인상.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나라"가 후렴.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죽은 자로 더럽히지 말라"(1절). 끝 — 모세의 전달 보고(24절). 1:23절 "더럽히지 말라"(chillel)가 마주 걸림.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듣는 쪽이 좁혀짐 — 제사장 → 대제사장 → 흠 있는 자손. 죽음·결혼 규정이 단계마다 엄해짐. 거룩의 주어가 여호와.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일반 제사장 죽음(1~6). 컷 2 결혼·딸(7~9). 컷 3 대제사장(10~15). 컷 4 흠 있는 제사장(16~23). 컷 5 전달(24).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거룩이 몸으로 옮겨옴. 단계별 점층. 배제 속의 포함(22절). 정보 — 21장(사람의 흠)·22장(제물의 흠)의 짝, "거룩하게 하는"의 주어가 여호와.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제사장에게 zoom인 → 죽음·결혼 규정 → 대제사장으로 좁혀짐 → 흠의 축 → 배제 속 포함 →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로 닫고 모세가 전함.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거룩이 몸으로 옮겨오다". 초벌 부제 — "죽음·결혼·흠을 지나 좁혀지는 거룩의 동심원".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성소 돌레에 서서 멈춘다. 주께 아뢴다 — "거룩하게 하는 분이 내 밖에 따로 계심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몸으로 옮겨온 거룩:** 19장은 발과 이웃이었으나, 21장은 죽음 접촉·결혼·신체의 흠처럼 제사장의 몸과 가정으로 좁혀진다.
2. **결 2 — 좁혀지는 동심원:** 일반 제사장에서 대제사장으로 카메라가 좁혀질수록 규정이 점층한다. 부모 예외가 부모도 불가로 바뀐다.
3. **결 3 — 배제 속의 포함:** 흠 있는 제사장은 직무에서 물러나도(23절) 지성물과 성물의 식탁에는 남는다(22절).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레 19:27-28 (삭발·살 베기 금령, 제사장에게 재적용). 레 10:1-7 (나답·아비후, 애도 제한 배경). 레 22장 (제물의 흠, 다음 장 짝).
- 다른 권 — 겔 44:20-27 (제사장 정결 규정 회상). 히 7:26 (흠 없는 대제사장).
- 정경 흐름 — 21장은 22장과 함께 "흠"의 두 축(사람·제물)을 이루며, 거룩이 제단 돌레의 직무자에게로 좁혀지는 결을 연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죽은 자로 더럽히지 말라는 규정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거룩이 밭에서 몸으로 옮겨오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대제사장이 부모의 시신조차 가까이 못 하는 자리(11절)에서 멈춘다.

- **멈춤 3:** 직무에서 물러난 자가 식탁에 남는 자리(22절)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거룩하게 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라는 것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앞에서 자기 몸을 보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거룩이 제단에서 제사장의 몸으로 옮겨온다
- [x] 일반 제사장에서 대제사장으로 좁혀진다
- [x] 규정이 단계마다 엄해진다
- [x] "하나님의 음식"이 반복된다
- [x] 흠 있는 자가 직무에선 물러나도 식탁엔 남는다
- [x] "거룩하게 하는" 주어가 여호와다
- [x] 1·23절 "더럽히지 말라"가 마주 걸린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흠.

미해결 질문

레위기 2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궤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거룩의 규례가 제단에서 제사장의 몸으로 옮겨온 까닭은?

- 관찰 사실: 죽은 자 접촉·결혼·신체의 흠처럼 몸과 가정으로 좁혀짐.
- 거룩이 몸으로 옮겨온 까닭을 본문은 설명하지 않음. 목상 단계로 이월.

Q2. 일반 제사장에서 대제사장으로 규정이 더 엄해지는 까닭은?

- 죽음·결혼 제한이 단계마다 좁아짐(부모 예외 → 부모도 불가).
- 점층의 까닭을 본문이 매기지 않음. 보존.

Q3. 흠 있는 제사장이 직무는 못 해도 성물은 먹는 까닭은?

- 배제(직무)와 포함(식탁)이 한 사람 안에 같이 놓임(22-23절).
- 두 결을 함께 둔 까닭은 본문이 말하지 않음.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보존.

Q4. 9절 제사장의 딸에게 더 무거운 결이 적용되는 까닭은?

- 제사장 본인만이 아니라 가정도 거룩의 자리에 놓임.

- 가정으로 확장된 까닭은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5. "거룩하게 하는"의 주어가 여호와인 까닭은?

- 8·15·23절에서 거룩의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 주어가 밖에 계신 결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6. 21장(사람의 흠)과 22장(제물의 흠)을 나란히 둔 까닭은?

- 드리는 자와 드러지는 것의 흠이 두 장으로 짝지어짐.
- 그 짝의 의도는 관찰까지. 해석은 뒤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레위기 22장

LEV-022 · 오경 · 히브리어

먹는 자의 정결과 드러지는 제물의 흠, 두 축을 다룬다. 모든 규례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에서 모인다.

관찰된 사실

레위기 2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둘 — 전반(1-16절)은 제사장의 식탁 둘레(누가 성물을 먹는가), 후반(17-30절)은 제단 둘레(무엇을 드리는가).
- 소품 "성물"(qodashim)과 가축(소·양·염소). 핵심어 "흠"(mum)과 "흠 없는·온전한"(tamim, 70인역 ἄμωμος).
- 사람의 범주: 외인(zar)·객(toshav)·품꾼(sakir)·돈으로 산 종·집에서 난 종.
- "기쁘게 받으심"(ratson)이 흠 없음의 조건으로 반복(19·20·21·27·29절).
- 21장(사람의 흠)이 배경으로 깔림 — 22장은 제물의 흠.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전반(먹는 자)과 후반(드리는 것)이 두 화면으로 갈림. 성물을 조심히 다루는 공기.
- 마지막에 톤이 한 문장("내 성호를 거룩하게 하라")으로 모임.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성물에 대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 이름의 보호로 엮.
- 32절: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 같은 말에 근거를 더해 담음.
- 1·32절의 "내 성호를 더럽히지 말라"(chillel/lo techallelu)가 액자로 마주 걸림 (21장과 같은 동사).
- 그 사이가 두 패널 — 먹는 자(전반)와 드리는 것(후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말하는 분: 여호와(1절). 청중이 넓어짐 — 전반은 아론과 아들들, 후반(17-18절)은 "온 이스라엘 족속".
- 식탁의 범주: 부정한 제사장은 못 먹음, 외인·객·품꾼 못 먹음, 종(돈으로 산·집에서 난)은 먹음(11절), 딸은 시집가면 못 먹다 과부·이혼으로 돌아오면 다시 먹음(12-13절).
- 제단의 제물: 흠 없는 수컷(19절), 흠 있는 것(눈먼·상한·종기) 금지(22절), 새끼는 8일 후(27절), 어미와 새끼 같은 날 금지(28절).
- "흠 없는·온전한"(tamim)이 "기쁘게 받으심"(ratson)의 조건.
- 32-33절: 모든 규례가 "내 성호를 거룩하게 하라"와 출애굽의 여호와로 모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9절): 부정한 제사장은 성물에 가까이 말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나라"
- 컷 2 (10-16절): 누가 성물을 먹는가 — 외인·객·품꾼·종·딸의 범주
- 컷 3 (17-25절): 흠 없는 제물 — 흠 있는 것은 기쁘게 받지 않으심
- 컷 4 (26-30절): 새끼 8일 후, 어미와 새끼 같은 날 금지, 감사제는 그날에
- 컷 5 (31-33절): 맺음 — "내 성호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나라"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qodashim(קֹדָשִׁים) — 성물, 거룩한 것들.
- zar(זָר) — 외인(제사장 가문 밖). toshav(תּוֹשָׁב), sakir(סָכִיר).
- mum(25·21·20, מוֹמ) — 흠. 21장과 같은 단어.
- tamim(21·19, תָּמִים) — 흠 없는/온전한. 70인역 ἄμωμος.
- ratson(רָצוֹן) — 기쁘게 받으심/호의(19·20·21·27·29절).
- chillel / lo techallelu(32·1, לֹא תַחֲלִלְנֵהוּ / חִלְלֵהוּ) — 더럽히다/더럽히지 말라.
- qiddashti(32, קִדְּשְׁתִּי) — 거룩하게 하다.
- ani YHWH mqaddesh(아니 여호와 거룩하게 하는, 9·16·32절) —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나라".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두 패널(two-panel) — 전반 "먹는 자", 후반 "드리는 것".
- 액자 — 1·32절의 "내 성호를 더럽히지 말라"(chillel)가 양 끝에 걸림.
- "흠 없는"(tamim)과 "기쁘게 받으심"(ratson)이 후반의 후렴.
- 21장(사람의 흠)과 22장(제물의 흠)이 mum으로 짝.
- 32-33절에서 흠어진 규례가 "이름"과 "출애굽"으로 수렴.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 제의에서 흠 없는 가축을 제물로 드리는 관행이 보고됨.
-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의 범주(제사장 가문·종·고용인)가 제의 경제와 연결됨.
- "흠 없는"(tamim/ἄμωμος)은 후대 말라기 1장의 책망, 신약의 "흠 없는 어린양"과 어휘로 이어짐.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레 22:17-25 ↔ 레 21:17-23 (제물의 흠과 사람의 흠의 짝)
- 레 22:10-16 ↔ 레 7:19-21 (성물을 부정한 중에 먹는 자)
- 레 22:19 ↔ 레 1:3,10 (흠 없는 번제물)
- 레 22 ↔ 말 1:6-14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책망)
- 레 22:21 ↔ 벰전 1:19 · 히 9:14 (흠 없는 어린양)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제사장의 식탁이 먼저 보인다. 부정할 때에는 성물에 가까이 말고, 정결해진 뒤에야 먹으라 한다. 이어 누가 먹을 수 있는지가 펼쳐진다 — 외인·객·품꾼은 못 먹고, 종은 먹으며, 시집간 딸은 못 먹다 돌아오면 다시 먹는다. 장면이 제단으로 바뀌고 청중이 온 이스라엘로 넓어진다. 흠 없는 수컷이라야 기쁘게 받으시고, 흠 있는 것은 드리지 말라. 새끼는 8일 후,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말라, 감사제는 그날에 먹으라. 마지막에 흠어진 규례가 한 문장으로 모인다. "내 성호를 거룩하게 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흠어진 규례가 한 이름으로 모이다"
- 초벌 부제: "먹는 자의 정결과 제물의 흠 없음이 한 이름에서 모이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제물·성물 + 두 패널 구조 + 21/22장 짝)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규정 평가 없이 두 패널·후렴·수렴만 관찰.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식탁의 신분별 구분(종·품꾼·딸)은 사회 평가 없이 "범주의 갈림"의 관찰까지만.
- 제물의 흠 규정은 "흠 없음과 기쁘게 받으심"의 어휘 관찰에 머물.
- 32-33절의 "이름·출애굽"을 신학 프레임으로 끌고 가지 않고 "수렴"의 구조 관찰에 머물.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레위기 22장은 누가 성물을 먹는가(식탁)와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제단)의 두 패널이, 마지막에 "내 성호를 거룩하게 하라"는 한 문장으로 모이는 결이다.

한 문단: 본문은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열린다. 전반은 제사장의 식탁에서 누가 성물을 먹을 수 있는지를 신분과 상황으로 세밀하게 가르다. 후반은 제단으로 옮겨 흠 없는 제물이라야 기쁘게 받으심을 다룬다. 먹는 자에게는 정결이, 드러지는 것에는 흠 없음이 요구된다 — 양쪽에 "온전함"이 걸린다. 흠어진 규례가 마지막에 이름과 출애굽으로 수렴하며,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로 닫힌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두 무대 — 식탁(성물 먹기)과 제단(제물). 소품 성물(qodashim)·가축. 핵심어 흠(mum)·흠 없는(tamim)·기쁘게 받으심(ratson).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전반(먹는 자)·후반(드리는 것)의 두 화면. 성물을 조심히 다루는 공기.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모임.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내 성호를 욕되게 말라"(1-2절). 끝 — 같은 말에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를 더해 닫음(32절). chillel의 액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청중이 넓어짐(아론 가문 → 온 이스라엘). 식탁의 신분별 범주(외인·객·품꾼·종·딸). 제단의 흠 없는 수컷·새끼·어미. 양쪽에 온전함.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부정한 제사장(1~9). 컷 2 먹는 자의 범주(10~16). 컷 3 흠 없는 제물(17~25). 컷 4 새끼·어미·감사제(26~30). 컷 5 이름으로 모임(31~33).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21·22장의 흠 짝. 종·품꾼의 식탁 구분. 제물 규정 사이의 조항(28절). 정보 — tamim/ἄμωμος가 1장·말 1장·신약과 이어짐, 32·33절의 이름·출애굽 수렴.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식탁의 정결→누가 먹는가→제단으로 전환→흠 없는 제물→새끼·어미·감사제 →"내 성호를 거룩하게 하라"로 모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흠어진 규례가 한 이름으로 모이다". 초벌 부제 — "먹는 자의 정결과 제물의 흠 없음이 한 이름에서 모이다".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식탁과 제단 사이를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뢴다 — "흠어진 규례가 당신의 이름 하나로 모임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두 패널:** 전반은 식탁(누가 먹는가), 후반은 제단(무엇을 드리는가). 먹는 쪽과 드리는 쪽이 한 장에서 마주 본다.
- 결 2 — 양쪽의 온전함:** 먹는 자에게는 정결, 드러지는 것에는 흠 없음(tamim)이 요구된다. "기쁘게 받으심"(ratson)이 그 조건이다.
- 결 3 — 한 이름으로 모임:** 흠어진 규례가 32·33절에서 "내 성호를 거룩하게 하라"와 출애굽의 여호와로 수렴한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레 21장 (사람의 흠, 앞 장 짝). 레 7:19-21 (성물을 부정한 중에 먹는 자). 레 1:3,10 (흠 없는 번제물).
- 다른 권 — 말 1:6-14 (흠 있는 제물의 책망). 벰전 1:19 · 히 9:14 (흠 없는 어린양).
- 정경 흐름 — 22장은 21장과 함께 "흠"의 두 축(사람·제물)을 닫고,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로 성결법의 한 단락을 봉인한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내 성호를 욕되게 말라"는 첫 명령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식탁의 자리가 신분에 따라 갈리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흠 없는 것이라야 기쁘게 받으신다는 자리(20절)에서 멈춘다.
- 멈춤 3: 흠어진 규례가 한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32-33절)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모든 규례가 한 이름에서 모인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식탁과 제단 사이에서 한 이름 앞에 서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전반은 식탁(먹는 자), 후반은 제단(드리는 것)이다
- [x] 식탁의 자리가 신분·상황으로 갈린다
- [x] 흠 없는 것이라야 기쁘게 받으신다
- [x] 먹는 자와 드려지는 것 양쪽에 온전함이 요구된다
- [x] 21장(사람의 흠)과 짝이다
- [x] "내 성호를 더럽히지 말라"가 양 끝에 걸린다
- [x] 마지막에 이름과 출애굽으로 모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이름.

미해결 질문

레위기 2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궤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좋은 성물을 먹는데 품꾼은 못 먹는 까닭은?

- 관찰 사실: 둘 다 제사장 집에서 일하나 식탁의 자리가 갈림(10-11절).

- 구분의 까닭을 본문은 설명하지 않음. 목상 단계로 이월.

Q2. 제물 규정 사이에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말라"(28절)가 들어온 까닭은?

- 흠 없는 제물 규정 사이에 결이 다른 한 조항이 끼어듦.
- 그 배치의 까닭은 본문이 말하지 않음. 보존.

Q3. 먹는 자도, 드러지는 것도 "온전함"이 요구되는 까닭은?

- 정결한 자만 먹고, 흠 없는 것만 드림 — 양쪽에 온전함이 걸림.
- 두 축에 같은 요구가 놓인 까닭은 관찰까지. 의미는 목상으로 이월.

Q4. 21장(사람의 흠)과 22장(제물의 흠)을 나란히 둔 까닭은?

- 드리는 자와 드러지는 것의 흠이 두 장으로 짝지어짐.
- 그 짝의 의도는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보존.

Q5. 흠어진 규례가 마지막에 "내 성호를 거룩하게 하라"로 모이는 까닭은?

- 식탁·제단의 모든 조항이 32-33절에서 이름과 출애굽으로 수렴.
- 수렴의 결은 관찰까지. 의미는 목상으로 이월.

Q6. 달는 말에 출애굽("애굽에서 인도하여 낸")이 붙은 까닭은?

- 규례의 근거에 구원 사건이 매여 있는 것처럼 보임.
- 규례와 출애굽이 한 호흡에 놓인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레위기 23장

LEV-023 · 오경 · 히브리어

한 해의 시간이 거룩한 리듬으로 정해진다. 안식일이 먼저 서고, 그 위에 일곱 절기가 줄지어 선다.

관찰된 사실

레위기 2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 — 한 해(첫째 달~일곱째 달)가 무대다.
- 소품: 첫 이삭 한 단(omer, 10절), 떡 두 덩이(17절), 곡식·포도주 소제(13·18절), 나팔(24절), 초막(sukkah)과 종려 가지(40·42절).
- 춤추는 날짜 표지: 첫째 달 14일(5절), 일곱 안식일 + 오십 일(15-16절), 일곱째 달 1일(24절)·10일(27절)·15일(34절).
- 배경에 농경 주기 — 보리·밀·과실 추수가 절기 위에 얹혀 있다 (배경 자료).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날짜가 차례로 호명되는 "줄 세움"의 공기. 달력을 펼쳐 놓은 느낌.
- "성회로 모이고 노동하지 말라"의 반복이 묵직하게 되돌아옴. 초막절에서 절정.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2절: "여호와와 절기 곧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절기들은 이러하니라" — 목록을 예고하며 시작.
- 44절: "모세가 여호와와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 예고대로 성취하며 닫힘.
- 2절·44절의 "여호와와 절기"가 3절 안식일을 사이에 끼워 둔다(안식일을 절기 머리에 얹음).
- 예고(2절)로 열려 성취(44절)로 닫히는 inclusio.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여호와 → 모세 → 이스라엘 자손(온 회중). 실제 "주인공"은 여덟 개의 때.
- 여덟 때: 안식일·유월절·무교절·초실절·칠칠절·나팔절·속죄일·초막절.
- 안식일을 빼면 일곱 절기 — 봄 넷(유월절·무교절·초실절·칠칠절), 가을 셋(나팔절·속죄일·초막절).
- 모든 절기에 "쉽"이 따라붙되 강도가 다름: 안식일·속죄일은 "아무 일도 말라", 다른 절기는 "노동하는 일을 말라".
- 시간이 작은 단위(안식일)에서 큰 단위(한 해)로 거룩해지는 걸.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머리말 + 안식일
- 컷 2 (4-8절): 유월절·무교절

- 컷 3 (9-14절): 초실절(첫 이삭 흔들)
- 컷 4 (15-22절): 칠칠절(오십 일째) + 추수 남김 규제
- 컷 5 (23-25절): 나팔절
- 컷 6 (26-32절): 속죄일(스스로 괴롭게 함)
- 컷 7 (33-43절): 초막절(초막 거함·팔일째)
- 컷 8 (44절): 모세의 공포
- 분기점: 컷 4→컷 5에서 봄 절기→가을 절기로 계절이 넘어감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moed(מוֹעֵד) — 정한 절기/만남의 때. 장 전체를 묶는 핵심어(2·4·44절).
- miqra qodesh(מִקְרָא קֹדֶשׁ) — 거룩한 부름/성회. 각 절기마다 반복.
- Shabbat(שַׁבָּת) — 안식/안식일. 3절 머리에 섬, "안식 중의 안식"(shabbat shabbaton, 속죄일·32절).
- Pesach(פֶּסַח) — 유월절(5절). matsah(מַצֵּה) — 무교병(6절).
- omer(עֹמֶר) — 첫 이삭 한 단/분량 단위(10·15절).
- Shavuot — 칠칠절, "일곱 주"를 세어 이름(15-16절).
- teruah(תְּרוּעָה) — 큰 소리/나팔 소리, 나팔절(24절).
- melakhah(מְלָאכָה) — 노동/일. "노동하는 일을 하지 말라"의 반복어.
- sukkah(סֻכָּה) — 초막(34·42절). dorot(דֹּרוֹת) — 대대로(43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예고(2절)-성취(44절)의 inclusio가 장을 감쌌.
- 안식일(매주)-일곱 절기(한 해)의 두 리듬이 한 목록에 놓임.
- "칠(7)"의 반복: 일곱 절기, 일곱 주, 일곱째 달, 이레, 안식일.
- 초실절·칠칠절이 모두 "안식일 이튿날"(11·15절)을 기점으로 세어짐 — 안식일이 계산의 기준.
- 속죄일에만 "스스로 괴롭게 하라"가 세 번(27·29·32절) — 다른 절기와 결이 다름.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 농경 절기 — 보리(초실절)·밀(칠칠절)·과실(초막절) 추수 주기와 병행 관찰.
- 초막(sukkah)에 거하는 일주일은 수확기 밭 가까운 임시 거처 풍습과 통합.
- 본문은 농사 기원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초막의 이유는 "애굽에서 인도해 낸 광야 기억"으로 스스로 밝힘 (43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레 23 ↔ 출 12장 (유월절·무교절 제정)
- 레 23 ↔ 출 23:14-17 (세 차례 절기)
- 레 23 ↔ 민 28-29장 (절기별 제사 규정 — 짝이 되는 본문)
- 레 23 ↔ 신 16장 (세 절기 재정리)
- 레 23 ↔ 느 8:13-18 (초막절 회복)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매주 옛새 일하고 이레째 손을 멈추는 안식일이 먼저 한 자리에 선다. 그 위에 한 해가 펼쳐진다. 첫째 달 유월절과 무교절, 봄의 첫 이삭을 흔드는 초실절, 오십 일을 세어 떡 두 덩이를 흔드는 칠칠절, 그 한가운데 가난한 이웃을 위해 발모통이를 남기라는 한 줄. 계절이 가을로 넘어가 일곱째 달 나팔 소리가 울리고, 열흘째엔 스스로 괴롭게 하며 가장 깊이 쉬는 속죄일, 열닷새부터 이레 동안 초막에 거하며 광야를 기억하고 팔일째에 다시 모이는 초막절. 그렇게 한 해가 다 돌아간 뒤 모세가 그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공포한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줄지어 돌아오는 거룩한 날들"
- 초벌 부제: "안식일에서 초막절까지, 시간이 거룩한 리듬으로 정해지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moed·Shabbat·omer·teruah·sukkah 등 9개)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농경 절기 배경 + 날짜 표지 + 칠중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8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스스로 괴롭게 하라"(속죄일)를 금욕·고행의 교훈으로 변질 위험 → open_questions에 보존, 묵상 단계로 이월.
- 절기의 신약적 성취(초실절↔부활 등)는 해석 영역이므로 관찰에서는 교차 참조 노드로만 표시.
- 안식일·절기의 시행 세칙(랍비 문헌)은 배경으로만 두고 규정 판단으로 확정하지 않음.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레위기 23장은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을 머리에 두고, 그 위에 봄과 가을의 일곱 절기를 줄지어 세워 한 해 전체를 거룩한 시간의 리듬으로 정하는 절기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성회로 공포할 절기들은 이러하니라"는 예고로 열린다. 먼저 매주의 안식일이 한 칸 서고, 이어 유월절·무교절·초실절·칠칠절의 봄 절기, 나팔절·속죄일·초막절의 가을 절기가 날짜 좌표를 따라 차례로 호명된다. 절기마다 "성회로 모이고 노동하지 말라"가 후렴처럼 되돌아오고, 칠칠절 한가운데엔 가난한 이웃을 위한 추수 남김이 한 줄 끼어든다. 초막절에 이르러 사람들은 초막에 거하며 광야를 기억하고, 한 해가 다 돈 뒤 모세가 그 절기를 그대로 공포한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는 시간(한 해). 소품 — 첫 이삭(omer)·떡 두 덩이·나팔·초막·종려 가지. 춤춘 날짜 표지.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날짜가 차례로 호명되는 "줄 세움". "모이고 쉬라"의 묵직한 반복.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예고 — "공포할 절기들"(2절). 성취 — "공포하였더라"(44절). 안식일을 머리에 끼운 inclusio.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여호와→모세→이스라엘. 주인공은 여덟 때. 안식일을 뺀 일곱 절기(봄 넷·가을 셋). 섬의 강도가 절기마다 다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안식일(1~3). 봄 절기(4~22). 컷 5~7 가을 절기(23~43). 컷 8 공포(44). 봄→가을이 경첩.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안식일이 절기 계산의 기준점. 추수 남김의 끼어듦(22절). 정보 — 초막의 이유를 본문이 직접 밝힘(43절), 속죄일만 "스스로 괴롭게 하라".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매주 안식일→봄 절기→가을 절기→초막의 광야 기억→모세의 공포로 한 해가 돌아가는 흐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줄지어 돌아오는 거룩한 날들". 초벌 부제 — "안식일에서 초막절까지, 시간이 거룩한 리듬으로 정해지다".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한 해의 절기를 차례로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뢴다 — "비워 두라 하신 시간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두 리듬이 한 줄에:** 매주의 안식일과 한 해의 절기가 같은 목록에 놓인다. 가장 작은 섬과 가장 큰 섬이 한 자리에서 호명된다.
- 결 2 — 칠의 반복:** 일곱 절기, 일곱 주, 일곱째 달, 이레, 안식일. "칠"이 장의 골격을 떠받친다.
- 결 3 — 섬 한가운데의 이웃:** 절기 목록 한가운데(22절)에 밭모퉁이를 남기라는 한 줄이 끼어든다. 거룩한 시간이 가난한 이웃을 향해 한 번 열린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레 25장 (안식년·희년으로 시간의 리듬이 땅에까지 확장됨).
- 다른 권 — 출 12·23장 (절기의 첫 제정). 민 28-29장 (절기별 제사로 본문을 보완). 신 16장 (세 절기 재정리). 느 8장 (초막절 회복).
- 정경 흐름 —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결은, 창세기 1장의 이레 창조·안식과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예고의 첫 문장에서 한 사람이 한 해를 통째로 본다.
- 멈춤 1: 매주 안식일이 절기 머리에 서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추수 남김이 절기 한가운데 끼어드는 자리(22절)에서 멈춘다.
- 멈춤 3: 초막에 거하며 광야를 기억하라는 자리(43절)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시간이 비워질 수 있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을 정해 두신 분 앞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예고(2절)로 열려 성취(44절)로 닫힌다
- [x] 안식일이 절기 목록 머리에 선다
- [x] 일곱 절기가 봄·넋·가을 셋으로 줄지어 선다
- [x] "성회로 모이고 노동하지 말라"가 후렴으로 반복된다
- [x] 추수 남김이 절기 한가운데 끼어든다(22절)
- [x] 초막의 이유가 광야 기억으로 밝혀진다(43절)
- [x] 시간이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거룩해진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거룩한 때.

미해결 질문

레위기 2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안식일(매주)이 절기(한 해) 목록 첫머리에 놓인 까닭은?

- 관찰 사실: 3절의 안식일이 4절 이하 절기 목록의 머리에 한 칸 따로 섬.
- 가장 작은 리듬과 가장 큰 리듬이 한 줄에 놓인 까닭을 본문은 설명하지 않음.

Q2. 칠칠절 한가운데 추수 남김 규례(22절)가 끼어든 까닭은?

- 절기 목록 중에 갑자기 "밭모퉁이를 남겨 가난한 자·거류민에게"가 들어옴.
- 본문은 그 배치의 이유를 말하지 않음. 묵상 단계로 이월.

Q3. 속죄일에만 "스스로 괴롭게 하라"가 세 번 나오는 까닭은?

- 다른 절기의 쉽과 결이 다른 쉽(27·29·32절).
- 그 다름의 관찰은 완료. 의미는 뒤로.

Q4. 초막절 "팔일째 성회"(36절)는 이레와 어떤 관계인가?

- 이레로 끝나는 절기에 하루가 더 붙음.
- 그 하루의 뜻을 본문은 따로 풀지 않음.

Q5. 봄 절기(넷)와 가을 절기(셋)의 비대칭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 안식일을 빼 일곱 절기가 봄 넷·가을 셋으로 갈림.
- 그 수의 배치는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6. 초막의 이유만 본문이 직접 밝힌(43절) 까닭은?

- 여러 절기 중 유독 초막절만 "광야 기억"이라는 이유를 본문 스스로 말함.
- 그 밝힘과 침묵의 대비가 질문으로 남음.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레위기 24장

LEV-024 · 오경 · 히브리어

성소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진설병은 늘 새로 놓인다. 그 항상성 사이로 한 사건이 끼어 들고, 같은 잣대가 안과 밖에 동일하게 선다.

관찰된 사실

레위기 2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둘로 나뉜다: 앞(1-9절) 회막 안 등잔대·상 앞, 뒤(10-23절) 진영 안→진영 밖.
- 소품: 순결한 감람유(2절), 등잔대(menorah), 떡 열두 개(여섯씩 두 줄, 5-6절), 유향(levonah, 7절).
- 숫자 표지: 떡 열둘, 여섯씩 두 줄. 사건의 인물은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의 아들(11절).
- 배경에 출애굽기 성막 규정(출 25·27장)과 동해보복(출 21·신 19)이 깔림 (배경 자료).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부분의 차분한 항상성("항상" 반복) → 중간의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공기가 무거워짐.
- 후반 "~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공식의 반복. 마지막은 굳어지기 없이 단호하게 닫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등불을 켜기 위하여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라" — 규례 지시로 시작.
-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행하나라" — 순종(실행)으로 닫힘.
- 규례(1-9절)-사건·보복법(10-22절)-실행(23절)의 액자(frame) 구조.
- 지시로 열려 순종으로 닫히되, 그 가운데 한 사건이 들어앉음.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앞 — 아론·제사장. 뒤 — 이스라엘 여인과 애굽 남자 사이의 아들, 이스라엘 사람, 모세, 온 회중.
- 다투던 중 그 사람이 "이름(ha-Shem)을 모독하며 저주함"(11절).
- 모세가 즉시 판결하지 않고 "여호와와의 명령을 기다림"(12절) — 판결 보류.
- 판결과 동해보복 잣대가 "누구든지"(15절)로 일반화됨.
- "거류민이나 본토인에게 같은 법"(16·22절)이 두 번 강조됨.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절): 등불 — 순결한 기름, 항상 켜 둠
- 컷 2 (5-9절): 진설병 — 열두 개, 여섯씩 두 줄, 안식일마다 새로
- 컷 3 (10-12절): 사건 — 모독, 모세가 가두고 명령을 기다림
- 컷 4 (13-16절): 판결 — 진영 밖 둘로 침, 모독자 일반 규례

- 컷 5 (17-22절): 동해보복 — 생명·상해의 같은 잣대, 거류민·본토인 동일
- 컷 6 (23절): 실행 — 명령하신 대로 행함
- 전환점: 컷 2→컷 3에서 성소 규례→진영 사건으로 무대 전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tamid(תמיד) — 항상/상시. 등불(2·3·4절)·진설병(8절)에 붙음.
- menorah(מנורה) — 등잔대(4절).
- lechem panim(לחם פנים) — 진설병, "얼굴/임재의 떡"(5-6절).
- levonah(לבונה) — 유향(7절).
- naqav(נָקַו) — 꿰뚫다/지정하다/이름을 발설하다. 11·16절, 의미 난해.
- qalal(קָלַל) — 가볍게 여기다/저주하다(11·14·15절).
- ha-Shem(שֵׁם) — "그 이름"(11·16절).
- ger(גֵּר) / ezrach(עֲרָב) — 거류민 / 본토인(16·22절).
- shever tachat shever(שֶׁבַע תַּחַת שֶׁבַע) — "상함은 상함으로"(20절), 동해보복 공식.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규례-사건-보복법-실행의 액자(frame) 구조.
- "항상(tamid)"이 앞부분의 후렴.
- "~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의 대칭 공식이 후반에 반복(shever tachat shever 등).
- 판결이 한 사람의 사건에서 "누구든지"의 보편 규례로 펼쳐짐.
- "거류민이나 본토인에게 같은 법"이 두 번(16·22절) — 안과 밖의 동일 잣대.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 법전(함무라비 등)에 "눈에는 눈" 형태의 대칭 보상 조항이 보고됨. 본문의 20절과 병행 관찰.
- 성소 등잔대·진설병은 회막 안 상시 비치물의 관리 규례에 속함.
- 본문은 ANE 법전과의 직접 비교를 하지 않고, "주는 자가 받는 그대로"의 대칭만 보여 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레 24 ↔ 출 27:20-21 (등불 기름 규례 — 먼저 나온 본문)
- 레 24 ↔ 출 25:30 (진설병 상)
- 레 24 ↔ 출 21:23-25 (눈에는 눈 — 동해보복)
- 레 24 ↔ 신 19:21 (동해보복 재확인)
- 레 24 ↔ 마 5:38-39 (눈에는 눈을 다시 읽음 — 신약의 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회막 안에서 제사장이 순결한 기름으로 등불을 항상 켜 두고, 정금 상에 떡 열두 개를 여섯씩 두 줄로 놓아 안 식일마다 새로 바꾼다. 무대가 진영으로 바뀌어, 이스라엘 여인과 애굽 남자 사이의 한 아들이 다투던 중 그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한다. 모세는 즉시 판단하지 않고 그를 가두어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린다. 명령이 오자 진영 밖에서 돌로 치고, 모독하는 자에 대한 일반 규례가 선포된다. 이어 생명과 상해에 대한 같은 잣대 — 부

러뜨림은 부러뜨림으로, 눈은 눈으로 — 가 펼쳐지고,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같은 법임이 못 박힌다. 끝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신 그대로 행한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꺼지지 않는 등불 곁에서 멈춘 판결"
- 초벌 부제: "성소의 항상성 사이로, 한 사건과 동일한 잣대가 들어오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tamid·menorah·naqav·qalal·shever tachat shever 등 9개)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동해보복 + 성막 규정 + 액자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눈에는 눈"(20절)을 잔혹·복수의 교훈으로 변질 위험 → open_questions에 보존, 목상 단계로 이월.
- 마 5장의 재해석(원수 사랑)은 신약 해석이므로 관찰에서는 교차 참조 노드로만 표시.
- 모독 사건의 도덕적 단정은 피하고, 본문이 보여주는 절차(가둠·기다림·판결)까지만 관찰.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레위기 24장은 꺼지지 않는 등불과 늘 새로운 진설병의 항상성을 양쪽 틀로 두고, 그 가운데 한 신성 모독 사건과 안과 밖에 동일하게 서는 잣대를 들여놓는다.

한 문단: 본문은 순결한 기쁨으로 항상 켜 두는 등불과 안식일마다 새로 놓는 떡으로 열린다. 그 정돈된 항상성 한가운데로 한 사건이 들어온다. 이스라엘 여인과 애굽 남자 사이의 아들이 다투다 그 이름을 모독하고, 모세는 즉시 판단하지 않고 명령을 기다린다. 명령이 오자 판결이 내려지고, 그 판결은 한 사람의 일에서 "누

구든지"의 보편 잣대로 펼쳐진다. 생명과 상해의 같은 대칭, 거류민과 본토인의 같은 법. 그리고 본문은 다시 순종의 실행으로 닫힌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두 무대 — 회막 안(등잔대·상)과 진영 안→밖. 소품 — 순결한 기름·등잔대·떡 열둘·유향.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차분한 항상성("항상" 반복) → 갑작스러운 사건의 무거움. 단호한 닫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 지 기록하기	지시 — "기름을 가져오게 하라"(2절). 순종 —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23절). 규례가 사건을 감싸는 액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제사장 / 모독한 자·모세·온 회중. 판결 보류(12절). "누구든지"로 일반화. 거류민·본토인 동일.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등불(1~4). 컷 2 진설병(5~9). 컷 3 사건·기다림(10~12). 컷 4 판결(13~16). 컷 5 동해보복(17~22). 컷 6 실행(23).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규례 속 사건의 끼어들. 판결의 보류. 정보 — naqav의 난해함, shever tachat shever의 대칭, 안·밖 동일 잣대.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등불·떡의 항상성→진영의 사건→기다림→판결→같은 잣대의 펼침→순종의 실행.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꺼지지 않는 등불 곁에서 멈춘 판결". 초벌 부제 — "성소의 항상성 사이로, 한 사건과 동일한 잣대가 들어오다".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꺼지지 않는 등불 곁을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뢴다 — "즉시 판단하지 않고 기다린 그 멈춤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걸

- 결 1 — 항상성의 틀:** 꺼지지 않는 등불과 늘 새로운 떡이 장의 바깥을 두른다. 변치 않는 것이 변하는 사건을 양쪽에서 감싼다.
- 결 2 — 멈춤의 자리:** 모세가 즉시 판단하지 않고 명령을 기다린다(12절). 판결 한가운데 멈춤이 들어 있다.
- 결 3 — 같은 잣대:** 잣대가 주는 자에게 그대로 돌아오고(shever tachat shever), 거류민과 본토인을 가리지 않는다. 동일함이 두 번 못 박힌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레 23장** (항상성의 시간 리듬, 안식일과 절기). **레 19:18** (이웃을 향한 같은 걸).
- 다른 권 — **출 25·27장** (등불·진설병의 첫 규정). **출 21·신 19장** (동해보복). **마 5:38-39** (눈에는 눈을 다시 읽음).
- 정경 흐름 — 한 개별 사건에서 보편 잣대로 펼쳐지는 걸은, 율법이 사례에서 원리로 자라는 결과 마주 본다.

E·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꺼지지 않는 등불의 항상성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정돈된 규례 사이로 한 사건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모세가 판단을 보류하고 기다리는 자리(12절)에서 멈춘다.
- **멈춤 3:** 잣대가 안과 밖에 동일하게 서는 자리(22절)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변치 않는 것이 변하는 일을 감싼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즉시 판단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지시(2절)로 열려 순종(23절)으로 닫힌다
- [x] 등불·떡의 항상성이 사건을 양쪽에서 감싼다
- [x] 모세가 판결을 보류하고 명령을 기다린다(12절)
- [x] 판결이 한 사람에서 "누구든지"로 펼쳐진다
- [x] 같은 잣대가 주는 자에게 그대로 돌아온다(20절)
- [x] 거류민과 본토인에게 같은 법이 두 번 못 박힌다
- [x] 규례-사건-규례의 액자가 한 장을 이룬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같은 잣대.

미해결 질문

레위기 2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등불·진설병 규례 사이에 신성모독 사건이 끼어든 까닭은?

- 관찰 사실: 성소 항상성 규례(1-9절)와 실행(23절) 사이에 한 사건(10-22절)이 들어앉음.
- 두 이야기의 관계를 본문은 설명하지 않음. 묵상 단계로 이월.

Q2. 모세가 즉시 판결하지 않고 "명령을 기다린"(12절) 까닭은?

- 율법서에서 판결이 보류되는 드문 장면.
- 그 멈춤의 뜻을 본문은 따로 풀지 않음.

Q3. "눈에는 눈, 이에는 이"(20절)는 어떻게 시행되는가?

- 문자 그대로인지 보상의 원리인지 본문은 자세히 말하지 않음.
- 그 대칭의 관찰은 완료. 시행 방식은 뒤로.

Q4. naqav(11·16절)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가?

- "궤뿔다/지정하다/이름을 발설하다" 등으로 읽히는 난해어.
-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보존.

Q5. "거류민이나 본토인에게 같은 법"(16·22절)을 두 번 못 박은 까닭은?

- 안에 있는 자와 밖에서 온 자에게 동일 잣대.
- 그 강조의 반복은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6. 한 개인의 사건이 "누구든지"의 보편 규례로 펼쳐진 까닭은?

- 개별 판결(13-16절)이 일반 잣대(17-22절)로 확장됨.
- 그 확장의 방향이 질문으로 남음.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레위기 25장

LEV-025 · 오경 · 히브리어

안식의 리듬이 땅에까지 내려온다. 일곱 해마다 땅이 쉬고, 일곱 안식년 뒤 희년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관찰된 사실

레위기 2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시내 산(1절)에서 그려지는 약속의 땅 — 밭·포도원·집·성읍.
- 소품: 거두지 않은 곡식·저절로 난 것(5절), 빨나팔(Yovel의 어원, 9절), 집·종·돈.
- 햇수 표지: 여섯 해/일곱째 해(3-4절), 일곱 안식년=49년(8절), 오십 년(10절), 속죄일의 나팔(9절).
- 배경에 무르기(geulah)·고엘 제도, 고대 근동의 자유 선포 칙령(anduraru)이 깔림 (배경 자료).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땅이 숨 쉬고, 묶인 것이 풀리고, 떠난 것이 돌아오는 공기. "돌아갈지며·무를지니"의 반복이 포근함.
- 무대가 밭→집→사람으로 점점 넓어짐. 끝에 deror(자유)가 크게 울림.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2절: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 땅의 안식으로 시작.
- 55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니...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종들이라" — 사람의 소속으로 닫힘.
- 땅(흙)에서 사람으로 옮겨가는 점층. 각 단락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38·55절)가 후렴.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여호와(시내 산에서 말씀) → 모세. 그 안에 땅 주인·가난한 형제·무를 친족(goel)·종이 된 자·산 외 국민.
- "땅은 다 내 것"(23절) — 사람은 그 땅의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gerim ve-toshavim).
- 같은 말(거류민·품꾼)이 하나님 앞 사람의 처지에도, 형제 앞 종의 처지에도 쓰임(23·40절).
- 곤궁의 4단계: 땅을 팔(25절)→살길 막힘(35절)→자신을 팔(39절)→외국인에게 팔림(47절). 각 단계마다 무르는 길.
- 모든 길의 끝에 희년 — 무를 자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돌아감(28·41·54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7절): 땅의 안식년
- 컷 2 (8-12절): 희년 — 속죄일 나팔, 자유 선포
- 컷 3 (13-22절): 매매의 공정 — 희년까지 햇수로 값, 삼 년 소출의 복

- 컷 4 (23-34절): "땅은 내 것" — 무르기, 성읍 집·레위인의 예외
- 컷 5 (35-38절): 가난한 형제 — 이자·이익 금지
- 컷 6 (39-46절): 종이 된 형제 — 품꾼같이, 희년 해방
- 컷 7 (47-55절): 외국인에게 팔린 형제 — 무를 권리, 희년 해방
- 흐름: 땅·시간(컷 1-2)에서 사람의 곤궁(컷 5-7)으로 좁혀듦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Shabbat ha-arets(שַׁבַּת הָאָרֶץ) — 땅의 안식(2·4·6절).
- Yovel(יּוֹבֵל) — 희년. 본래 "숫양의 뿔/뿔나팔"(8-13절).
- deror(דֶּרוֹר) — 자유/놓아줌(10절). "온 땅에 자유를 선포하라".
- geulah(גְּאוּלָּה) / gaal(גָּאֵל) — 무름/무르다(24·25·48절). goel — 무를 친족.
- achuzah(אֲחֻזָּה) — 기업/소유지. "그 기업으로 돌아갈지며"(10·13절).
- gerim ve-toshavim(גֵּרִים וְתוֹשָׁבִים) — 거류민과 동거하는 자(23절).
- sakhir(שָׂכִיר) — 품꾼(40·53절). 종을 품꾼같이 대하라.
- shofar(שׁוֹפָר) — 나팔(9절, "shofar teruah" 큰 소리의 나팔).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안식의 리듬이 사람(23장)에서 땅(25장)으로 내려옴 — 같은 칠(7)의 박자.
- 희년이 "속죄일"(9절)에 나팔로 시작 — 가장 깊은 쉼의 날에 자유.
- "땅은 다 내 것"(23절)이 모든 규례의 중심축.
- 곤궁의 점층(25→35→39→47절)과 각 단계의 무르기.
-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애굽에서 인도해 낸"의 동기절(motive clause) 반복.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 일부 왕의 즉위 칙령에 부채 탕감·노예 해방 선포(misharum/anduraru)가 보고됨. deror와 어원적 친족.
- 친족이 잃은 땅·종을 되사 주는 무르기(redemption) 관행이 배경.
- 본문은 ANE 칙령과의 직접 비교를 하지 않고, "땅은 내 것"이라는 근거 위에 규례를 세움.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레 25 ↔ 출 23:10-11 (땅의 안식년)
- 레 25 ↔ 출 21:2-6 (육 년 종, 칠 년째 자유)
- 레 25 ↔ 레 23장 (절기의 안식 리듬 — 사람의 안식)
- 레 25 ↔ 신 15장 (면제년·종 해방)
- 레 25 ↔ 사 61:1-2 / 눅 4:18-19 (deror 자유의 선포 — 신약의 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시내 산에서 말씀이 약속의 땅을 그린다. 여섯 해 밭을 갈고 일곱째 해엔 땅이 통째로 쉰다. 일곱 안식년이 지난 오십 년째, 속죄일에 뿔나팔이 온 땅에 울려 자유가 선포된다. 팔렸던 땅이 본래 기업으로, 떠난 사람이 가

족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매매는 희년까지 남은 햇수로 값을 정하니, "땅은 다 내 것"이요 사람은 그 손님이기 때문이다. 형제가 가난해 땅을 팔면 친족이 무르고, 살길이 막히면 이자 없이 붙들어 주며, 자신을 팔면 종이 아니라 품꾼처럼 대하고 희년에 놓아준다. 외국인에게 팔린 형제에게도 무를 권리와 희년의 해방이 남는다. 끝으로 "이스라엘은 나의 종들"이라는 말씀이 모든 규례의 근거로 박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은 땅에 선포된 자유"
- 초벌 부제: "땅이 쉬고, 무른 것이 돌아오며, 종이 자유로 풀리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Shabbat ha-arets·Yovel·deror·geulah·sakhir 등 8개)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자유 선포 칙령 + 무르기 제도 + 점층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7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희년·자유 선포를 현대 사회·경제 정책의 교훈으로 번질 위험 → open_questions에 보존, 묵상 단계로 이월.
- 사 61장·눅 4장의 deror 성취는 신약 해석이므로 관찰에서는 교차 참조 노트로만 표시.
- 종 규례의 도덕적 판단은 피하고, 본문이 보여주는 단계와 무르기까지만 관찰.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레위기 25장은 안식의 리듬을 땅에까지 내려, 일곱 해마다 흙이 쉬고 오십 년째 나팔과 함께 땅과 사람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는 안식년·희년의 규례다.

한 문단: 본문은 땅의 안식으로 열린다. 여섯 해 갈던 밭이 일곱째 해엔 통째로 쉰다. 일곱 안식년이 지난 오십 년째, 속죄일의 빨나팔이 온 땅에 자유를 선포하고, 팔렸던 땅과 떠난 사람이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그 한 가운데 "땅은 다 내 것"이라는 근거가 박혀, 사람은 그 땅의 손님이 된다. 곤궁이 땅을 밟아 종이가 되기까지 단계로 깊어져도 각 단계마다 무르는 길이 열리고, 끝내 희년이 모두를 풀어 준다. 본문은 "이스라엘은 나의 종들"이라는 소속으로 닫힌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시내 산에서 그려지는 약속의 땅. 소품 — 밭·저절로 난 것·빨나팔(Yovel)·집·종. 춤춘 한 햇수 표지.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땅이 숨 쉬고 묶인 것이 풀리는 공기. "돌아갈지며·무를지니"의 반복. deror(자유)가 크게 울림.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땅의 안식(2절)으로 열려 사람의 소속(55절)으로 닫힘. 흠→사람의 짐승.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여호와→모세. 땅 주인·가난한 형제·무를 친족·종. "땅은 내 것"(23절). 곤궁의 4단계와 무르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땅의 안식(1~7). 컷 2 희년(8~12). 컷 3 매매(13~22). 컷 4 무르기(23~34). 컷 5~7 가난·종·외국인(35~55).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안식 리듬의 땅 확장. 속죄일의 나팔. 정보 — deror·Yovel·goel의 결, ANE 자유 척령, "땅은 내 것"의 중심축.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땅의 안식→희년의 나팔과 자유→제자리로 돌아감→곤궁의 단계와 무르기→희년의 해방→"나의 종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온 땅에 선포된 자유". 초벌 부제 — "땅이 쉬고, 무른 것이 돌아오며, 종이 자유로 풀리다".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나팔이 울리는 희년의 자리를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뢴다 — "어느 길로도 돌아갈 자리를 남기신 것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땅에까지 내려온 안식:** 사람의 안식 리듬(23장)이 흠의 안식(25장)으로 확장된다. 같은 칠(7)의 박자가 땅에 닿는다.
- 결 2 — 제자리로 돌림:** 희년에 팔렸던 땅과 떠난 사람이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어떤 매매도 영구하지 않다.
- 결 3 — 남겨진 돌아갈 길:** 곤궁이 깊어질수록 무르는 길이 단계로 열리고, 끝내 희년이 모두를 풀어 준다. 막다른 자리가 없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레 23장** (사람의 안식 리듬 — 그 리듬이 여기서 땅에까지 내려옴). **레 26장** (땅의 안식과 언약의 복·저주가 이어짐).
- 다른 권 — **출 21·23장** (종·땅의 안식 첫 규정). **신 15장** (면제년). **사 61·눅 4장** (deror 자유의 선포).

- 정경 흐름 — 빛과 종에 갇힌 자에게 돌아갈 자리를 정해 두는 결은, 출애굽(애굽에서 인도해 념)의 기억과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땅이 쉬는 일곱째 해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속죄일의 나팔이 자유를 선포하는 자리(9-10절)에서 멈춘다.
- 멈춤 2: "땅은 다 내 것, 너희는 손님"이라는 자리(23절)에서 멈춘다.
- 멈춤 3: 곤궁의 끝에도 무르는 길이 남은 자리(47-54절)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어느 자리에서도 돌아갈 길이 있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땅도 사람도 제자리로 돌리시는 분 앞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땅의 안식(2절)으로 열려 사람의 소속(55절)으로 닫힌다
- [x] 일곱의 박자가 흠의 안식에까지 내려온다
- [x] 희년이 속죄일 나팔로 자유를 선포한다(9-10절)
- [x] 팔린 땅과 떠난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 [x] "땅은 다 내 것"이 모든 규례의 중심에 선다(23절)
- [x] 곤궁의 단계마다 무르는 길이 열린다
- [x] 끝내 희년이 모두를 풀어 준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자유.

미해결 질문

레위기 2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안식의 리듬이 사람에서 땅으로 내려온 까닭은?

- 관찰 사실: 23장의 사람의 안식이 25장에서 땅의 안식으로 확장됨.
- 같은 칠(7)의 박자가 흠에 닿은 까닭을 본문은 설명하지 않음. 묵상 단계로 이월.

Q2. 희년이 하필 "속죄일"(9절)에 나팔로 시작되는 까닭은?

- 가장 깊은 쉼의 날에 자유가 선포됨.
- 그 배치의 뜻을 본문은 따로 풀지 않음.

Q3. 안식년과 희년이 연달아 올 때 양식 문제는 어떻게 시행되었는가?

- 본문은 "삼 년 동안 쓸 소출의 복"(21절)으로 답하나, 실제 시행은 자세히 말하지 않음.
- 그 시행 방식은 관찰까지. 묵상으로 이월.

Q4. 성읍의 집(30절)과 레위인의 집(32-33절)의 규례가 다른 까닭은?

- 같은 집인데 희년에 돌아옴/안 돌아옴이 갈림.
- 그 다름의 까닭을 본문은 길게 풀지 않음.

Q5. 종이 된 형제를 "품꾼같이"(40절) 대하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 같은 사람이 종이어도 그 처지를 달리 보라는 걸.
- 그 달리 봄의 관찰은 완료.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6. "땅은 다 내 것"(23절)이 모든 규례의 중심에 놓인 까닭은?

- 무르기와 희년의 모든 규례가 이 한 문장 위에 섬.
- 그 소유의 근거가 질문으로 남음.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레위기 26장

LEV-026 · 오경 · 히브리어

"만일 ~하면"이 두 갈래로 갈린다. 복과 저주가 조건절 대구로 점층하고, 그 끝에도 언약을 기억하심이 남는다.

관찰된 사실

레위기 2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약속의 땅 위에 겹친 두 미래 — 풍요로운 땅과 황폐한 땅.
- 복의 소품: 때를 따르는 비(4절), 곡식·열매, 평안(shalom, 6절), 칼 없는 땅, 곧게 세워 걷게 함 (qomemiyut, 13절).
- 저주의 소품: 늦 같은 하늘(19절), 들짐승, 칼, 전염병, 황폐한 성읍·성소(31절), 흠어짐.
- 숫자 표지: "일곱 배"가 네 번(18·21·24·28절)으로 저주를 네 마디로 끊음.
- 배경에 안식년(25장, 26:34-35로 연결)과 ANE 조약 축복·저주 양식이 깔림 (배경 자료).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두 갈래 길이 갈림 — 환함과 점점 어두워짐. "일곱 배"의 반복으로 강도가 한 단씩 오름.
- 복은 짧고 저주는 길. 끝에서 "그래도 기억하리라"로 분위기가 한 번 더 돌아섬.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 명령으로 시작.
- 46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 봉인으로 닫힘(레위기 본체를 닫는 결).
- 닫히기 직전(40-45절) "그래도 언약을 기억하리라"로 한 번 더 반전.
- 야곱·이삭·아브라함을 거꾸로 호명(42절) — 가까운 데서 먼 데로 거슬러 올라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여호와(1인칭 "내가") ↔ "너희" 이스라엘(2인칭). 거의 1:2인칭 대화.
- "내가" 주고·행하고·기억하리라 — 행하시는 분이 한 분으로 또렷.
- 두 길의 문이 사람 쪽에 — "만일 너희가 듣고 행하면"(3절) / "만일 듣지 아니하면"(14절).
- 저주의 단계마다 "그래도 청종하지 아니하면" 반복(18·21·23·27절) — 돌이킬 여지를 남김.
- 듣지 않음(14절)에서 자복(vidui, 40절)으로 결이 바뀜.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절): 머리말 — 우상 금지·안식일·성소
- 컷 2 (3-13절): 순종의 복 — 비·평안·동행·곧게 세움

- 컷 3 (14-17절): 저주 1단계 — 놀람·병·쫓김
- 컷 4 (18-22절): 저주 2단계 — 일곱 배, 낮 하늘, 들짐승
- 컷 5 (23-26절): 저주 3단계 — 칼·전염병·양식 끊김
- 컷 6 (27-39절): 저주 4단계 — 성읍·성소 황폐, 흠어짐, 땅의 안식
- 컷 7 (40-46절): 반전·봉인 — 자복하면 언약 기억, 규례의 매듭
- 두 꺾임: 컷 2→3(복→저주), 컷 6→7(바닥→기억)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im(ים) — 만일. 두 길의 입구(3·14절).
- berit(ברית) — 언약(9·15·25·42·44·45절).
- shalom(שלום) — 평안/온전함(6절).
- qomemiyut(קוממינות) — 곧게 세워 견게 함(13절).
- sheva(שבע) — 일곱(배). "일곱 배로"(18·21·24·28절).
- zakhar(זָכַר) — 기억하다. 행동으로 옮기는 기억(42·45절).
- Shabbatot(שַׁבָּתוֹת) — 안식들. "땅이 안식을 누리리라"(34·35절).
- yasar(יָסַר) — 징계하다(18·28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조건절 대구 — "만일 ~하면"(3절, 복) ↔ "만일 ~하지 아니하면"(14절, 저주)의 같은 틀.
- "일곱 배"(sheva)가 저주를 네 마디로 점층(18·21·24·28절).
- 분량 비대칭 — 복은 짧고(3-13절) 저주는 길(14-39절).
- "그래도 청종하지 아니하면"의 반복이 각 단계에 돌이킬 여지를 남김.
- 조상 호명의 역순(야곱→이삭→아브라함, 42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 종주-봉신 조약 문서가 끝에 순종의 복·배반의 저주를 나열하는 양식이 보고됨. 본문의 복·저주 구조와 병행 관찰.
- "일곱 배로" 점층하는 단계적 징벌 표현이 ANE 문헌에도 보임.
- 본문은 조약 양식과의 직접 비교를 하지 않고, "내 언약"의 결로 매듭을 지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레 26 ↔ 레 25장 (땅의 안식 — 26:34-35로 연결)
- 레 26 ↔ 출 23:20-33 (가나안에서의 복 약속)
- 레 26 ↔ 신 28장 (축복과 저주 — 평행 본문)
- 레 26 ↔ 신 30:1-10 (회복 약속)
- 레 26 ↔ 느 9장 (언약 기억의 기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머리말이 이상 금지와 안식일·성소 경외로 선다. 그리고 두 길이 갈린다. 만일 규례를 따르면 때를 따르는 비와 평안과 동행, 곧게 세워 견게 하심의 복이 온다. 만일 청종하지 않으면 놀람과 병과 쫓김이 시작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일곱 배로 더해져 낮 하늘과 들짐승, 칼과 전염병과 끓긴 양식, 끝내 황폐한 성읍과 성소, 원수의 땅으로의 흠어짐에 이른다. 그 빈 땅은 못 누린 안식을 누린다. 그러나 가장 깊은 바닥에서 그들이 죄악을 자복하고 마음이 낮아지면, 여호와께서 야곱·이삭·아브라함의 언약과 그 땅을 기억하시고, 원수의 땅에서도 아주 버리지 않으신다. 끝으로 이 모든 것이 시내 산에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으로 봉인된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두 갈래 길과, 그래도 기억하심"
- 초벌 부제: "복과 저주가 점층하고, 그 끝에도 언약을 기억하심이 남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im·berit·shalom·qomemiyut·sheva·zakhar 등 8개)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조약 축복·저주 양식 + 안식년 연결 + 조건절 대구)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7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저주를 현대의 인과응보·변영신학으로 변질 위험 → open_questions에 보존, 묵상 단계로 이월.
- 신 28장·30장의 회복 약속은 평행 본문으로 교차 참조 노드에만 표시.
- 복·저주의 도덕적 단정은 피하고, 본문이 보여주는 조건절 대구와 점층, 기억의 반전까지만 관찰.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레위기 26장은 "만일 ~하면"의 같은 문법으로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두 길로 갈라 세우고, 저주를 일곱 배씩 네 단계로 점층시킨 뒤, 가장 깊은 바닥에서 그래도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돌아선다.

한 문단: 본문은 우상 금지와 안식일·성소 경외의 머리말로 열린다. 그리고 두 길이 갈린다. 순종의 길엔 때를 따르는 비와 평안과 동행, 곧게 세워 견게 하심의 복이 짧게 빛난다. 불순종의 길엔 놀람·병·쫓김에서 시작해 "일곱 배로" 거듭 더해지는 저주가 길게 점층한다. 각 단계엔 "그래도 청종하지 아니하면"이 붙어 돌이킬 여지를 남긴다. 끝내 성읍과 성소가 황폐하고 백성이 흩어진 자리, 그 바닥에서 자복이 올라오면 여호와께서 조상의 언약과 땅을 기억하시고 아주 버리지 않으신다. 모든 것이 시내 산의 규례로 봉인된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약속의 땅에 겹친 두 미래. 복의 소품(비·평안·곧게 세움)과 저주의 소품(눗 하늘·들짐승·황폐). "일곱 배"의 마디.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두 갈래 길의 갈림 — 환함과 어두움. "일곱 배"의 점층. 끝의 돌아섬.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명령(1-2절)으로 열려 봉인(46절)으로 닫힘. 직전(40-45절)에 "그래도 기억하라"로 반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여호와("내가") ↔ "너희". 두 길의 문이 사람 쪽. 듣지 않음→자복(40절). 단계마다 돌이킬 여지.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머리말. 컷 2 복(3~13). 컷 3~6 저주의 4단계(14~39). 컷 7 반전·봉인(40~46). 두 꺾임.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조건절 대구(im). 분량 비대칭. 정보 — "일곱 배" 점층, 25장 안식과의 맞물림(34절), zakhar의 행동하는 기억.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머리말→복의 환한 길→저주의 점층하는 길→바닥의 자복과 기억→규례의 봉인.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두 갈래 길과, 그래도 기억하심". 초벌 부제 — "복과 저주가 점층하고, 그 끝에도 언약을 기억하심이 남다".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두 길이 갈리고 돌아서는 자리를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뢰다 — "바닥에서도 아주 버리지 않으심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같은 문법, 두 미래:** "만일 ~하면"의 조건절이 복과 저주를 같은 틀로 마주 세운다. 갈림의 문은 사람 쪽에 있다.
- 결 2 — 점층과 여지:** 저주가 "일곱 배"로 네 마디 점층하되, 매 단계에 "그래도 청종하지 아니하면"이 붙어 돌이킬 문을 남긴다.
- 결 3 — 바닥에서의 기억:** 가장 깊은 자리에서 저주가 기억으로 돌아선다. zakhar는 떠올림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기억이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레 25장 (땅의 안식 — 26:34-35로 직접 맞물림). 레위기 본체의 마지막 큰 단락으로, 27장은 부록처럼 이어짐.
- 다른 권 — 신 28장 (축복과 저주의 평행 본문). 신 30:1-10 (회복 약속). 느 9장 (언약 기억의 기도).
- 정경 흐름 — 조건의 갈림 끝에도 "버리지 않으심"이 남는 결은, 정경 전체가 언약의 신실하심을 거듭 되짚는 결과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우상 금지와 안식의 머리말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두 길이 같은 "만일"로 갈리는 자리(3:14절)에서 멈춘다.
- 멈춤 2: 저주의 단계마다 돌이킬 여지가 남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바닥에서 "그래도 기억하리라"가 들어오는 자리(42:45절)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가장 깊은 자리에도 버리지 않으심이 남는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두 길의 갈림 앞,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 앞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명령(1-2절)으로 열려 봉인(46절)으로 닫힌다
- [x] "만일 ~하면"이 복과 저주를 같은 틀로 가른다
- [x] 저주가 "일곱 배"로 네 단계 점층한다
- [x] 복은 짧고 저주는 길다
- [x] 각 단계에 돌이킬 여지가 남는다
- [x] 바닥에서 자복이 올라오면 언약을 기억하신다
- [x] 땅의 안식(25장)과 한 단어로 맞물린다(34절)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기억.

미해결 질문

레위기 2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꺾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복은 짧고 저주는 긴(분량 비대칭) 까닭은?

- 관찰 사실: 복 약 11절, 저주 약 26절.

- 그 분량의 까닭을 본문은 설명하지 않음. 목상 단계로 이월.

Q2. 저주가 "일곱 배"로 네 단계 점층하는 까닭은?

- 같은 "일곱 배"가 네 번(18·21·24·28절) 마디를 끊음.
- 그 점층의 뜻을 본문은 따로 풀지 않음.

Q3. 가장 깊은 바닥에서 "그래도 기억하리라"(42·45절)가 오는 까닭은?

- 저주의 끝에 약속이 다시 옴.
- 그 돌아섬의 이유를 본문은 길게 풀지 않음. 관찰까지만.

Q4. 조상을 야곱→이삭→아브라함의 역순(42절)으로 호명한 까닭은?

- 보통 순서를 뒤집어 가까운 데서 먼 데로 거슬러 올라감.
- 그 역순의 까닭을 본문은 설명하지 않음.

Q5. "땅이 안식을 누리리라"(34·35절)가 25장과 맞물린 까닭은?

- 사람이 못 지킨 땅의 안식을 황폐한 동안 땅이 채움.
- 두 장을 잇는 한 단어(안식)의 관찰은 완료. 의미는 목상으로 이월.

Q6. 각 저주 단계에 "그래도 청종하지 아니하면"이 붙어 돌이킬 여지를 남긴 까닭은?

- 매 단계가 닫힌 끝이 아니라 다음으로 넘어가는 문을 뚫.
- 그 남긴 여지가 질문으로 남음.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레위기 27장

LEV-027 · 오경 · 히브리어

자원하여 드린 것에 값을 매긴다. 무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같리고, 십일조가 레위기를 닫는다.

관찰된 사실

레위기 2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성소 앞, 제사장 앞의 평가대 — 서원한 것의 값을 매기는 자리.
- 소품: 값으로 환산되는 사람(나이·성별)·짐승(정한 것/부정한 것)·집·밭, 곡식·가축의 십일조.
- 단위: 성소의 세겔(shekel ha-qodesh), 무를 때 더하는 오분의 일(chomesh).
- 배려: 가난하면 "제사장 앞에 세우고 형편대로 값을 정함"(8절).
- 토지 값은 희년까지 헛수로(17-18절) — 25장과 맞물림. ANE 성소 봉헌·평가 관행이 배경 (배경 자료).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회계 장부처럼 값이 또렷이 매겨지는 셈의 공기. "오분의 일을 더하라"의 반복.
- 26장 뒤의 부록 같은 결. 그러나 마지막 봉인 한 줄이 같은 무게로 닫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2절: "특별한 서원을 하여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려면" — 서원의 값으로 시작.
- 34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 시내 산의 봉인으로 닫힘.
- 34절이 26:46과 거의 같음 — 26장에 이어 두 번째 봉인. 27장이 부록(appendix)의 결.
- "시내 산에서 명령하신" 문구가 레위기를 책 차원에서 감쌈.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여호와→모세. 서원하는 사람 / 값을 매기는 제사장. 대상 — 사람·짐승·집·밭.
-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할지니"의 반복(8·12·14절).
- 거의 모든 것은 무를 수 있음 — 무를 땀 오분의 일을 더함.
- 예외: 처음 난 것(bekhor)은 이미 여호와의 것이라 서원 불가(26절). cherem(28-29절)은 무를 수 없음.
- 두 결의 대조: 값을 매겨 무르는 것(erekh·pidyon) ↔ 값을 매길 수 없이 온전히 바쳐진 것(cherem).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8절): 사람의 값 — 나이·성별, 가난하면 형편대로
- 컷 2 (9-13절): 짐승의 값 — 정한 것 거룩, 부정한 것 무름
- 컷 3 (14-15절): 집의 값 — 무르면 오분의 일

- 컷 4 (16-25절): 밭의 값 — 희년까지 헛수로, 무르기·귀속
- 컷 5 (26-27절): 처음 난 것 — 서원 불가
- 컷 6 (28-29절): cherem — 무를 수 없음
- 컷 7 (30-34절): 십일조 + 봉인
- 대조의 자리: 컷 1-5(무를 수 있음) ↔ 컷 6(cherem, 무를 수 없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neder(נָדַר) — 서원(2절).
- erekh(עָרַךְ) — 정한 값/평가액(2-8·12절 등).
- cherem(כֶּרֶם) — 온전히 바친 것/구별한 것, "지극히 거룩"(28-29절). 무를 수 없음.
- ma'aser(מַעֲשֵׂר) — 십일조(30·32절).
- gaal(גָּאַל) / pidyon(פִּדְיוֹן) — 무르다/무름(13·31절 등).
- chomesh(חֹמֶשׁ) — 오분의 일(13·15·19·31절).
- shekel ha-qodesh(שֶׁקֶל הַקֹּדֶשׁ) — 성소의 세겔, 평가 기준(3·25절).
- bechor(בְּכוֹר) — 처음 난 것(26절). 이미 여호와와의 것.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등급별 값 매김(graded valuation) — 사람·짐승·집·밭 순으로 사례법(case law) 나열.
- "오분의 일을 더하라"(chomesh)의 반복이 무르기의 후렴.
- 무를 수 있는 것(컷 1-5)과 무를 수 없는 것(cherem, 컷 6)의 대조.
- 34절 봉인이 26:46과 평행 — 27장이 부록임을 구조로 보여 줌.
- "시내 산에서 명령하신"이 레위기를 책 차원에서 감싸는 inclusio.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에 사람·짐승·토지를 성소에 봉헌하고 정한 값으로 무르는 관행이 보고됨. 본문의 값 매김과 병행 관찰.
- "성소의 세겔"은 봉헌물 평가의 기준 단위.
- 본문은 ANE 관행과의 직접 비교를 하지 않고,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는 결로 값을 정함.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레 27 ↔ 레 25장 (희년·무르기 — 토지 값과 직접 연결)
- 레 27 ↔ 민 30장 (서원의 규례)
- 레 27 ↔ 신 23:21-23 (서원은 지체 말 것)
- 레 27 ↔ 수 6:17-19 (여리고의 cherem)
- 레 27 ↔ 사 11:30-40 (입다의 서원)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누군가 특별한 서원을 하고 성소 앞에 선다. 제사장이 사람의 값을 나이와 성별에 따라 매기고, 가난한 이는 형편대로 정해 준다. 짐승은 정한 것이면 그대로 거룩해 바꾸지 못하고, 부정한 것이면 값을 매겨 무를 때 오

분의 일을 더한다. 집도 밭도 제사장이 값을 정하되, 밭은 희년까지 남은 햇수로 셈하고 무르지 않으면 희년에 제사장의 것이 된다. 그러나 처음 난 것은 이미 여호와와의 것이라 따로 바칠 수 없고, 온전히 바친 cherem은 지극히 거룩하여 팔지도 무르지도 못한다. 끝으로 곡식과 가축의 십일조가 여호와와의 것임을 정하고, "이것은 시내 산에서 명령하신 계명"이라는 봉인으로 레위기가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무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초벌 부제: "서원과 헌물의 값, 그리고 십일조 — 레위기를 닫는 부록"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neder·erekh·cherem·ma'aser·chomesh·bekhor 등 8개)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성소 봉헌·평가 + 성소 세겔 + 부록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7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십일조·서원을 현대의 현금 규정·의무로 번질 위험 → open_questions에 보존, 묵상 단계로 이월.
- 29절 cherem의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윤리 단정 없이 본문의 난해 구절로 보존,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음.
- 입다의 서원(삿 11장) 등 후대 사건은 교차 참조 노트로만 표시.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레위기 27장은 자원하여 서원한 것에 제사장이 값을 매겨 무르게 하되, 처음 난 것과 온전히 바친 cherem만은 무를 수 없이 구별해 두고, 십일조로 책을 닫는 부록이다.

한 문단: 본문은 서원한 사람의 값을 매기는 평가대로 열린다. 사람·짐승·집·밭이 차례로 값으로 환산되고, 무르려는 자는 오분의 일을 더한다. 가난한 이는 형편대로 값을 정해 받고, 밭의 값은 희년까지 남은 햇수로 셈한다. 그러나 처음 난 것은 이미 여호와와 의 것이라 바칠 수 없고, 온전히 바친 cherem은 지극히 거룩하여 무를 수 없다. 끝으로 곡식과 가축의 십일조가 여호와와 의 것으로 정해지고, "시내 산에서 명령하신 계명"이라는 봉인이 레위기 전체를 닫는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제사장 앞 평가대. 소품 — 값으로 환산되는 사람·짐승·집·밭·십일조. 성소의 세겔, 오분의 일.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회계 장부 같은 셈의 공기. "오분의 일을 더하라"의 반복. 26장 뒤 부록의 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서원의 값(2절)으로 열려 시내 산의 봉인(34절)으로 닫힘. 26:46과 평행한 두 번째 봉인.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서원하는 자 / 값을 매기는 제사장. 거의 다 무를 수 있음(오분의 일). 예외 — bekhor·cherem.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사람(1~8). 컷 2 짐승(9~13). 컷 3 집(14~15). 컷 4 밭(16~25). 컷 5 처음 난 것(26~27). 컷 6 cherem(28~29). 컷 7 십일조·봉인(30~34).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두 번 봉인되는 부록 구조. 환산되지 않는 cherem. 정보 — 밭 값과 희년(25장)의 맞물림, 지팡이 아래 열째(32절).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서원의 평가대→사람·짐승·집·밭의 셈→cherem·처음 난 것의 갈림→십일조→시내 산의 봉인.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별 제목 — "무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초별 부제 — "서원과 헌물의 값, 그리고 십일조 — 레위기를 닫는 부록".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값을 매기던 평가대 걸을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뢰다 — "값으로 환산되지 않는 한 자리를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값을 매기는 자리:** 자원한 헌신도 제사장 앞에서 값으로 환산되고, 무르려는 자는 오분의 일을 더한다. 헌신에 셈이 따른다.
- 결 2 — 매길 수 없는 한 가지:** 처음 난 것과 cherem만은 값으로 무를 수 없다. 모든 것이 환산되는 장에서 환산되지 않는 자리가 박힌다.
- 결 3 — 두 번의 봉인:** 26:46이 본체를 닫고, 27:34가 부록을 다시 닫는다. 같은 시내 산의 도장이 레위기 전체를 감싼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레 25장** (희년·무르기 — 밭 값이 여기 직접 들어옴). **레 26장** (책 본체의 봉인 — 27장이 그 뒤 부록).
- 다른 권 — **민 30장** (서원의 규례). **신 23장** (서원은 지체 말 것). **수 6장** (여리고의 cherem). **삿 11장** (입다의 서원).

- 정경 흐름 — 레위기가 서원·십일조의 실무로 닫히고, 다음 권 민수기는 시내 산을 떠나는 광야의 여정으로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서원의 값을 매기는 평가대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가난한 이를 형편대로 받아 주는 자리(8절)에서 멈춘다.
- 멈춤 2: 값으로 무를 수 없는 cherem의 자리(28절)에서 멈춘다.
- 멈춤 3: 십일조와 시내 산의 봉인으로 레위기가 닫히는 자리(34절)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값으로 환산되지 않는 한 자리가 있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드린 것을 값으로 셈하시면서도, 온전히 바친 것은 거룩히 두시는 분 앞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서원의 값(2절)으로 열려 시내 산의 봉인(34절)으로 닫힌다
- [x] 사람·짐승·집·밭이 값으로 환산된다
- [x] 무르려는 자는 오분의 일을 더한다
- [x] 가난한 이는 형편대로 값을 받는다(8절)
- [x] 처음 난 것과 cherem은 무를 수 없다
- [x] 십일조가 여호와와 의 것으로 책의 끝에 놓인다
- [x] 26:46과 27:34의 두 번 봉인이 부록의 결을 보여 준다

레위기를 닫으며 다음 권으로 가져갈 한 단어: 거룩히 구별됨.

미해결 질문

레위기 2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귀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27장이 26장의 봉인 뒤에 다시 붙어(두 번 봉인) 부록처럼 놓인 까닭은?

- 관찰 사실: 26:46과 27:34가 거의 같은 봉인 문구로 두 번 닫음.
- 책 본체 뒤에 한 단락이 더 붙은 까닭을 본문은 설명하지 않음. 목상 단계로 이월.

Q2. 모든 것이 값으로 환산되는데 cherem만 무를 수 없는(28절) 까닭은?

- "지극히 거룩하여" 팔지도 무르지도 못함.

- 환산되지 않는 한 가지가 박힌 까닭을 본문은 따로 풀지 않음.

Q3. 29절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

- 본문은 그 구체적 경우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난해 구절.
-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보존.

Q4. 무를 때마다 "오분의 일"을 더하는(13·15·19·31절) 까닭은?

- 같은 비율이 거듭 반복됨.
- 그 숫자의 까닭을 본문은 말하지 않음. 관찰까지만.

Q5. 십일조가 레위기의 맨 끝(30-33절)에 놓인 까닭은?

- 큰 복·저주(26장) 다음, 마지막 실무가 십일조이고 그 뒤 바로 봉인.
- 그 배치의 뜻은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6. 처음 난 것(bekhor)이 "이미 여호와와 의 것"이라 서원할 수 없는(26절) 까닭은?

- 드리려 해도 이미 그분의 것이라 따로 바칠 수 없음.
- 그 이미 정해진 귀속이 질문으로 남음.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레위기를 닫으며, 다음 권(민수기)으로 같은 결을 가져간다.
